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48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청소년의 삶과 고민: 10년의 변화



한국청소년상담원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청소년의 삶과 고민:10년의 변화

- 일시 : 2003년 5월 14일(수) 오후 1:30~15:30
- 장소 :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

진행 일정

- 13:30 ~ 14:00 등록 및 만남의 시간
- 14:00 ~ 14:10 개회사
- 14:10 ~ 14:50 기조강연 발표
발 표 : 문 용 린(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 14:50 ~ 15:10 실태조사 결과 발표
- 15:10 ~ 15:20 영상물 상영
- 15:20 ~ 15:30 휴 식
- 15:30 ~ 17:00 영역별 주제발표
이 광 호(경기대 청소년학과 교수)
김 일 심(당산서중학교 진로상담부장)
금 명 자(본원 상담교수)
- 17:00 ~ 17:30 종합토론 및 폐회

목 차

기조강연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문용린 / 5

실태조사 결과발표

청소년의 삶과 고민 : 10년의 변화 실태 조사 / 17

영역별 주제발표 I

사회·문화의 변화와 청소년 - 이광호 / 59

영역별 주제발표 II

학교의 변화와 청소년 - 김일심 / 83

영역별 주제발표 III

상담사례를 통해 본 청소년의 변화 - 금명자 / 93

부 록 I

청소년의 삶과 고민에 관한 실태조사 설문지 / 115

부 록 II

청소년의 삶과 고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표 / 127

부 록 III

1988년 ~ 2000년의 주요 사회 변화 / 137

부 록 IV

청소년 호소문제 분류표 분석결과 / 143

부 록 V

청토, 특상 리스트 / 149

기조강연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문 용 린(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우리의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문 용 린 (서울대 교수)

1.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아마 이 물음을 청소년을 구분 짓는 연령 범위를 몰라서 묻는 질문으로 오해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믿는다. 청소년 세대는 인류가 20세기에 진입한 이래 지구의 곳곳에서 긴장과 갈등, 염려와 우려를 많은 기성세대들 사이에 유발시켜온 세력이었다. 그들은 기성세대를 가장 괴롭힌 세력들이었으나, 그들 자신이 새로운 기성세대로 편입되면서 그들을 대신한 새로운 청소년들로부터 또 괴롭힘을 당한다. 그들은 기성세대에 즐기차게 조목조목 반항하지만, 그들 자신이 기성세대가 되어서는 또 새로운 청소년들로부터 동일한 방식의 반항을 당한다.

인류의 지난 100년 속에는 이런 역사의 반복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100년이 넘게 지금껏 해오고 있는 것이다. 스탠리 홀(S. Hall)은 비교적 단순했다. 신체의 신진대사와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시점이 청소년기이며, 이런 활력과 에너지를 바르게 제어할 학습이 부족한 게 또 청소년 시기이다. 따라서 통제되지 않은 활력이 질풍노도처럼 꿈틀대고 있는 시기가 청소년기인 것이다. 이 설명으로 미국의 “이유 없이 반항”하는 10대는 설명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미카레트 미드(M. Mead)가 사모아 연구를 통해서 보였듯이 사회문화적 조건이 청소년의 모습을 사뭇 다르게 변형 시키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되어, 홀의 이론의 한계가 노정되기에 이른다.

미드 덕분에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하는 물음은 문화 인류학자들의 손을 거쳐서 전 세계로 확대되어 가기에 이르고, 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보편이론(universal theory) 보다는 “특정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의 청소년 심리와 행태”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증가하게 된다.

1900년 이후 지난 100년간 세계의 전반적인 흐름은 산업사회를 심화시켜오다가 최근의 20여년을 전후해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전 세계의 대다수 나라가 진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보의 속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산업사회를 거쳐서 지식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큰 흐름에서는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G7 선진국이 이런 변화의 선두에 있고, 한국과 멕시코를 위시한 중진국들이 10여년 가까이 뒤지면서 그 뒤를 쫓고 있다.

청소년의 문제도 결국 이러한 세기적 사회문화적 조건의 변화와 연동해 변화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한 국가나 지역의 사회 문화적 조건 속에서 독특한 모습으로 자기 모습을 구축해왔다. 이는 결국 예컨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문제에는 미국이나 일본의 청소년 문제와 세기적 혹은 시대적 공통점을 시간 차이를 두고 공유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에만 고유하게 나타나는 특수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하는 물음은 이러한 청소년 문제의 세기적 혹은 시대적 공통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동시에 규명하려는 지적관심의 일환이 된다. 이런 질문이 왜 중요한지는 그리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지금 현재 우리는 국가 수준에서 청소년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정성을 쏟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소년보호 위원회가 있고, 문화관광부 산하에 청소년 개발원과 청소년상담원이 설치되어있다. 그곳에서 수백 명의 학자와 전문가가 오로지 청소년 관계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왜 필요한가? 청소년들 속에서 국가와 민족그리고 그들 자신의 미래를 보는데, 그것이 그렇게 미덥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비행과 일탈, 폭력과 범죄, 나태와 무력이 한편에서 보이는가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기심과 탐욕, 향락과 지배욕, 적개심과 부도덕에 젖어드는 청년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청소년들은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그들의 안전과 행복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의 위기 상황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들을 가지고는 한국사회의 진보와 유지존속이 어려워지게 될 지도 모른다는 뜻에서의 위기상황의 의미도 있다.

그래서 청소년, 과연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 글은 한국의 청소년을 염두에 두고 쓰여 졌다. 2000년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지난 과거도 뒤돌아보고, 향후의 미래도 전망해 보면서 지금 현재 한국의 청소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통시적으로 일견해 보고자하는 것이다. 이런 성찰이 가급적 우리의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는데 의미 있는 방향과 목표의 설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待機世代로서의 청소년

해방이후 지금까지 60여년이 넘게 청소년을 보아온 가장 보편적인 시각은 기성세대에의 편입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세대(待機世代: waiting generation)라는 것이었다. 청소년이 대기세대라는 시각은 실상 그 뿌리가 아주 깊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시각은 수천 년 전부터 기성세대를 지배해온 청소년 관(觀)이었다.

이 고전적 대기세대 시각에서는 청소년기란 기성세대에 편입되기 직전의 과도기로서 어린이와 성인 사이에 존재하는 10여 년 간의 성인입문준비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 시기의 목표점은 기성세대에 적응하는 것이고, 이 적응의 성공 가능성 여부가 청소년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 그래서 청소년의 일탈과 반항은 기성세대에의 편입 요구에 대한 저항과 부적응으로 간주되어, 기성세대는 뚝뚝 뭉쳐서 단호한 제재를 가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 시각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기성세대가 청소년에 대하여 막강한 힘을 행사하게 되며, 이 힘이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기성세대의 요구, 희망 그리고 기대에 청소년이 잘 호응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비정상적인 관계에서는 기성세대의 제지, 금지 그리고 반대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불만을 가지고 저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시각에서 보면 기성세대가 가장 만족해하는 청소년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믿음직한 후계자”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을 “믿음직하고 성실한 후계자가 될 가능성”을 평가의 잣대로 평가하게 됨으로써, 이 기준에 미흡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을 교정, 지도 그리고 상담하려고 한다.

이 시각에서 보면 일탈한 청소년은 탈영병처럼 간주된다. 탈영병은 있어야할 원위치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일탈 청소년은 일탈 그자체가 아니라 기성세대가 기대하고 있는 원위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60여 년 간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 정책과 실체는 그것이 비행에 대한 접근이든 상담이든 건전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든 간에 이런 고전적 시각 하에서 수립되고 진행되어왔다. 즉 우리 청소년들을 기성세대의 건전한 후계자로 육성해야한다는 목표아래 노력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기성세대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풀리지 않는 곤혹스런 문제이며, 더욱이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그 심각성의 도는 더 가중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 정책 당국자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많은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면 청소년 문제는 더 나아질 것이므로 그런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배어있는 셈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이 시점에서 우리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해결에 모범을 보여 온 대다수 선진국들이 청소년 문제에 관한 한 어떠한 모범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대다수 선진국들이 지난 100여 년 간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빈곤, 질병, 범죄, 무질서 등의 사회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했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인류의 편익을 엄청난 수준으로 끌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의 해소는 여전히 답보상태이며, 그 악화의 정도는 오히려 후진국이나 중진국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 선진국들이 청소년 문제에서 이처럼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재정투입에 인색하고, 연구를 게을리 하고, 사회 정책적 여건 개선에 게을리 해서 인가? 청소년 지도자, 상담자, 행정가,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의 헌신성과 실력이 모자라서인가?

미국을 예로 들어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 전문기관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 활동에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수많은 민간 자원 봉사조직이 헌신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세계 제일의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이 대학과 연구소에 포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청소년 전문가들도 미국에 유학하면서 그 전문성과 기술을 배워 온 게 사실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청소년 문제 해결에 성공적인 나라는 결코 아니며,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총기난동 사고의 원조는 미국이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청소년의 건전성을 진단하는 중요한 지표들에서 미국은 여전히 꼴찌를 달린다. 10대 임신율, 청소년의 범죄와 비행율, 중고교 중도 탈락율, 마약 복용율 그리고 반달리즘이 세계최고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의 실패경험은 우리에게 무슨 시사를 하는가? 조금은 우울한 시사일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에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재정을 더 투입하고, 시설을 늘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능한 전문가와 행정가를 양성하고 헌신적인 상담자와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투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는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으리라는 예상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인들조차도 국가가,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좌절감에 빠져있다. 레이건 정부 아래에서 최초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윌리엄 베네트가 바로 그런 좌절감을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이며, 그런 좌절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청소년 정책을 입안하고자 애쓴 사람이다.

그는 청소년 정책에 관한한 지원과 상담보다는 일반 교양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성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청소년을 “건전한 후계자”로 키워야한다는 “청소년=대기세대”라는 고전적 시각에 충실하다는 점에서는 다른 전문가와 다를 바가 없다.

이제 근원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고전적 시각에 대한 새로운 성찰 말이다. 이 고전적 대기세대 시각은 기성세대가 설정한 방향으로 청소년을 이끌어 가려는 욕심과,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하는 기성세대의 오만과 자만이 배어있는 시각이다.

지난 100년간에 걸쳐서 청소년들의 의식 속에 꾸준히 점증되어온 인식과 자신감은 이제 이러한 고전적 시각이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이제 기성세대로 편입되기 위한 대기조로서 스스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에 대한 대안세대(對案世代: alternative generation)로 스스로를 파악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3. 對案世代로서의 청소년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불어 닥친 지식정보화 사회와 컴퓨터 기술의 보편화는 기성세대와 청소년 사이의 힘의 엄청난 불균형을 균형으로 전환 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다. 컴퓨터 기술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게 되지만, 기성세대는 이 변화에 머뭇거리며 적응 못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재빠르게 이에 적응하여 사회적 적응력을 높여왔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높은 적응력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파워 형성에 크게 기여하여, 우선 그들로 하여금 경제적 소비의 주축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며, 그 여파로 문화, 레저 스포츠는 물론 정치에서조차 힘 있는 집단으로 성장하게 한다.

가정에서도 청소년이 물건을 선택하고 결정하면 부모는 돈만 지불하면 되는 경제적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구매 패턴이 일상생활에서 자리 잡은 지는 이미 오래다. 회사와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젊은이들의 아이디어와 취향에 유념하지 않고는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엄청난 파워를 가진 재벌과 대기업들도 소수의 젊은이들이 모여 만든 소규모 벤처산업에 경쟁력을 빼앗기기도 한다.

차고에서 끙끙대며 컴퓨터 만지던 평범한 도시민의 대학 중퇴생 아들이었던 빌 게이츠가 미국의 전통적 갑부인 록펠러 보다 수십배 더 큰 부자가 되었다 그것도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제2,제3의 빌 게이츠를 꿈꾸며 컴퓨터와 발명, 그리고 회사 경영에 모두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한글의 김찬진 사장이 컴퓨터 바이러스의 대가 안철수 사장등이 바로 기성세대들은 꿈에조차 생각해보지 못한 일을 그들은 현실에서 이룩해 낸 것이다.

이들의 꿈은 기성세대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편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기성세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고 싶은 것이다. 즉 대안 세대의 꿈을 안고 있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이들은 기성세대에게는 아무런 관심조차도 없다. 오직 자신들의 미래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며, 자신들이 꿈꾸는 미래가 현재의 기성세대와 어떻게 관련될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이다. 이들이 지금 현재의 기성세대에 편입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근거없는 바램일 뿐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기세대로 바라다보는 고전적 시각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이른바 청소년을 대안세대로 바라다보는 21세기적 시각이다. 이 시각에서는 청소년을 기성세대에 적응 시키고 길들인다는 생각과는 달리, 청소년들이 독자적인 스타일의 새로운 기성세대를 창출하고 조성해 가리라는 기대와 신념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다 보는 것이다.

이미 이 방향으로 청소년의 문화와 의식은 바뀌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다만 기성세대들만이 이 흐름을 눈치 채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다. 한류열풍을 일으키며 동아시아를 석권하고 있는 10대의 패션, 가요, 영상 등의 문화는 젊은이들 속에서 자라고 있는 새로운 기성세대의 전조이지 편입대기의 모양새가 아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가에 불고 있는 벤처 스타일의 삶의 방식, 이른바 운동권으로 대변되는 사회정치적 가치와 기대의 흐름, 인터넷 문화의 확산으로 차츰 위용을 드러내는 참

여의 문화와 기운, 월드 컵의 붉은 악마 현상 속에 함축된 젊은이들의 문화 등은 기성 세대에의 편입을 기다리는 대기세대로서의 청소년이라는 시각으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고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설사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기성세대의 구미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능력은 이미 우리 기성세대 속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계기로 우리 사회 속에 진보적 사상을 가진 젊은이들이 급부상했다. 이들은 기성세대에 언제인가 잘 편입될 것으로 좋게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보라. 그들이 기성세대에 편입되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했던 미래를 대안적으로 형성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더 나아가서, 지금의 기성세대를 바꾸려하고 있지 않은가?

현재의 청소년들은 이미 2, 30년 전의 청소년과는 상당히 다르다. 스스로의 미래를 기성세대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가치감 그리고 실제적인 능력을 엄청난 모습으로 갖추고 있다. 이점을 무시한 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우리의 충실한 후계자로 만들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꿈만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는 역지를 부리고 있어서 청소년들은 대단히 거북스럽고 짜증이 나며, 스트레스를 느낀다. 청소년들을 대기세대로만 이해하려해서는 청소년 문제를 풀 수가 없다. 대안세대의 측면을 강조하고 이해하면서 도와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4. 두 시각의 갈등, 조정 그리고 조화

청소년을 대기세대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안세대로 볼 것인지는 자녀양육이나 교육 또는 청소년 지도에 대한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회 전체의 주된 공감대가 어느 방향에 있는가에 따라 정책의 우선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양시양비론(兩是兩非論)보다는 한 입장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대기세대의 관점이 전혀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은 이른바 사회화라는 과정 속에서 기성세대의 가치와 행위규칙 그리고 문화와 관습을 전수 받아야한다. 그러나 이것이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자율성 그리고 융통성을 배제하거나 무시한다고 하면 이 관점은 청소년을 기성세대의 복제품으로 만들려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난 60여 년 간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과 집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대기세대의 관점에 너무 큰 강조를 두어온데 있다. 70년대의 장발과 미니 스커트 단속 그리고 금지곡 단속이 이 시각의 전형적 사례이다. 오늘날에는 이런 무지막지한 요구는 줄어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기성세대와 사회는 머리 속에 설정한 획석화한 청소년의 후레임에 살아있는 청소년을 짜맞추어 넣으려 애쓰고 있다. 그래서 가정, 학교, 군대, 직장, 길거리에서 기성세대와 청소년은 으르렁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으르렁거림을 이젠 가급적 멈추게 해야 한다. 그것을 멈추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대기세대의 관점을 대안세대의 관점으로 전환 시켜가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을 기성세대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복수의 다양한 관점에서 보아야한다. 청소년이 살아가게 될 어른의 모습을 기성세대가 결정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게 해야 한다. 결혼하려는 당사자들을 제치고 부모가 깊게 관여하여 배우자 결정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딱하게 느낀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미래에 공연히 관여하여 고집부리는 기성세대의 모습에는 별로 예민하지 못하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복제품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대안적 삶을 준비하도록 격려 받아야한다. 우리의 유교문화는 이 점이 약점이었다. 청소년들 속에서 새로운 모습이 기성세대가 자랄 수있도록 도와 주는 용기와 인내 그리고 모험심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구한말 시절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에 여행하여 서구문물에 접할 수 있었던 민영익이 조선의 젊은이들이 당시의 기성세대와는 다른 모습의 기성세대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 주었더라면, 일본과 한국의 모습은 아주 달라졌을 것이다. 일본의 기성세대가 그들의 젊은이들이 서구문명에 쉽취하여 새로운 기성세대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었을 때에 민영익은 미국의 호텔 방에서 공자와 맹자를 읽고 있었다, 그는 조선의 청소년들을 자신들의 복제품 이상으로는 결코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민영익이 청소년을 대기세대로 이해한 전형이라고 한다면, 일본개화의 선구자 요시다 쇼인은 청소년을 대안세대로 이해한 전형이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성세대가 즉 대안적인 기성세대가 될 것을 가르쳤다. 그렇게 교육받은 그의 제자가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것은 그래서 놀랄 일이 아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는 그 특성 자체가 청소년들 속에서 대안

적인 기성세대를 가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는 인류가 이제껏 경험한 어떤 사회보다도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기 꿈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해주고 있다. 엄청난 가능성과 기회가 사이버 공간 속에서 그들에게 무진장 제공되고 있으며, 그들은 이것을 기성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활용할 실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이제 청소년을 대기세대의 시각으로 바라보길 그쳐야한다. 그들이 대안적인 기성세대를 이루리라는 기대를 오히려 크게 가져야한다. 19세기 말 민영익등이 저지른 실수를 21세기 초에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청소년들을 대안세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들이 보다 창의적으로 건전하고 가치 있는 새로운 모습의 기성세대를 형성하길 고대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꽤 많을 것이다. 그 동안 청소년들을 기성세대의 복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노력을 반성하면서, 더 많은 재정과 전문가 그리고 시설을 확보해서 대안세대에 육성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발표

청소년의 삶과 고민 : 10년의 변화

김 동 민(한국청소년상담원 상 담 교 수)

권 해 수(한국청소년상담원 선임상담원)

이 소 영(한국청소년상담원 상 담 원)

이 희 우(한국청소년상담원 상 담 원)

청소년의 삶과 고민 : 10년의 변화

김 동 민(한국청소년상담원 상 담 교 수)

권 해 수(한국청소년상담원 선임상담원)

이 소 영(한국청소년상담원 상 담 원)

이 희 우(한국청소년상담원 상 담 원)

본 조사 연구는 청소년의 삶과 고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 결과를 지난 10년간 본원에서 조사·연구되었던 결과들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주요 영역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의 대체적인 변화 경향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1. 조사 내용

본 연구의 조사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고민 유형 및 대처 방식

둘째, 청소년들의 학업 및 친구 관계

셋째,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 유형, 용돈 실태, 인터넷/핸드폰/ 전화 사용 실태

넷째, 청소년들의 외모, 다이어트, 성형 실태

다섯째,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 빈도 및 성경험 정도

여섯째, 청소년의 진로, 미래관, 행복도

위와 같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설문지의 구조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표 1> 설문조사 항목, 조사 내용 및 문항수

항 목		내 용	문항수
인적사항		나이, 성별, 부모학력, 경제적 지위, 부모형태, 성적	6
고민	고민 영역	가족, 문제 행동, 학업, 진로, 성, 대인관계, 성격, 정신건강, 태도	2
	고민의 대처방식	소극적-적극적해결방식	
학업, 친구관계	학업	평균 공부 시간, 학력에 대한 생각, 학교에 대한 생각	10
	관계중요성	가족, 친구, 교사와의 관계 비중	
	친구	친구의 의미, 친구사귀의 필요한 가치, 이성친구 관계	
	부모관계	부모와의 대화시간, 부모의 대화태도	
여가활동	놀이활동의 유형	운동, TV시청, 종교활동, 쇼핑 등 유무	7
	용돈	용돈액수, 충분 정도, 충당방법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사용종류	
	핸드폰, 전화	사용시간	
	수면시간	수면시간	
외모	외모, 다이어트, 성형	외모, 성형수술에 대한 인지, 다이어트 종류, 성형행동 유무	3
문제행동	문제행동 빈도	음주, 흡연, 약물, 음란물, 가출충동, 학교폭력, 가정폭력 행동유무, 빈도	5
	성 경험정도	성경험종류, 처음성관계, 혼전성관계 태도	
	가출	가출충동	
진로, 미래관, 행복	미래관	미래에 대한 계획, 미래사회에서의 중요도의 차이	11
	진로	진업선택 가치, 진로결정방법, 진로분야	
	국가의 미래	한국의 지위, 남북관계	
	행복	행복도, 행복한 시기, 불행한 시기	

II. 조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전국 중·고등학교 중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의 인구 비율을 감안하여 임의 추출로 총 37개 중·고등학교를 선정한 후, 1,76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삶과 고민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표집 방법과 절차

표집 방법은 성별, 지역별, 학령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이었다. 선정된 학교에 사전 조사 연구의 목적을 알리고 허락을 받은 뒤 설문지를 우편 발송 및 회수하였다. 설문조사는 3월26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총 154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회수율은 87.5%이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for Windows Version 9.0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문자료를 통계분석하였다.

첫째, 전체 응답 청소년들의 삶과 고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 학교별, 학업성적별 청소년들의 삶과 고민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특성

설문 응답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가 53.5%, 남자가 45.9%이었으며, 학교 급별로는 중학생이 42.8%, 인문고 16.0%, 실업고 41.2%를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학생이 46.2%, 중소도시 학생이 31.6%, 읍면 지역 학생이 22.1%를 차지하였다. 학업 성적별로는 평균 60점 이하가 20.6%, 평균 61-70점 23.1%, 평균 71-80점 26.0%, 평균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81-90점 20.0%, 평균 91점 이상이 8.4%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자세한 분포는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대상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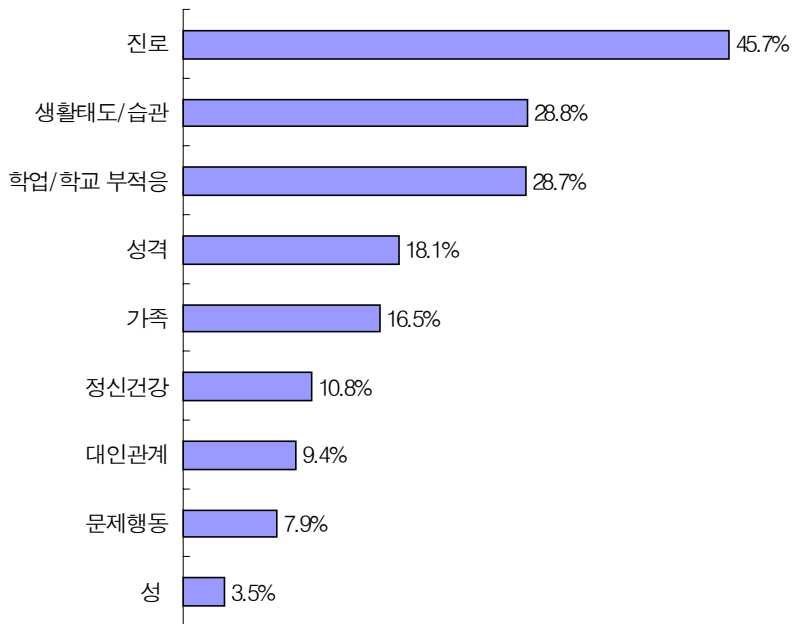
항 목	구 분	빈 도	%
지역	대도시	712	46.2%
	중소도시	487	31.6%
	읍면지역	341	22.1%
성별	여자	823	53.4%
	남자	711	46.2%
학교	중학교	659	42.8%
	인문고	246	16.0%
	실업고	635	41.2%
학업성적	평균 60점 이하	317	20.6%
	평균 61-70점	355	23.1%
	평균 71-80점	400	26.0%
	평균 81-90점	308	20.0%
	평균 91점 이상	130	8.4%
가정 경제적 수준	150만원 미만	257	16.7%
	150-300만원 미만	331	21.5%
	300-450만원 미만	104	6.8%
	450원 이상	63	4.1%
	모르겠다	770	50.0%

III. 조사 결과

1. 청소년의 고민 영역과 대처 방식

1) 청소년의 고민 영역

청소년들이 가족, 문제 행동, 학업 및 학교 부적응, 진로, 성, 대인관계, 성격, 정신건강, 생활태도 및 습관 등의 9가지 영역에 걸쳐 최근 한달 동안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진로'(45.7%), '생활태도 및 습관'(28.8%), '학업 및 학교 부적응'(28.7%), '성격'(18.1%), '가족'(16.5%), '정신건강'(10.8%), '대인관계'(9.4%), '문제행동'(7.9%), '성'(3.5%)의 순으로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그림 1> 청소년의 고민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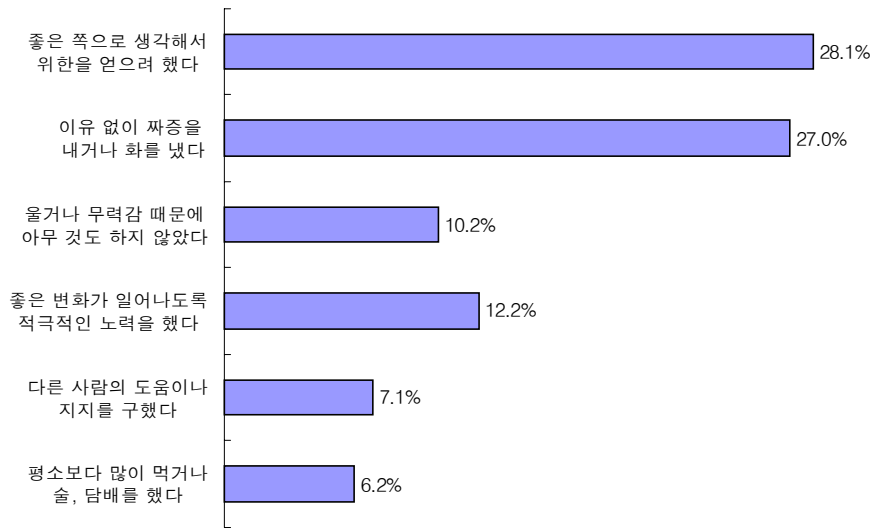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성별에 따라 청소년들의 고민 영역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하여 '가족'(여 19.0%, 남 13.4%), '진로'(여 48.5%, 남 42.5%), '대인관계'(여 11.9%, 남 6.7%), '성격'(여 19.7%, 남 15.9%), '정신건강 영역'(여 13.5%, 남 7.7%)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하여 '성'(여 1.7%, 남 5.5%), '생활태도 및 습관 영역'(여 26.3%, 남 31.6%)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1 참조>.

학교급별에 따라 청소년들의 고민 영역을 분석한 결과, 각 영역에 대해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의 고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에 대해 인문고 학생과 실업고 학생을 비교한 결과, 인문고 학생이 실업고 학생에 비하여 '학업 및 학교 부적응'(인문고 34.8%, 실업고 26.4%), '성격'(인문고 20.9%, 실업고 17.6%), '정신건강 영역'(인문고 14.3%, 실업고 11.5%)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고 학생은 '문제행동'(인문고 7.7%, 실업고 10.8%)과 '생활태도 및 습관 영역'(인문고 29.9%, 실업고 31.2%)에서 인문고 학생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1 참조>.

2) 청소년의 고민 대처 방식

청소년들이 고민이 있을 때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위안을 얻으려 했다'(28.1%)와 '좋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12.2%),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지지를 구했다'(7.1%) 등의 응답이 전체의 47.4%로 조사 대상자의 반 정도가 적극적/긍정적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유 없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냈다'(27.0%), '울거나 무력감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10.2%), '평소보다 많이 먹거나 술, 담배를 했다'(6.2%) 등의 응답도 전체의 43.4%로 청소년들이 고민이 있을 때 소극적/부정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그림 2> 청소년의 고민 대처 방식

성별에 따라 청소년들의 고민 대처 방식을 살펴본 결과,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서 ‘이유없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냈다(여 32.1%, 남 20.9%)’, ‘울거나, 무력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여 15.2%, 남 4.4%)’,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지지를 구했다(여 8.2%, 남 5.9%)’의 대처 방식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하여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위안을 얻으려고 했다(여 22.5%, 남 34.6%)’, ‘평소보다 많이 먹거나 술, 담배를 했다(여 4.2%, 남 8.5%)’, ‘좋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여 10.1%, 남 14.3%)’는 대처 방식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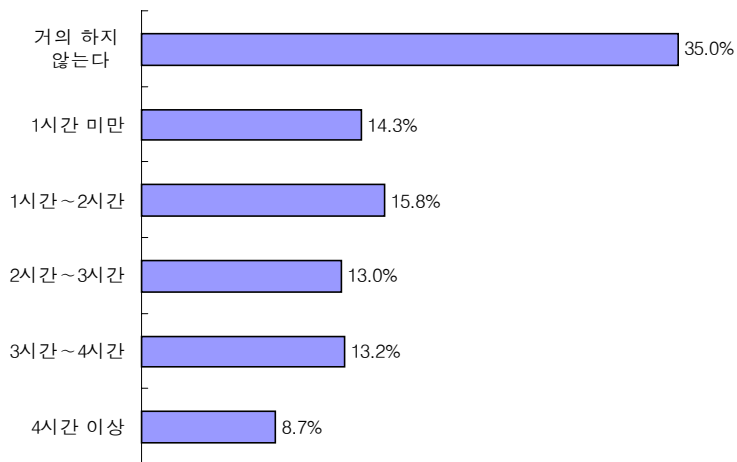
학교급별에 따라 청소년들의 고민 대처 방식을 살펴본 결과, 중학생들은 인문고 학생과 실업고 학생에 비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지지를 구하는 대처 방식(중학교 13.8%, 인문고 9.4%, 실업고 10.7%)’을 많이 보였다. 실업고 학생은 중학생이나 인문고 학생에 비하여 ‘무력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중학교 9.8%, 인문고 12.2%, 실업고 20.6%)’, ‘평소보다 많이 먹거나 술, 담배를 하는 대처 방식(중학교 2.6%, 인문고 3.6% 실업고 10.5%)’을 많이 보였다. 인문고 학생은 중학생이나 실업고 학생에 비하여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위안을 얻으려는 방식(중학교 26.1%, 인문고 31.5%, 실업고 27.6%)’을 많이 보였다<부록 표 2 참조>.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2. 청소년의 학업 및 친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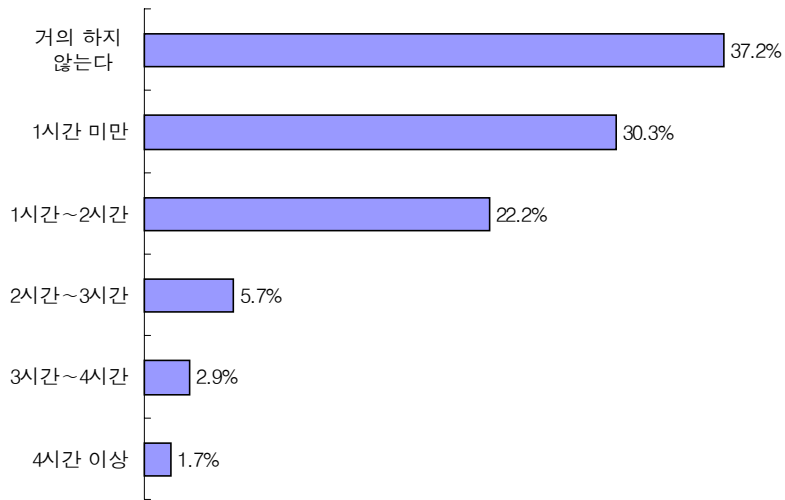
1) 학원, 과외 시간 및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학원 및 과외에 보내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고, ‘1시간~2시간’이라는 응답이 15.8%를 차지하였고, ‘1시간 미만’(14.3%), ‘3시간~4시간’(13.2%), ‘2시간~3시간’(13.0%), ‘4시간 이상’(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그림 3> 학원, 과외 시간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학교, 학원, 과외 등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외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알아본 결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고,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30.3%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 외, ‘1시간~2시간’(22.2%), ‘2시간~3시간’(5.7%), ‘3시간~4시간’(2.9%), 그리고 ‘4시간 이상’(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위에서 나타난 두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전체 청소년들이 학원 및 과외 시간에 비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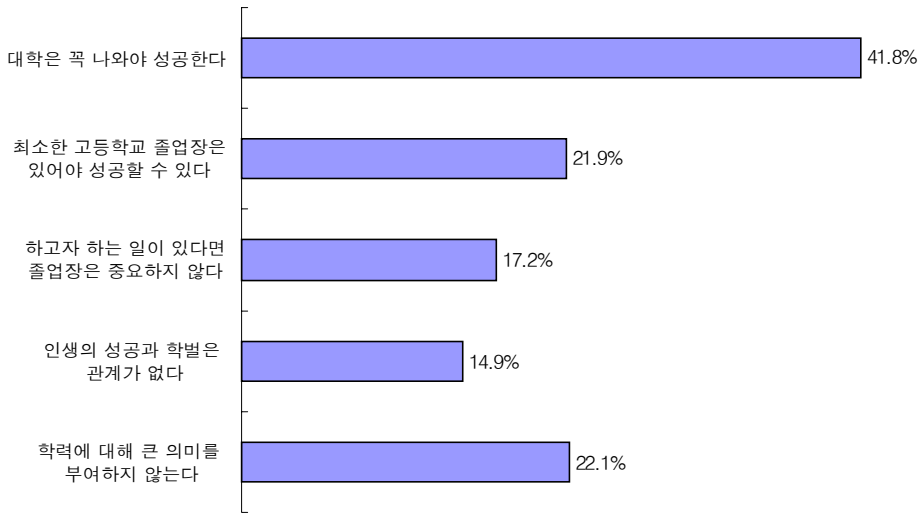
<그림 4>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한편, 성별에 따라 학원, 과외 시간 및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하여 학원, 과외 시간이 많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3 참조>. 또한 학업성적별에 따라 학원, 과외 시간 및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비교해본 결과,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원, 과외시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3 참조>.

2) 학력에 대한 견해

청소년들의 학력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 전체의 41.8%가 ‘대학은 꼭 나와야 성공한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21.9%는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청소년의 17.2%는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졸업장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14.9%는 ‘인생의 성공과 학벌은 관계가 없다’는 응답을 하여, 전체의 32.1%가 학력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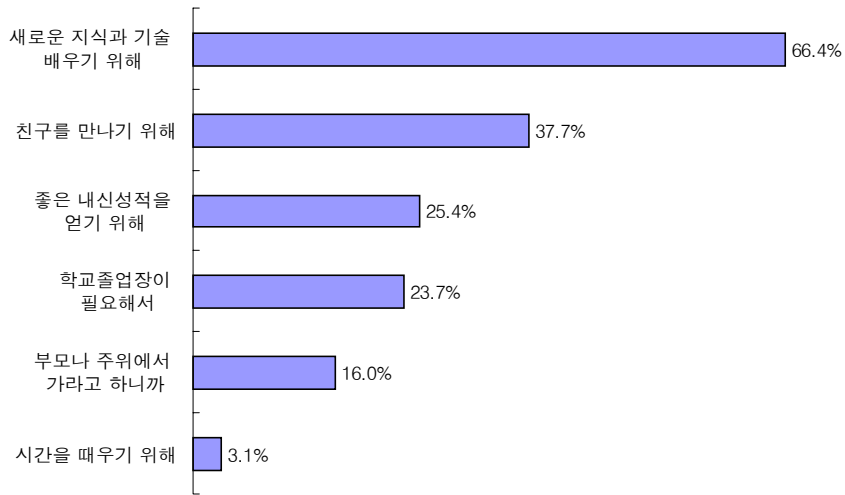
<그림 5> 학력에 대한 견해

성별에 따라 학력에 대한 의견을 비교해 본 결과,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대학은 꼭 나와야 한다’(여 39.5%, 남 44.6%)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4 참조>

학교별에 따라 학력에 대한 의견을 비교해 본 결과, 실업고생의 경우 ‘대학은 꼭 나와야 한다’는 생각은 중학생, 인문고생에 비하여 약한 반면에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경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4 참조>

3) 학교를 다니는 이유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로 많이 응답한 항목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66.4%),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37.7%), ‘좋은 내신성적을 얻기 위해’(25.4%), ‘학교졸업장이 필요해서’(23.7%) 등이었다. 그 외 ‘부모나 주위에서 가라고 하니깐’(16.0%),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3.1%) 등의 수동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응답도 전체의 19.1%로 많았다<그림 6 참조>.



<그림 6> 학교를 다니는 이유

성별에 따라 학교를 다니는 이유를 비교해 본 결과,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하여 ‘학교졸업장이 필요해서’(여 26.2%, 남 20.7%), ‘좋은 내신 성적을 얻기 위해서’(여 29.3, 남 20.8%)’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부록 표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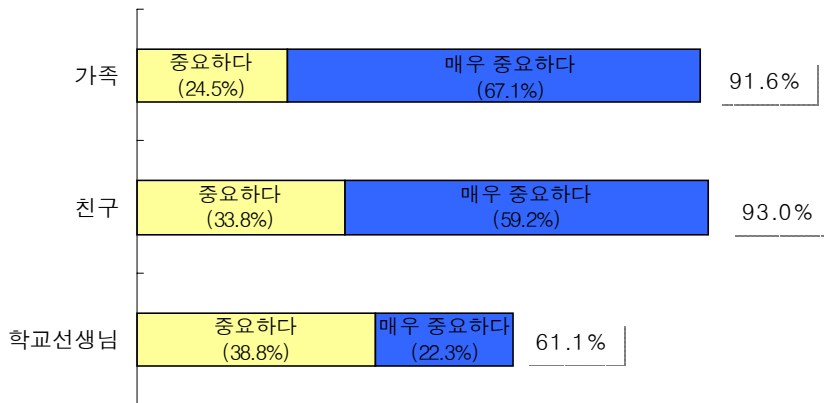
학교급별에 따라 학교를 다니는 이유를 비교해 본 결과, 중학생들은 인문고 학생이나 실업고 학생에 비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중학교 69.8%, 인문고 62.4% , 실업고 64.4%),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중학교 40.9%, 인문고 38.7%, 실업고 33.8%), ‘좋은 내신성적을 얻기 위해서’(중학교 30.4%, 인문고 22.4%, 실업고 21.2%)’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에 실업고 학생은 중학생이나 인문고 학생에 비하여 ‘학교 졸업장이 필요해서’(중학교 17.5%, 인문고 24.8%, 실업고 29.4%)’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부록 표 5 참조>.

4) 인간 관계 중요성

청소년들이 가족, 친구 및 선생님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91.6%(매우 중요하다 67.1%; 중요하다 24.5%),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93.0%(매우 중요하다 59.2%; 중요하다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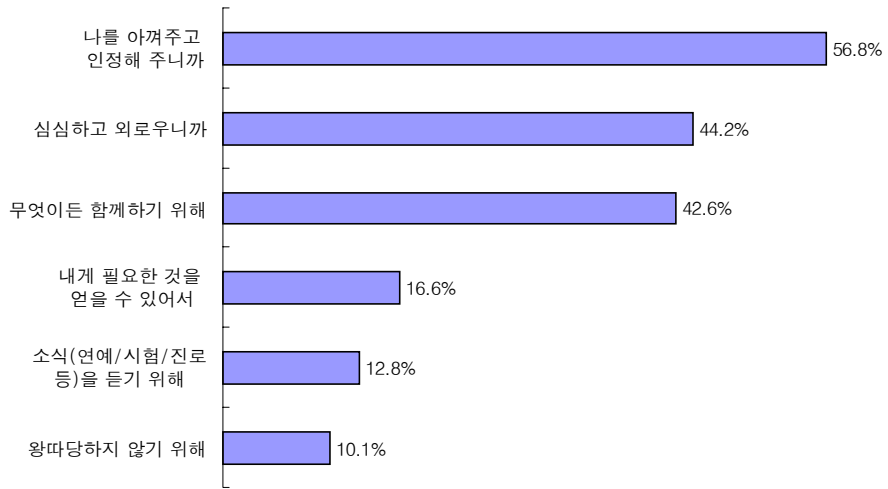
33.8%), 학교 선생님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61.1%(매우 중요하다 22.3%; 중요하다 38.8%)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대상별 관계의 상대적 중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가족, 친구, 선생님과과의 관계가 모두 중요하긴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친구나 학교 선생님과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겨진다<그림 7 참조>.



<그림 7> 인간 관계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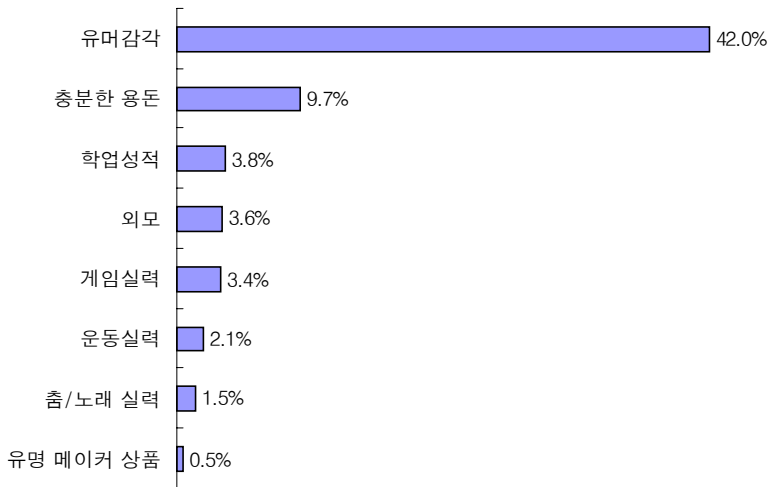
5) 친구를 사귀는 이유 및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 필요한 것

친구를 사귀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본 결과, ‘나를 아껴주고 인정해 주니까’(56.8%) 였으며, 그 다음으로 ‘심심하고 외로우니까’(44.2%), ‘무엇이든 함께 하기 위해’(42.6%), ‘내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어서’(16.6%), ‘소식(연예/시험/진로 등)을 듣기 위해’(12.8%), ‘왕따당하지 않기 위해’(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8 참조>.



<그림 8> 친구를 사귀는 이유

다음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유머감각’이라는 응답이 42.0%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충분한 용돈’(9.7%)이었다. 그밖에 ‘학업성적’(3.8%), ‘외모’(3.6%), ‘게임실력’(3.4%), ‘운동실력’(2.1%), ‘춤/노래 실력’(1.5%), ‘유명 메이커 상품’(0.5%) 등의 순으로 응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 참조>.



<그림 9>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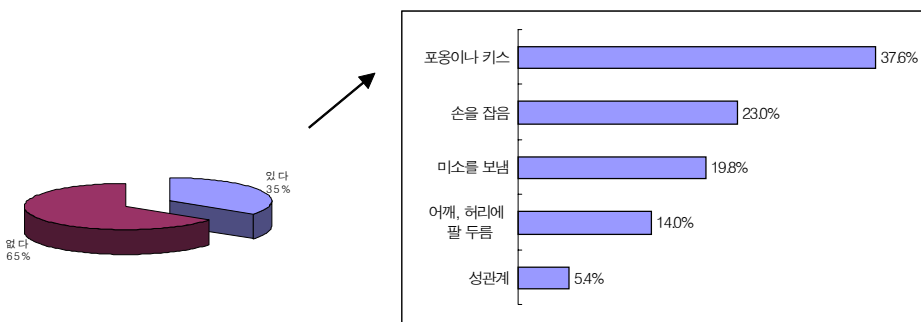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성별에 따라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비교해 본 결과,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하여 ‘유머 감각’(여 47.1%, 남 35.3%)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남학생들은 여학생에 비하여 ‘충분한 용돈’(여 8.6%, 남 11.5%), ‘게임 실력’(여 0.7%, 남 6.6%), ‘운동 실력’(여 0.4%, 남 4.1%)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부록 표 6 참조>.

학교급별에 따라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교해본 결과, 중학생에 비하여 인문고 학생과 실업고 학생은 ‘충분한 용돈’(중학교 7.9%, 인문고 11.4%, 실업고 11.4%)과 ‘유머 감각’(중학교 39.2%, 인문고 42.4%, 실업고 43.7%)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중학생은 인문고 학생과 실업고 학생에 비하여 ‘게임실력’(중학교 4.5%, 인문고 2.4%, 실업고 2.6%), ‘학업 성적’(중학교 5.9%, 인문고 3.2%, 실업고 1.8%)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부록 표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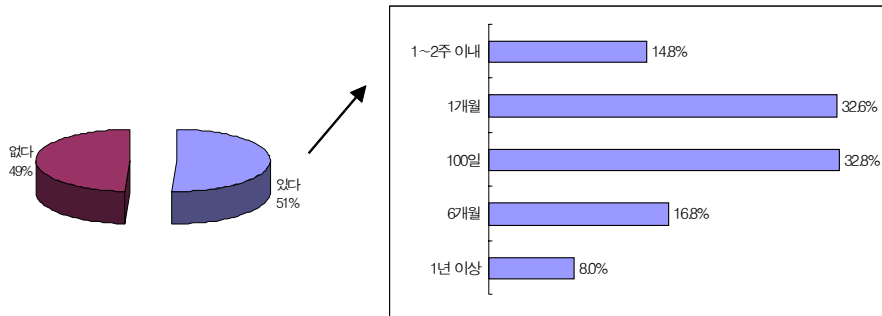
6) 이성친구와의 신체 접촉 정도 및 교체 기간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사귀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에서 이성친구를 사귀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3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대상으로 이성과의 신체적인 접촉 정도를 살펴본 결과, ‘미소를 보내는 정도’(19.8%), ‘손을 잡음’(23.0%), ‘어깨, 허리에 팔 두름’(14.0%), ‘포옹이나 키스’(37.6%), ‘성관계’(5.4%)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0 참조>.



<그림 10> 이성친구와의 신체 접촉 정도

다음으로, 한 사람과 지속적으로 사귀어본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50.9%가 한 사람과 지속적으로 사귀어본 경험이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과 사귀어본 기간의 평균을 물어본 결과, '1-2주 이내'(14.8%), '1개월 정도'(32.6%), '100일 정도'(32.8%), '6개월 정도'(16.8%), '1년 이상'(8.0%)의 순으로, 전체 응답자의 47.4%가 100일 이내에 관계가 끝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그림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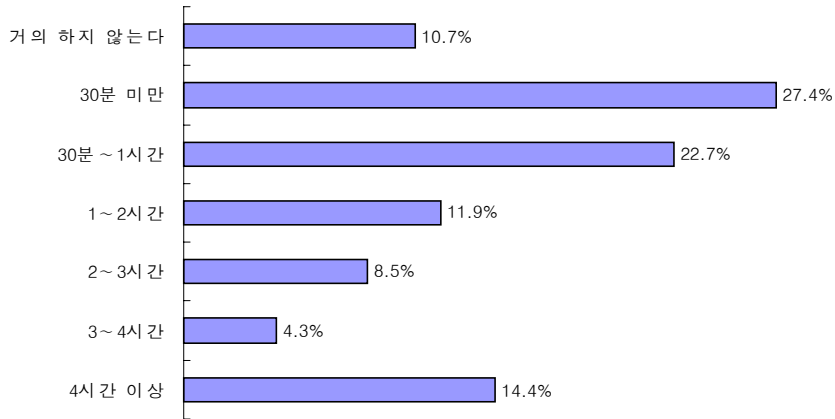


<그림 11> 이성친구와의 교제 기간

7) 부모와의 대화 시간 및 부모와의 대화에서 경험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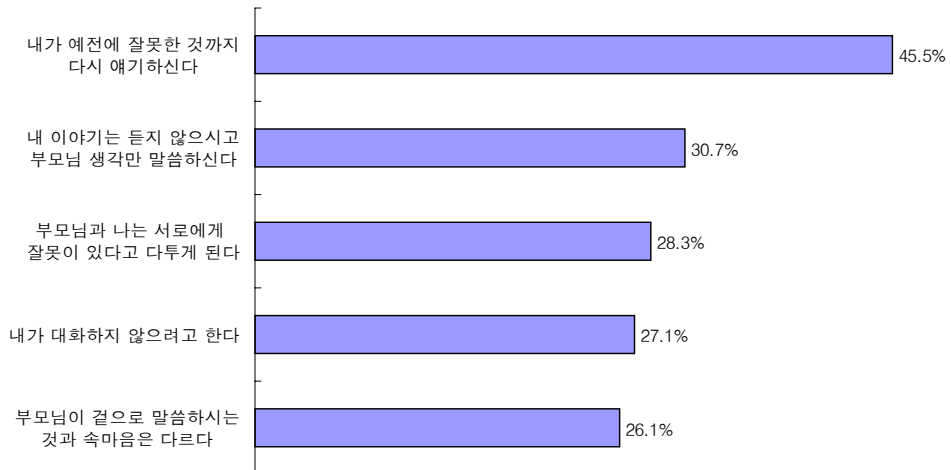
최근 일주일동안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 결과, '거의 하지 않는다'(10.7%), '30분 미만'(27.4%), '30분-1시간'(22.7%), '1-2시간'(11.9%), '2-3시간'(8.5%), '3-4시간'(4.3%), '4시간 이상'(14.4%)의 순이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60.8%가 최근 일주일동안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2 참조>.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림 12> 부모와의 대화 시간

다음으로 부모님과 대화할 때 자주 경험하는 것을 살펴본 결과, ‘예전의 잘못까지 다시 이야기하신다’(45.5%), ‘내 이야기는 듣지 않으시고 부모님 생각만 말씀하신다’(30.7%), ‘부모님과 나는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고 다투게 된다’(28.3%), ‘내가 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27.1%), ‘부모님이 겉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속마음은 다르다’(26.1%) 인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부모와의 대화 과정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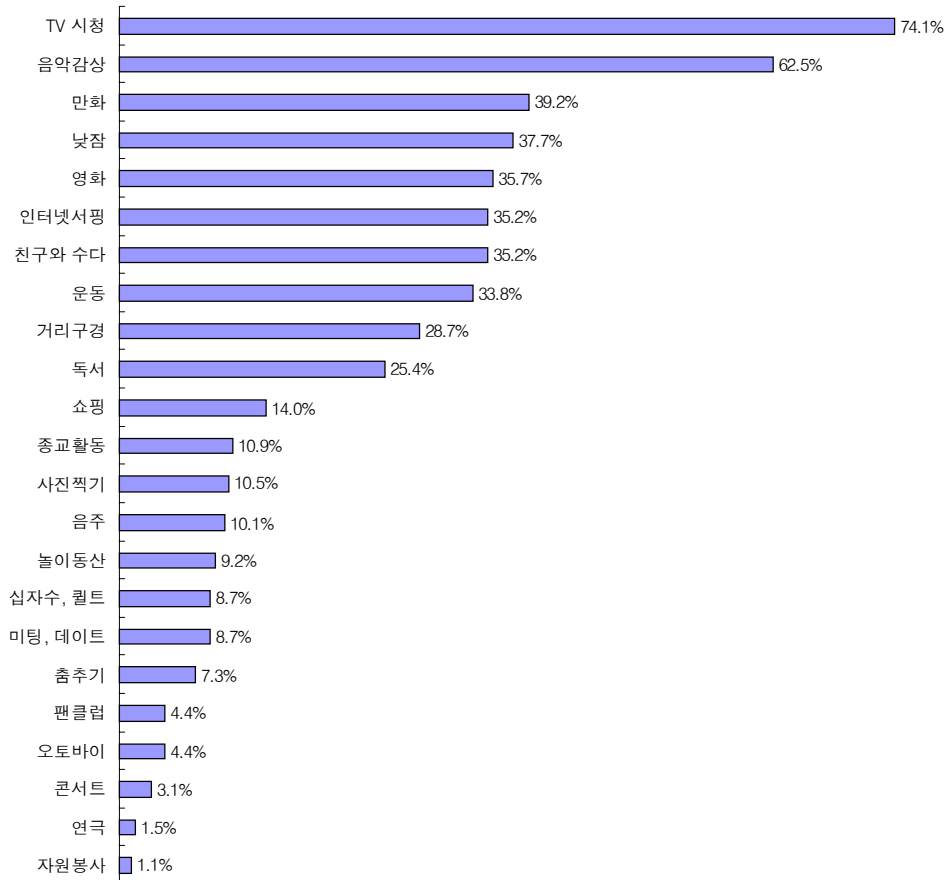


<그림 13> 부모와의 대화에서 경험하는 것

3. 여가활동

1) 방과 후 여가 활동

방과 이후 학업 이외에 어떤 여가 활동을 즐겨하는지 살펴본 결과, TV시청(74.1%), 음악감상(62.5%), 만화(39.2%), 낮잠(37.7%), 영화(35.7%), 인터넷서핑(35.2%), 친구와 수다(35.2%), 운동(33.8%), 거리구경(28.7%), 독서(25.4%), 쇼핑(14.0%), 종교활동(10.9%), 사진찍기(10.5%), 음주(10.1%), 놀이동산(9.2%), 십자수, 퀵트(8.7%), 미팅, 데이트(8.7%), 춤추기(7.3%), 팬클럽(4.4%), 오토바이(4.4%), 콘서트(3.1%), 연극(1.5%), 자원봉사(1.1%) 순으로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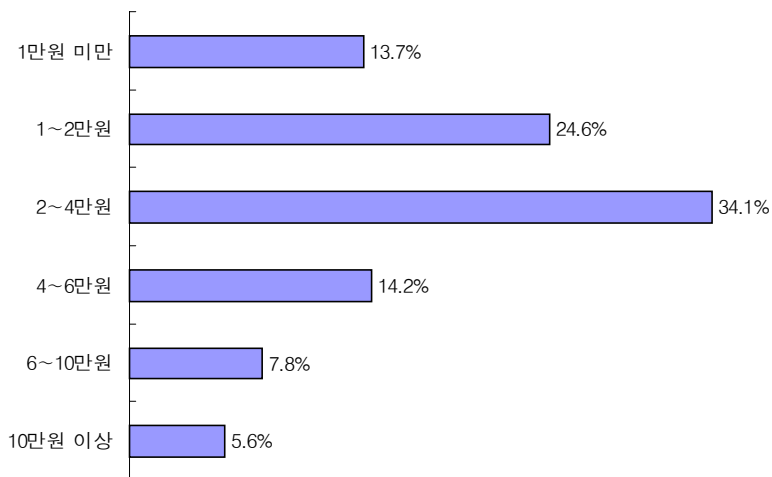
<그림 14> 방과 후 여가 활동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2) 한달 용돈 및 부족한 용돈 충당 방법

청소년의 한달 평균 용돈이 얼마인지 살펴본 결과, '2만원-4만원'(34.1%), '1만원-2만원'(24.6%), '4-6만원'(14.2%), '1만원 미만'(13.7%), '6만원-10만원'(7.8%), '10만원 이상'(5.6%)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58.7%가 한달 평균 4만원 미만의 용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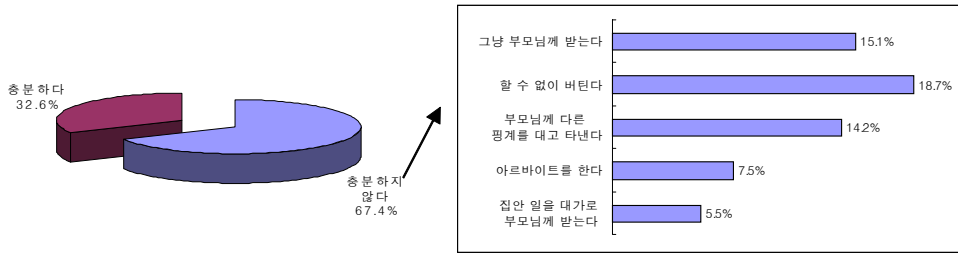
다음으로, 현재 용돈이 충분한지를 물어본 결과, 32.6%가 자기가 받는 용돈에 대해 '충분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67.4%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그림 15 참조>.



<그림 15> 청소년의 한달 평균 용돈

용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족한 용돈을 충당하는 방법을 물어본 결과, '그냥 부모님께 받는다'(53.1%), '할 수 없이 버틴다'(18.7%), '부모님께 다른 핑계를 대고 타낸다'(14.2%), '아르바이트를 한다'(7.5%), '집안 일을 대가로 부모님께 받는다'(5.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라 용돈 충당 방법을 비교한 결과,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하여 '그냥 부모님께 받는다'(여 54.2%, 남 51.8%)와 '다른 핑계를 댄다'(여 17.4%, 남 9.9%)는 반응이 높게 나온 반면에,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하여 '아르바이트를 한다'(여 6.5%, 남 9.0%)와 '할 수 없이 버틴다'(여 15.1%, 남 23.3%)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왔다<그림 16 참조>.



<그림 16> 부족한 용돈 충당 방법

3) 인터넷 사용 시간, 핸드폰/전화사용 시간, 수면시간

청소년들의 일상 생활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터넷 사용 시간, 핸드폰/전화 사용 시간, 수면 시간을 살펴본 결과, 인터넷 사용 시간은 '1-2시간'(30.5%), '3시간 이상'(21.5%), '2-3시간'(20.3%), '1시간 미만'(16.7%), '거의 하지 않는다'(1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하루 평균 핸드폰/전화 사용 시간은 '거의 하지 않는다'(48.0%), '1시간 미만'(39.3%), '1-2시간'(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종류를 살펴본 결과, '이메일'(55.2%), '자료 다운로드 및 프로그램 실행'(53.7%), '온라인 게임'(48.0%), '인터넷 서비스'(31.7%), '학습/정보 검색'(24.5%), '전자 상거래'(9.8%), '음란 사이트'(4.6%)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을 살펴본 결과, '6-7시간'(31.9%), '7-8시간'(26.1%), '5-6시간'(21.4%), '8-9시간'(9.7%)순으로 나타났다.

< 표 3 > 인터넷 사용 시간, 핸드폰/전화 사용 시간, 수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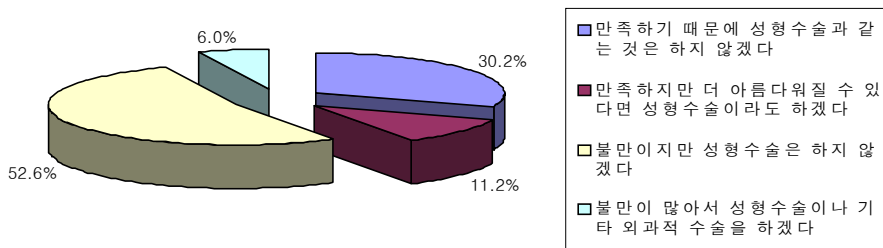
내 용		%
인터넷 사용시간	거의 하지 않는다	11.0
	1시간 미만	16.7
	1~2시간	30.5
	2~3시간	20.3
	3시간 이상	21.5
핸드폰/전화 사용시간	거의 하지 않는다	48.0
	1시간 미만	39.3
	1~2시간	7.0
	2~3시간	1.8
수면시간	5시간 이하	5.6
	5~6시간	21.4
	6~7시간	31.9
	7~8시간	26.1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4. 외모

1) 외모에 대한 주관적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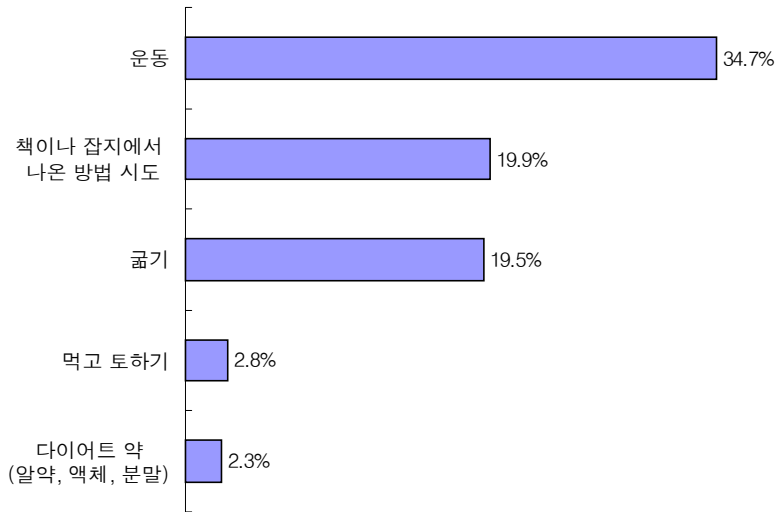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41.4%는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만 58.6%이상은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30.2%는 ‘만족하기 때문에 성형수술과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1.2%는 ‘만족하지만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성형수술이라도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52.6%는 ‘불만이지만 성형수술은 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하였으며, 6.0%는 ‘불만이 많아서 성형 수술이나 기타 외과적 수술을 하겠다’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17.2%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 여부와 상관없이 성형 수술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7 참조>.



<그림 17> 외모에 대한 주관적 판단

2)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위하여 시도해 본 방법들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운동’(34.7%), ‘책이나 잡지에서 나온 방법 시도’(19.9%), ‘굶기’(19.5%), ‘먹고 토하기’(2.8%), ‘다이어트 약(알약, 액체약, 분말)’(2.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 18 참조>.



<그림 18> 다이어트를 위하여 시도해 본 방법들

3) 이미 해 본/ 앞으로 해보고 싶은 성형수술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이미 해 본 성형 항목을 살펴본 결과, ‘치아 교정’(4.1%), ‘주근깨 제거’(3.7%), ‘코성형 수술’(3%), ‘쌍꺼풀’(1.3%), ‘키늘이기’(0.8%), ‘문신’(0.7%), ‘턱, 광대뼈 수술’(0.3%), ‘지방 흡입’(0.2%)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다음으로 앞으로 해보고 싶은 성형 수술 방법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37.9%가 ‘키늘이기’에 응답하였으며, ‘점·주근깨 제거’(31.1%), ‘치아 교정’(27.7%), ‘쌍꺼풀’(20.1%), ‘코성형 수술’(19.4%), ‘지방 흡입’(14.4%), ‘턱, 광대뼈 수술’(10.3%), ‘문신 제거’(8.1%)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4> 이미 해 본/앞으로 해보고 싶은 성형수술

항목	쌍꺼풀	코성형 수술	점, 주근깨 제거	문신	턱(광대뼈) 수술	치아(치열) 교정	지방 흡입술	키늘이기
이미 한것	1.3%	3.0%	3.7%	0.7%	0.3%	4.1%	0.2%	0.8%
하고싶은것	20.1%	19.4%	31.1%	8.1%	10.3%	27.7%	14.4%	37.9%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5. 청소년의 문제 행동

1) 음주, 흡연, 약물 복용, 음란물 접촉, 가출 충동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 중 음주, 흡연, 음란물 접촉, 가출 충동 등에 대한 빈도를 살펴본다. 먼저 음주 행동의 경우, ‘전혀 하지 않는다’(66.0%), ‘한달에 1회’(2.2%), ‘6개월에 1회’(11.2%), ‘주 1회’(6.5%), ‘주 2-3회’(3.3%), ‘매일 1회 이상’(0.8%) 순으로 나타났다.

흡연 행동의 경우, ‘전혀 하지 않는다’(86.2%), ‘매일 1회 이상’(9.3%), ‘주 2-3회’(1.8%), ‘6개월에 1회’(1.3%), ‘한달 1회’(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약물 복용의 경우 ‘전혀 하지 않는다’(99.4%), ‘매일 1회’(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 접촉 빈도의 경우, ‘전혀 하지 않는다’(76.8%), ‘한달에 한 번’(1.9%), ‘6개월에 1회’(5.7%), ‘주 1회’(5.5%), ‘주 2-3일’(3.4%), ‘매일 1회 이상’(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충동 빈도를 살펴본 결과, ‘전혀 하지 않는다’(82.1%), ‘6개월에 1회’(7.8%), ‘한달에 1회’(4.3%), ‘주 1회’(2.3%), ‘주 2-3일’(1.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충동을 느끼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가출 충동을 주로 느끼는 상황을 살펴본 결과, ‘부모님께 꾸중을 들었을 때’(38.7%), ‘가정 불화가 심할 때’(29.7%), ‘별다른 이유 없이 답답할 때’(24.8%), ‘성적이 떨어질 때’(5.5%), ‘친구들이 집을 나가고자 할 때’(1.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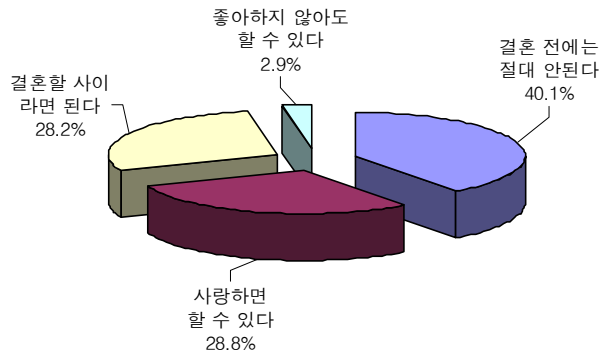
2) 성 관련 비행 행동

청소년들의 성 관련 비행 행동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23.8%가 ‘키스 등과 같은 신체 접촉’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성관계 3.9%, 임신 0.7%, 낙태 혹은 출산 0.7%, 사창가 출입 0.8%, 성매매 0.7%, 동성애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첫 성관계 시기를 살펴본 결과, ‘고 1’(26.1%), ‘중 3’(22.6%), ‘중 2’(17.8%), ‘초등학교 이전’(14.2%), ‘중 1’(14.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3) 혼전 성관계에 대한 견해

청소년들에게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결혼 전에는 절대로 안된다(40.1%)', '사랑하면 할 수 있다(28.8%)', '결혼할 사이라면 된다(28.2%)', '좋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2.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 19 참조>.

성별에 따라 혼전 성관계에 대한 견해를 비교해보면,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하여 '절대로 안된다(여 54.1%, 남 24.1%)'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에, 남학생들은 '결혼할 사이라면 된다(여 23.8%, 남 32.9%)', '사랑하면 할 수 있다(여 20.3%, 남 38.7%)', '좋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여 1.8%, 남 4.2%)'에서 높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혼전 성관계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12 참조>.



<그림 19> 혼전 성관계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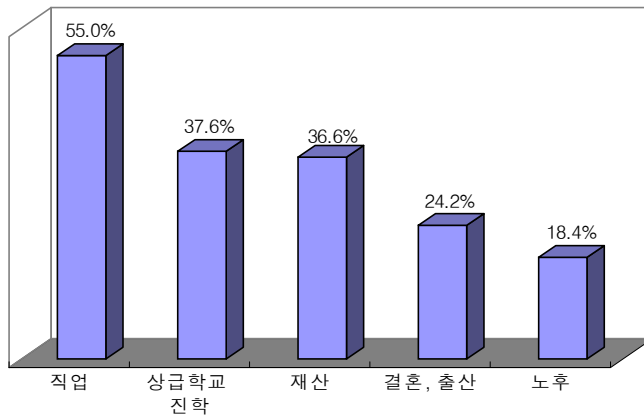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6. 진로 및 장래

1) 미래에 대한 계획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계획 여부를 살펴본 결과,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본 영역은 직업(55.0%), 상급학교 진학(37.6%), 재산(차, 집, 여가 등)(36.6%), 결혼, 출산(24.2%), 노후(18.4%)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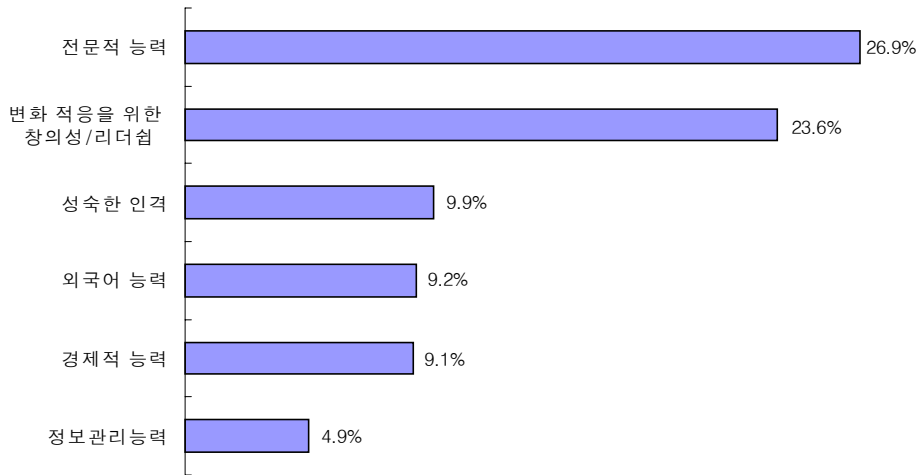
성별에 따라 미래에 대한 계획 여부를 비교해보면, 여학생들은 상급학교 진학, 직업 영역에서, 그리고 남학생들은 결혼 및 출산, 재산, 노후 영역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더 많이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13 참조>.



<그림 20> 미래에 대한 계획

2) 미래 사회에서 중요시될 사람의 능력

미래 사회에서 중요시될 사람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전문적 능력’(26.9%), ‘변화 적응을 위한 창의성/리더십’(23.6%), ‘성숙한 인격’(9.9%), ‘외국어 능력’(9.2%), ‘경제적 능력’(9.1%), ‘정보관리능력’(4.9%)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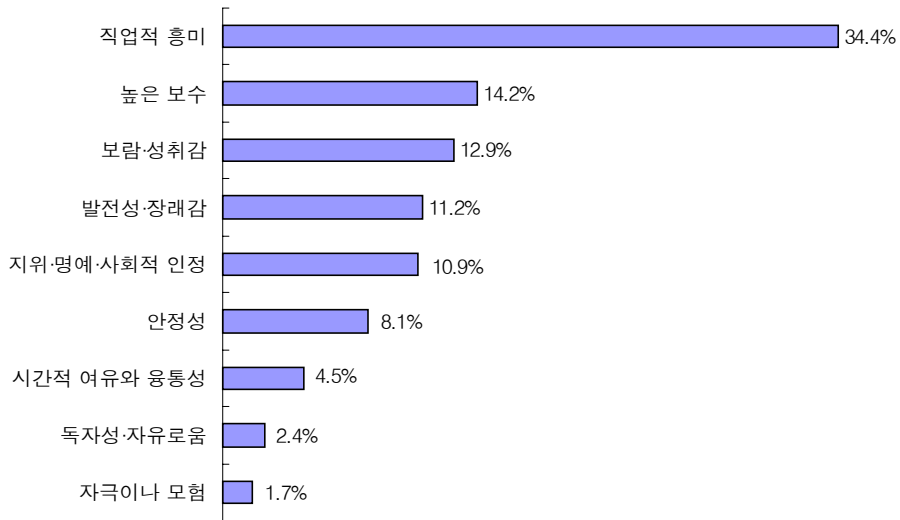
<그림 21> 미래 사회에서 중요시될 사람의 능력

3) 직업 선택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직업적 흥미’(34.4%), ‘높은 보수’(14.2%), ‘보람·성취감’(12.9%), ‘발전성·장래감’(11.2%), ‘지위·명예·사회적 인정’(10.9%), ‘안정성’(8.1%), ‘시간적 여유와 융통성’(4.5%), ‘독자성·자유로움’(2.4%), ‘자극이나 모험’(1.7%)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2 참조>

성별에 따라 직업 선택에서 고려하는 것을 비교해 본 결과,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하여 ‘직업적 흥미(여 37.2%, 남 31.7%)’, ‘지위, 명예(여 12.7%, 남 9.5%)’, ‘독자성(여 52.2%, 남 46.4%)’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하여 ‘높은 보수(여 12.2%, 남 15.9%)’, ‘보람, 성취감(여 11.7%, 남 13.9%)’, ‘자극이나 모험(여 3.7%, 남 5.2%)’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15 참조>.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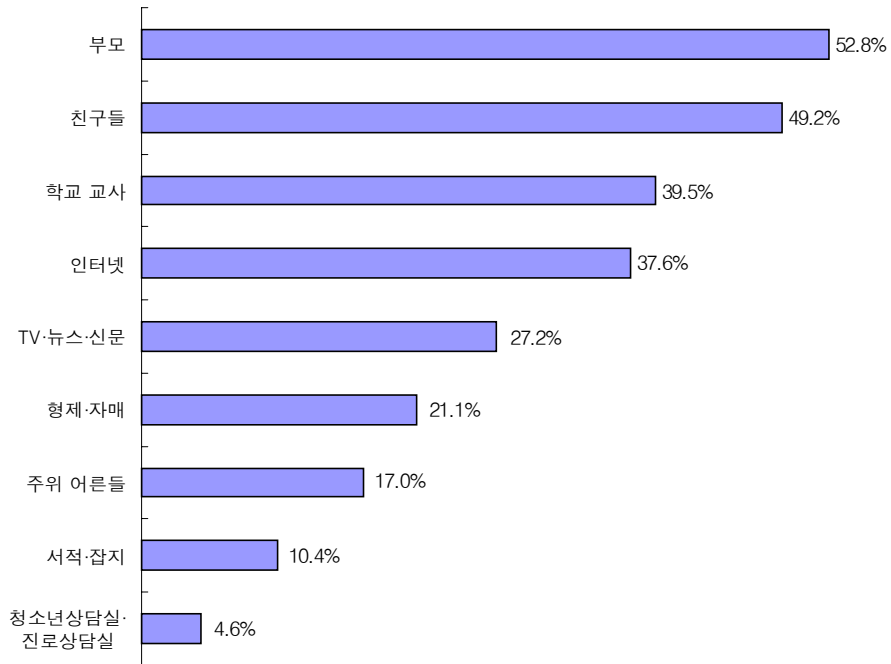


<그림 22> 직업 선택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4) 진로 관련 정보원

진로 결정과 진로 계획시 중요한 정보를 누구(무엇)를 통해 얻거나 도움을 받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52.8%), ‘친구들’(49.2%), ‘학교 교사’(39.5%), ‘인터넷’(37.6%), ‘TV·뉴스·신문’(27.2%), ‘형제·자매’(21.1%), ‘주위 어른들’(17.0%), ‘서적·잡지’(10.4%), ‘청소년상담실·진로상담실’(4.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 23 참조>.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하여 ‘부모’(여 52.2%, 남 46.4%), ‘친구들’(여 53.1%, 남 44.7%), ‘서적, 잡지’(여 12.0%, 남 8.4%)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으며,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서 ‘학교 교사’(여 35.1%, 남 44.2%), ‘주위 어른들’(여 15.8%, 남 18.6%), ‘형제 자매’(여 19.4%, 남 22.6%), ‘TV, 뉴스, 잡지’(여 26.4%, 남 28.0%)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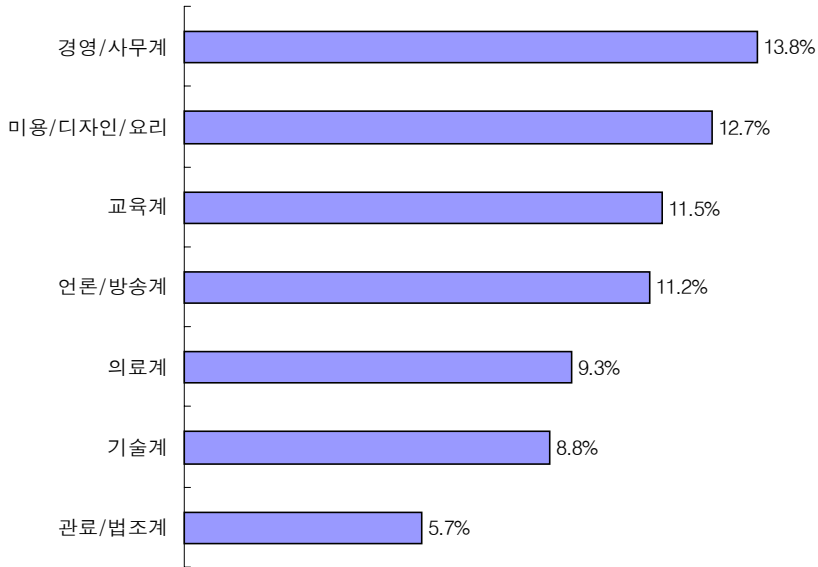
<그림 23> 진로관련 정보원

5) 미래에 종사하고 싶은 영역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종사하고 싶은 영역을 살펴본 결과, ‘경영/사무계’(13.8%), ‘미용/디자인/요리’(12.7%), ‘교육계’(11.5%), ‘언론/방송계’(11.2%), ‘의료계’(9.3%), ‘기술계’(8.8%), ‘관료/법조계’(5.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 24 참조>.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하여 교육계(여 14.8%, 남 7.8%), ‘미용/디자인/요리’(여 19.6%, 남 4.2%), ‘의료계’(여 12.8%, 남 5.0%) 분야에 종사하기를 원했으며,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서 ‘관료/법조계’(여 3.9%, 남 8.5%), ‘기술계’(여 1.2%, 남 17.4%), ‘과학/연구계’(여 1.6%, 남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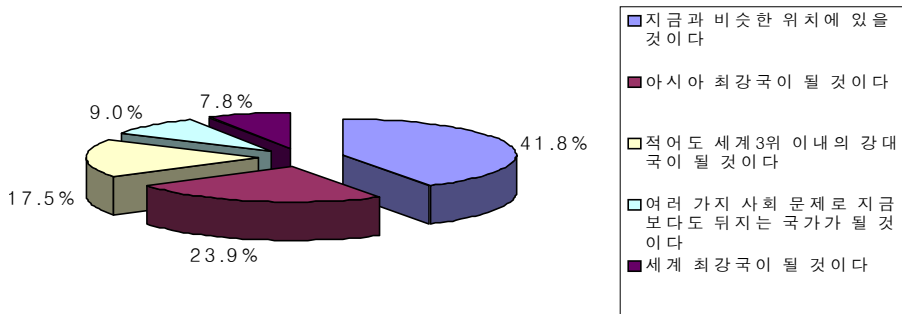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림 24> 미래에 종사하고 싶은 영역

6) 미래 한국의 지위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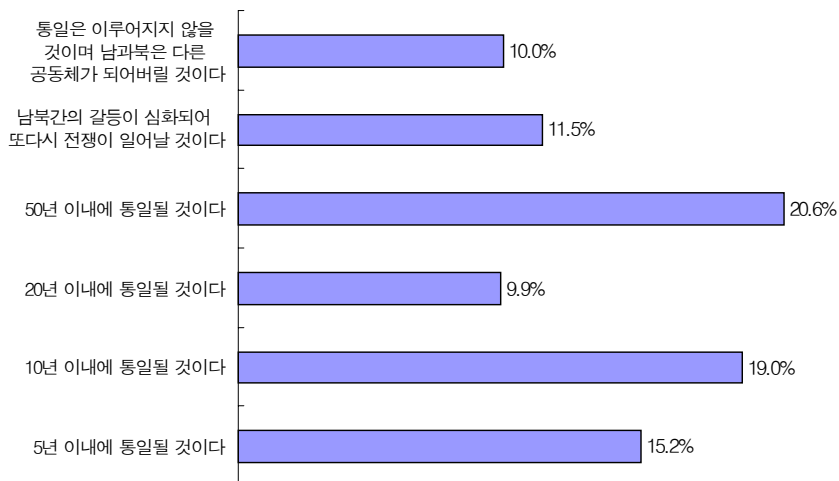
미래 한국의 국제 사회 지위가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지금과 비슷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41.8%), ‘아시아 최강국이 될 것이다’(23.9%), ‘적어도 세계 3위 이내의 강대국이 될 것이다’(17.5%),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지금보다도 뒤지는 국가가 될 것이다’(9.0%),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다’(7.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 25 참조>.



<그림 25> 미래 한국의 지위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

7) 미래 남북 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

미래 남북 관계는 어떠한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살펴본 결과, '50년 이내에 통일될 것이다'(20.6%), '5년 이내에 통일될 것이다'(15.2%), '10년 내 통일될 것이다'(19.0%), '남북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11.5%),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남과 북은 다른 공동체가 되어버릴 것이다'(10.0%), '2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다'(9.9%)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 26 참조>.



<그림 26> 미래 남북 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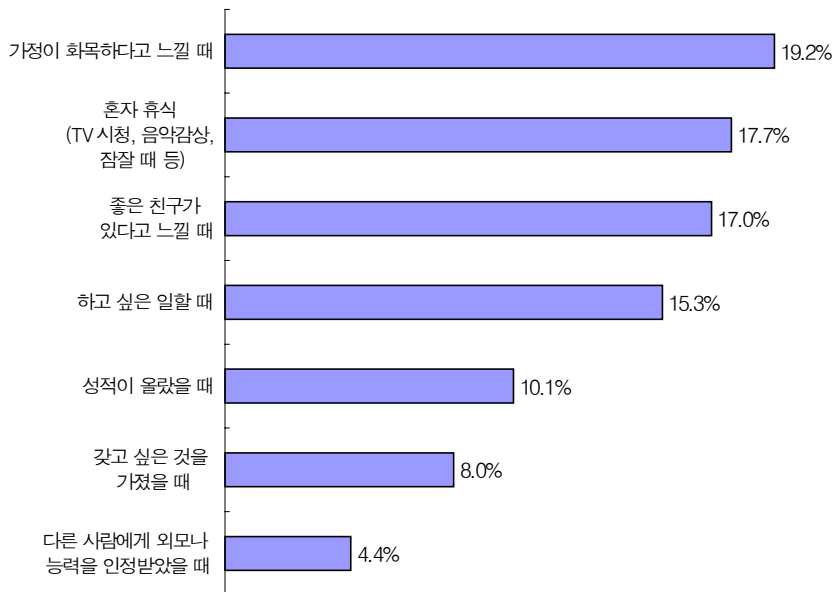
8) 행복지수

청소년들에게 요즘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살펴본 결과, ‘가끔 그렇다’ 51.9%, ‘자주 그렇다’ 23.1%, ‘항상 그렇다’ 9.9%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전체 응답자의 84.9%가 행복하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당신의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리라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77.4%는 ‘지금보다 고등학교 이후에 더욱 행복해 질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22.6%는 ‘지금보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행복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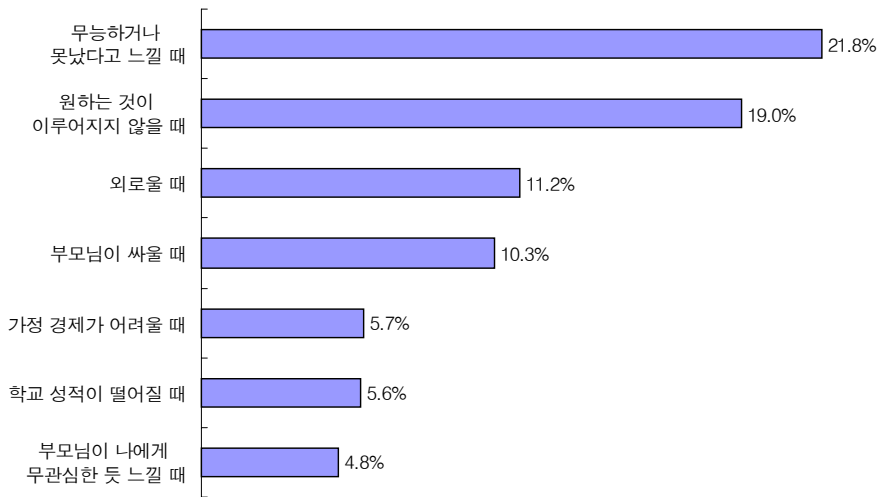
9) 행복감/불행감을 느끼는 경우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상황을 살펴본 결과, ‘가정이 화목하다고 느낄 때’(19.2%), ‘혼자 휴식(TV 시청, 음악 감상, 잠잘 때 등)’(17.7%), ‘좋은 친구가 있다고 느낄 때’(17.0%), ‘하고 싶은 일할 때’(15.3%), ‘성적이 올랐을 때’(10.1%), ‘갖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8.0%), ‘다른 사람에게 외모나 능력을 인정받았을 때’(4.4%)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 27 참조>.



<그림 27>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

한편,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상황을 살펴본 결과, ‘무능하거나 못났다고 느낄 때’(21.8%),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19.0%), ‘외로울 때’(11.2%), ‘부모님이 싸울 때’(10.3%), ‘가정 경제가 어려울 때’(5.7%), ‘학교 성적이 떨어질 때’(5.6%), ‘부모님이 심하게 야단칠 때’(4.8%), ‘부모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듯 느낄 때’(3.8%)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 2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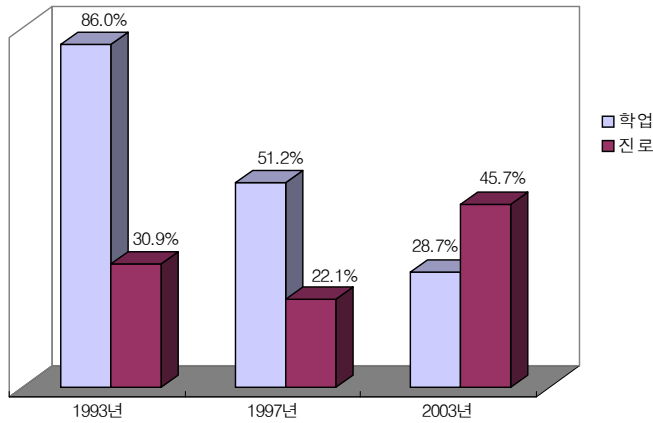
<그림 28> 불행감을 느끼는 경우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IV. 본 조사와 이전 조사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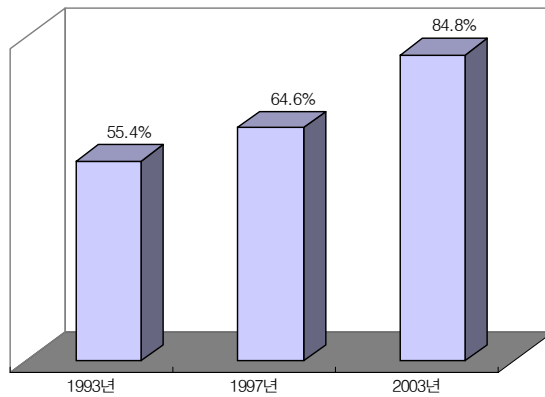
과거 10년간 우리 청소년들의 대체적인 변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조사 연구의 결과와 과거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수행되었던 여러 연구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이러한 비교의 과정에서 과거의 청소년들과 현재의 청소년들 사이의 눈에 띄는 만큼 큰 상이점을 찾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몇몇 영역에서는 작은 변화라도 그것을 통해 대체적인 변화 경향을 추측하게 해주는 차이점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 장에서는 과거 청소년들과 현재 청소년들 사이의 그러한 특징적인 차이를 제시하려 한다.

첫째, 청소년의 고민에 대한 영역에서 그 변화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1993년과 1997년에 수행되었던 연구 결과를 검토해 보았다. 청소년들이 많이 고민하는 영역으로는 1993년과 1997년 청소년들 모두 학업에 관련한 사항(성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진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대체적인 해석은 이 시기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경우 진학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학업에 관련한 고민 사항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진로란 학업 성적에 기반을 둔 진학이 그 주된 의미였으며, 학업 성적과 진로는 잘 구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듯하다. 그러나 2003년의 조사에서는 진로 갈등, 진로 결정의 어려움, 진로 정보 부족 등과 같은 진로에 대한 고민 (45.7%)이 학업과 관련한 고민 (28.7%)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상급 학교 진학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33.8%만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다고 응답했던 반면, 직업 선택과 관련한 진로에 대해서는 55.2%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다고 응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9 참조>. 이 같은 결과는 현재의 청소년들이 학교 진학과 관련한 고민과 자신의 미래 직업과 관련한 진로를 구분하여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예전과는 달리 상급 학교 진학에 국한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림 29> 연도별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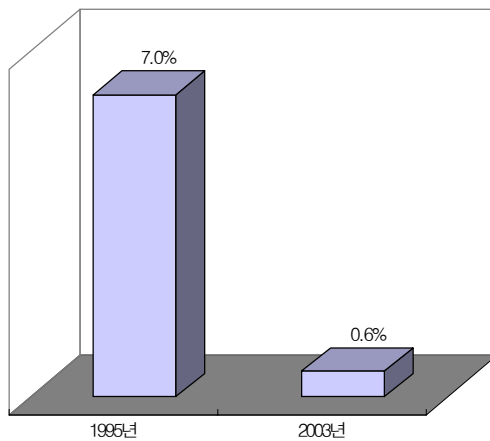
둘째, 청소년들이 현재의 삶에서 얼마나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행복도에 관한 1993년과 1997년 연구 결과를 현재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이 결과들을 살펴보면, 최근 일주일내에 적어도 한번쯤 행복감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993년에는 55.4%, 1997년에는 64.6%, 그리고 2003년에는 84.8%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더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의 미래 행복도에 있어서도, 1997년의 청소년들 62.7%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반면 2003년의 청소년들 77.3%가 긍정적 반응을 보여, 현재의 청소년들이 미래 자신의 삶에 더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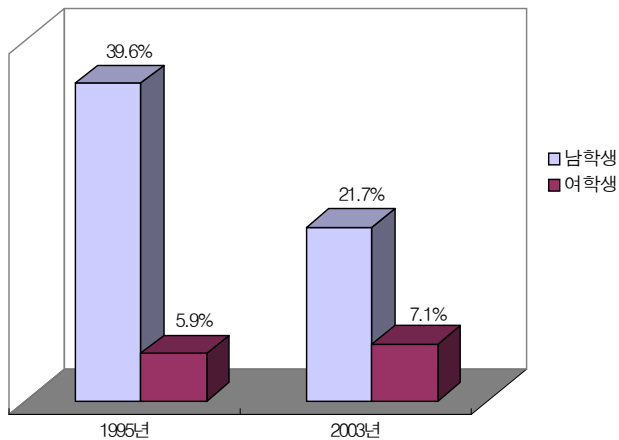
<그림 30> 행복감 경험 유무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셋째, 청소년들의 술, 담배, 약물의 사용 실태에 관한 1995년의 결과와 2003년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이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본드나 가스 등의 환각제 사용은 1995년 7%에서 2003년 0.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는 1995년 남학생의 경우 39.6%가 흡연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 데, 2003년에는 21.7%로 감소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1995년 5.9%에서 2003년 7.1%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술은 1995년에 31.7%의 청소년들이 가끔이라도 음주를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2003년에는 34%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 3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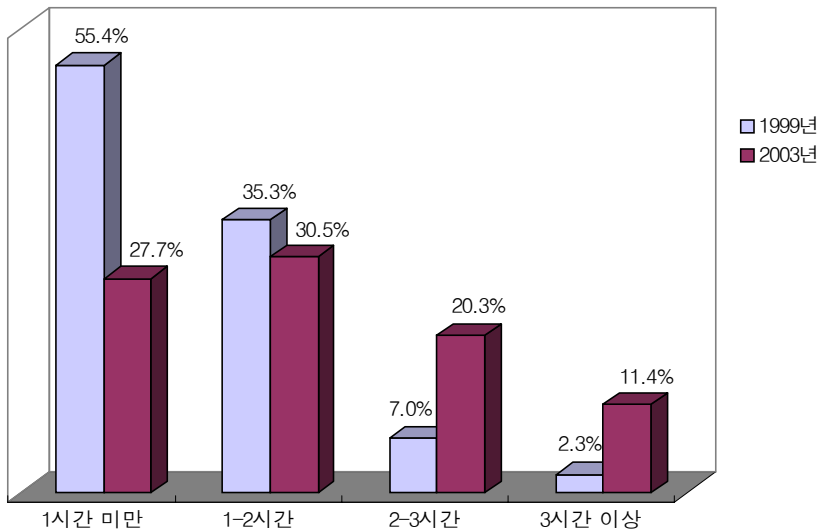


<그림 31> 환각제 사용 여부



<그림 32> 흡연 여부

넷째,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실태에 관한 1999년의 결과와 2003년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이 결과들에 의하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에 있어 1999년의 경우 전체의 90.7%가 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2시간 이상인 경우는 9.3%에 불과하였다. 반면, 2003년에 있어서는 2시간 미만이 58.2%, 그리고 2시간 이상인 경우는 31.7%로 나타나 최근 4년 내에 인터넷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정도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3 참조>. 인터넷의 이용 내역에 있어서는 1999년과 2003년 사이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의 경우, 대화방 및 토론방, 게임, 대화방 및 게임, 정보검색, 동호회, 전자메일 등의 순서로 이용도가 높았던 반면, 2003년에는 전자 메일, 게임, 대화방, 동호회, 정보검색, 전자상거래, 음란사이트 접속 등의 순서로 그 이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중 대화방 및 토론방의 이용율이 줄고 게임의 이용율이 늘어난 것은 주목해 볼 만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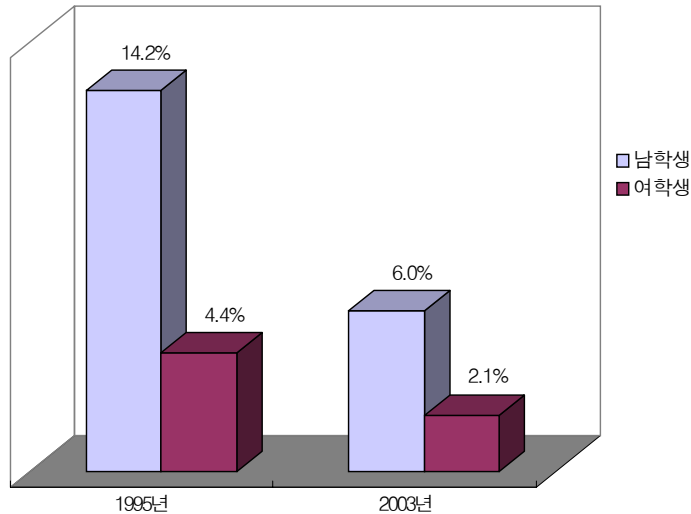


<그림 33> 일일 인터넷 사용시간

다섯째, 청소년들의 성관련 실태에 관한 1995년의 결과와 2003년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이 결과들을 살펴보면, 1995년의 경우 남학생의 14.2%가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2003년에는 6%만이 성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하여 성경험 비율이 감소한 것으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1993년에는 4.4%가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003년에는 2.1%만이 성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하여 그 비율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스 등의 신체적 접촉에 있어서는 남학생의 경우 변화가 없었던 (약 28%)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11.9%에서 2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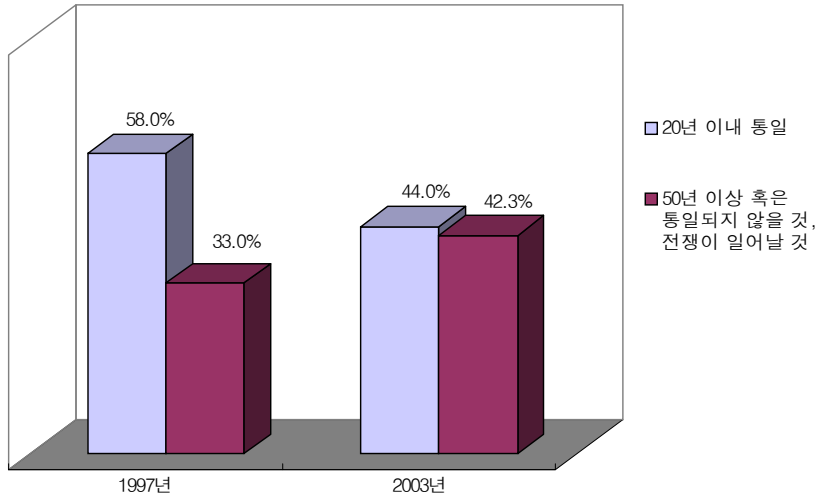


<그림 34> 성경험 여부

여섯째, 청소년들이 미래에 선택하고 싶은 직업군에 대한 1997년의 결과와 2003년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이 결과들을 살펴보면, 1997년의 경우, 교사나 대학교수 등의 직업이 청소년들 가운데 가장 선호되는 직업이었고, 그 다음으로 회사 임직원이나 전문경영인 등이었다. 2003년에는 회사 임직원이나 전문경영인 등이 가장 선호되는 직업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미용/디자인/요리 등의 서비스계, 교육계, 언론/방송계 (기자, 아나운서, 연예인 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서비스계와 언론/방송계의 선호도 증가와 더불어 과학/연구계 (2.4%)의 낮은 선호도는 주목해 볼만하다.

일곱째, 청소년들이 미래 남북한의 관계를 어떻게 예견하고 있는지에 대한 1993년 및 1997년의 결과와 2003년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1993년의 경우 전체의 약 70% 정도가 20년 이내에 통일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고, 1997년에는 약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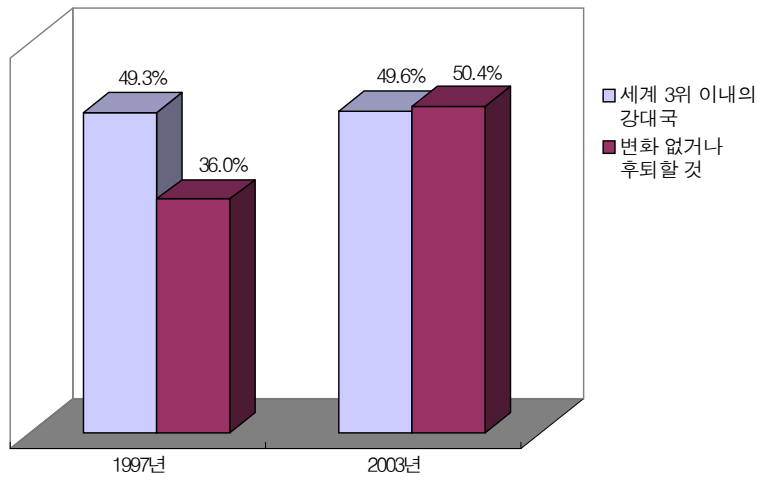
정도, 그리고 2003년에는 44%만이 20년 이내에 통일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이와 더불어, 1997년의 경우 통일이 50년 이상 걸리거나 통일되지 않을 것 혹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견해가 33%이던 것이 2003년에는 42.3%로 증가하였다<그림 35 참조>.



<그림 35> 통일에 대한 전망

여덟째, 청소년이 미래 한국의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를 어떻게 예견하고 있는 지에 대한 1993년 및 1997년의 결과와 2003년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 3위 이내의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는 1993년 이후에는 줄어들어서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 반면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후퇴할 것이라는 비관적 견해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3년에는 전체의 57.2%가 우리나라가 세계 3위 이내의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응답을 하였고, 이 중 47% 정도가 30년 이내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1997년에는 49.3%가 세계 3위 이내의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응답을 하였고, 2003년에도 49.6%가 그러한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화가 없거나 혹은 후퇴할 것이라는 응답은 1997년의 36%에서 2003년의 50.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6 참조>.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림 36> 한국의 미래 국제사회 지위

V. 요약 및 결론

이상 여덟 가지의 측면에서 과거 10년간 각종 설문 조사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특징을 비교해 보았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의 청소년들은 과거의 청소년들보다 개인적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더욱 행복해 하고 더불어 자신의 미래 삶에 대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관심사는 바로 눈앞의 성적과 상급 학교 진학에 국한되지 않으며, 자신의 현재 처지에서 자신이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소년들은 회사 임직원 및 전문 경영인을 포함하는 사무직을 미래 직업으로 가장 선호하며, 미용/디자인/요리 등의 서서비스 업종도 최근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학/연구계 계통의 직업은 가장 인기가 없는 것으로 여전히 이공계 기피현상이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의 청소년들은 최근 급속히 발전한 인터넷 관련 기술과 이의 보급으로 사이버 세계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하는 경향을 과거에 비해 더 많이 보인다. 이들은 예전과 달리 사이버 세계에서 토론방이라는 직접적인 의사소통 방식보다는 게임이라는 활동을 통한 상호 교류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최근의 인터넷 게임들이 혼자 즐길 수 있는 것보다는 인터넷에 접속한 여러 명의 개인들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청소년들의 본드나 가스 등과 같은 환각제 사용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의 흡연 및 성경험 비율은 과거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의 흡연 및 성경험 비율은 과거와 큰 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 키스나 애무 등의 경험은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유명 코메디언의 사망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금연 바람과 성에 관한 논의의 개방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청소년들이 개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보다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반면 미래 남북 관계나 미래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지위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인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즉, 반에 가까운 조사 대상 청소년들이 남북 통일이 50년 이상 지연되거나 전쟁 혹은 아예 각기 다른 공동체로 발전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반면, 나머지 반만이 가까운 시기에 통일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한편, 미래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지위에 대하여도 반수 이상의 조사 대상 청소년들이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후퇴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개인 삶의 영역과 국가에 대한 전망이 서로 불일치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최근 북한의 핵문제, 이라크 전쟁, 그리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등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공동체에 대한 전망이 점차 부정적으로 변화해가는 가운데서도 개인의 삶에 대한 조망이 더욱 더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번영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과거 세대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개인과 사회의 공동운명체적 관점에서 점차 탈피해 가는 것이며, 그 만큼 개인주의적 가치가 더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용이해진 이 때에 청소년들의 현실 인식이 국가나 사회에 대해 그만큼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들의 견해가 무반성적인 낙관론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기성 세대의 시각 변화가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영역별 주제발표 I

사회 · 문화의 변화와 청소년

이 광 호(경기대 청소년학과 교수)

지난 10년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청소년

- 청소년 존재혁신과 사회적 대응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

이 광 호(경기대 교수)

1. 문제 제기와 이론적 인식

사회·문화적 변화와 관계없이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사회적 세대로서나 집단으로서 청소년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10년의 사회문화 변화 속에서 청소년의 삶과 고민은 무엇이며, 지금 청소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청소년은 누구인가 하는 이해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청소년 존재에 대한 이해는 이미 P. Aries가 간파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청소년을 어떻게 보고, 처우하며 대응하고 있는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참조: 廣田照幸, 1998).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청소년이 아동과 성인 사이에 위치하는 인생의 한 특정 단계로 성립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즉, 청소년기는 어느 시대나 사회에서나 아동기를 거쳐 필연적으로 도래하는 시기가 아니라, 근대 사회의 형성과 함께 나타난 사회적·역사적 산물(참조: Gillis, 1981)이다. 18세기 중반이후 계몽주의자들의 등장과 함께 종래의 어린 아이의 관점에 대해 비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청소년 기간(youth land)’은 “돌보아지며 일할 필요가 없고 비도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가르쳐야 하는 기간(pedagogical province)’”으로 탄생한 것(참조: 遠藤由美, 2000)이다. 이러한 청소년 탄생의 사회적·역사적 배경은 바로 현재 청소년 존재의 의미를 규정해 주고 있다.

근대사회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존재 의미는 2 가지 세대적 특혜와, 그 특혜에 대한 2 가지 대가(세대적 약속)로 집약할 수 있다. 우선 청소년은 성인으로 이행해 가는 기간으로서 생산적 노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유예[일을 하며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일로부터의 분리), 사회적 의무와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청소년(고전적 모라토리엄)] 받는 일종의 세대적 특혜를 받는 존재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 청소년은 일종의 세대적 특혜를 누리는 대신 어른이 되어서 해도 늦지 않은 일부 행동(흡연, 음주, 연애 등)을 자제하고, 어른들의 말과 지도에 잘 따라 달라는 세대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약속은 궁극적으로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이익이 된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 세대는 세대적 특혜와 약속과 함께 '기성세대가 나이 들면 그들을 부양'해야 하는 일종의 세대간의 사회적 계약도 함께 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 존재이유 내지는 사회적 의미의 바탕에는 다음과 같은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다. 청소년은 아직 사회심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한 인간으로서 무언가 부족하고 불안정하며, 자칫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적 감정을 지닌 약하고 일탈하기 쉬운 존재이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해 장래에 수행해야 할 사회적 역할과 기량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등으로 부족을 보완해주려는 교수적(pedagogical) 처방 및 억제하지 못하고 넘칠 위험이 있는 것을 규제·보호 차원에서 예방·치료·교정하는 등 개입 위주의 사회적 대응방식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한국사회의 청소년도 이 땅의 근대사회 여명과 더불어 탄생한 사회적 존재이다. 1908년 육당 최남선이 만든 '소년' 잡지의 권두언에서처럼 "우리 대한으로 하여금 소년의 나라로 하라. 그리하라 하면 능히 이 책임을 감당하도록 그를 교도하라"는 시대적 의미를 가진 존재로 태어났던 것이다. 그 이후 1980년대까지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은 세계 어느 국가의 10대들에 비해 비교적 자신들의 '존재이유와 의미'를 잘 지켜왔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10대들이 어떤 문제나 고민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대개 현재 공부와 장래 진로문제로 가장 고민하고 있는 조사결과들을 보면서, 아직은 10대들이 자신의 존재이유와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안도하기도 한다. 또 때로는 10대들이 이성교제나 성 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들이 얼마나 사회의 각종 유해한 환경이나 여건으로부터 철저히 희생되고 있는지를 부각시키며, 10대들이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 존재인가를 확인하기도 한다. 즉, 우리 10대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세대 특혜를 누리며 세대간의 약속과 계약을 잘 이행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고민에 시달리지만, 그 정도는 성장을 위한 거쳐야 할 진

통 정도로 간주한다. 아니면 10대들은 ‘혼탁한 사회의 어린 희생자들’(한겨레신문, 1990. 11.29 사설)과 같은 표현 등으로 「사회의 희생자(youth as victims)」들이거나 혹은 ‘무서운 10대에 무책임가’(경향신문, 1990.4.10 사설) 하는 등의 「문제로서의 청소년(youth as problem)」으로 사회적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1990년대 이후 우리가 확인해왔던 청소년 존재 이미지와 사회적 의미는 급격하게 초점을 잃어 가고 있다. 1990년대 ‘난 알아요’로 화려하게 나타난 서태지의 등장과 함께 불어닥친 신세대 논의를 시작으로, 우리의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존재의미와 사회적 이미지는 성수대교(1994년)와 삼풍백화점(1995년)의 붕괴와 더불어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X세대, N세대, R세대, W세대...’, 그리고 썬계족, 리셋족, 쿼터족 ... 등에 이르기까지 범람하는 ‘어떤어떤 세대’ 내지는 ‘무슨무슨 족’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기존의 청소년 존재 이미지를 상실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식은 새로운 세대가 보여주는 ‘사회적 편입과 저항의 교차점’ 만큼이나 양극단으로 분열된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시대에 어울려 가는 10대들의 유연성과 감각을 보면서 그들의 잠재적 가능성과 희망을 읽고 청소년의 권리·참여와 선택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이야기한다. 다른 한편으로 10대들의 정떨어지는 개인주의적 사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기 어려울 것 같은 독단과 성실성의 붕괴 조짐 등을 보면서 도덕적 규범의 와해를 염려하고 시급한 대책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청소년을 보는 시각과 대응의 스펙트럼은 크게 확장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 2001년도 10월에 유엔아동기금(UNICEF)이 그 해 초에 일본을 제외한 한국, 중국, 호주 등 아·태 지역 17개국 만 9~17세 청소년 1만여 명(한국 500명 조사)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결과, 우리 청소년들의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한국사회는 10대들에 대해 경악의 수준을 넘어 ‘충격과 공포(?)’를 겪은 적도 있다. 학교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응답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였고, 돈의 중요성(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을 부정하는 답변이 많고, 부모의 삶보다 미래의 삶이 더 나을 것(88%)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질 것(75%)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과연 10대들의 생각과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고 의아해 하였다. 최근 청소년들이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는 말이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옳은가, 어른 말에 무조건 순종하겠는가 하는 물음에 매우 저조한 동조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¹⁾하고는 이제 청소년에 대한 존재 이미지와 사회적 기대는 거의 체념 경지에 들어가 있는 듯하다.

한편 2002년에 접어들어 ‘월드컵 길거리 응원’,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표출되었던 젊은이들의 참여와 변화 열정 등을 보면서 한국사회는 다시 한번 10대들에 대해 무엇을 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에서는 10대들이 어떤 잠재적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인식하고, 이제 그 잠재적 에너지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외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젊은 세대의 집단적인 힘의 표출에 당황해하며 그들의 편협한 세상 읽기에 도덕적 끝을 보는 듯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대’가 지연, 학연과 함께 주요한 사회적 힘의 한 원천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10대 청소년 존재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대응방식은 이제 새로운 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사회가 10대 존재와 사회적 처우에 대한 초점과 방향을 잃고 ‘우리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고 묻고 있는 사이에, 10대의 또 다른 우상 ‘god’는 ‘길’을 통해 그 물음에 확실한 답을 내려주고 있는 것 같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 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1) 연세대 발달심리연구실에서 ‘한국사회의 세대집단과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는 말이 옳다는 물음에 세대별로 50대 62%, 40대 58%, 30대 49%, 20대 44%로 나타났으며, ‘어른 말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반응은 50대 43%, 40대 26%, 30대 21%, 20대 12% 등으로 조사되었다(조선일보 2003.1.15). 이 조사에서 10대는 조사대상이 아니었지만, 세대별 반응결과의 추이로 미루어 10대의 응답 경향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

오~ 지금 내가 어디로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 꿈은 누구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나는 웃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한국사회 어른들과 학교를 비롯한 청소년관련 교육기관들이 모두 나서 10대들에게 ‘자신의 길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자신의 꿈은 이루어진다’고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게 가르쳐 왔건만, 그 가르침에 대해 10대들은 일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진로지도나 상담을 통해 그렇게도 앞길에 대한 인식, 탐색과 준비를 강조해왔건만, 10대들은 그런 미래 전망과 교육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품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1990년대 들어 10대들의 생활양태, 존재 이미지와 사회적 대응 방식 등에서 과거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1990년대에 시작된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대응방식 혼란의 근본 이유를 사회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청소년 존재 이유와 이미지의 변화에서 찾고자 한다. 그것은 곧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존재 혁신’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그들의 사회적 존재의미 변화를 읽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 글은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처우의 등장과 혼란을 청소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존재 혁신’과 사회적 대응방식의 변화라는 시각에서 분석·이해하고자 한다.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II. 10년의 시간 속에서 청소년의 존재 변화와 혁신

1. 1990년대 사회문화적 변화의 특성

해방 이후 한국사회는 선진사회에서 이루어 왔던 공업화, 도시화, 대량소비화 등을 불과 50여년의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경험하며, 또 다시 지식정보화라는 새로운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독특한 역사적 경험은 청소년 존재의 의미와 사회적 대응방식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1950~60년대 한국사회에는 먹고살아야 하는 기본적인 생존욕구의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었다. 모든 것이 먹고살아야 하는 욕구의 지배를 받는 찌들음에 있는 사회에서 10대들에 대한 특별한 사회적 이해나 처우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단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10대들에게 가난을 극복하는 사회적 출세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학교교육만이 유일한 만병통치약이라는 신화를 키워주었다. 그 결과 1970~80년대 한국사회는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눈부신 성과와 희망을 찾았다. 소위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던 시기이었다. 그리고 물질적 풍요의 그림자로 산업사회의 계층적 갈등이 심화되는 한편 청소년 집단이 야기하는 문제행동 등 비사회적 행태에 주목을 기울일만한 여유도 갖게 되었다. 일부 젊은 세대가 펼쳐는 통기타나 장발 등 독특한 문화나 행동양태에 대해서는 저항성보다는 젊은 시절에 가질 수 있는 허용할만한 낭만 정도로 수용할 수 있었다. 단지 청소년의 폭력이나 패륜적 범죄 등 점차 집단화, 흉포화 및 저연령화되어 가는 경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우려를 점차 크게 가지면서도, 학교교육과 일부 청소년 보호·교정기관의 보완적 노력으로 감내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제도적 신념은 변치 않았다. 또한 대다수 우리 10대들이 보여주는 범생이적 모습과 순종적 태도에 위안을 삼으며, 청소년 문제예방과 해결의 핵심 만병통치약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제도적 신뢰와 10대 존재 자체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이미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한국사회는 그간의 물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문화적으로 요동치기 시작하였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등 민간 민선정부의 등장으로 권위적 통제보다는 자율성 인정과 사회집단간의 역학 재편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비록 IMF

등 경제적 위기를 겪긴 하였지만, 대중소비사회의 모습은 더욱 확산·심화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이전에 듣고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10대들의 모습과 생각을 만나게 된 것이다. 서태지의 화려한 등장과 신세대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논의의 범람, 아울러 10대들의 폭력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의 급격한 증대는 물론 아버지를 살해하는 등의 패륜적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청소년 범죄나 문제행동도 표출되고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해결의 만병통치약으로 사회적 신뢰를 받아 왔던 학교에서마저 폭력과 왕따가 확산되고 급기야는 교실붕괴와 같은 교원과 학생간의 기존 규범과 위계적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사태를 겪어야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1990년대 초반 시작된 신세대 논쟁은 이제 N세대와 R세대 혹은 W세대로 대체되어 버렸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와 세대를 넘나드는 채팅 열풍으로 10대에게 위협한 놀이터가 되어버린 사이버공간 등 일련의 사회문화 현상이 지난 10년 간을 관통하였다. 대도시 공간은 위락 또는 향락산업 급성장, 젊은 세대의 광장문화 등장, 대중문화와 소비산업 확산 등이 어우러져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새로운 젊은 세대의 일상 문화 공간을 생산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의 바탕에는 디지털에 의한 지식사회의 전면화라는 정보혁명이 자리잡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지식정보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성공적인 것이었다. 전체 가구의 70%에 달하는 1,000만 이상의 가구가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전세계가 주목하는 정보대국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1,200만여 명 이상의 국민이 정보화교육을 받아 인터넷 이용자가 수가 2,600만여 명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국의 1만여 곳이 넘는 전국의 학교가 인터넷으로 접속·연결되어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 하루 방문자가 수백만여명에 달하는 커뮤니티 포털도 운영되고 있으며, 전자투표와 원격진료는 물론 사이버 대학과 원격교육도 확산되고 있다. 이제 선진 외국에 나가서 오히려 이메일이나 인터넷 접속의 어려움을 호소해야 할 지경에 이른지 오래다. 이러한 인터넷의 확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 편한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문화적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사회 곳곳에 급속히 침투하며 ‘㉡ 험한 세상’을 동시에 만들어 가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10대들의 새로운 사회적 파워집단으로의 등장도 바로 이러한 인터넷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 같다.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2. 1990년대 청소년 존재 이미지와 사회적 의미 변화

경제적 풍요를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시대의 도래와 함께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각종 사회문화적 변화들은 근래 10대들의 사회적 이미지의 급격한 해체·재구성과 무관하지는 않다. 특히 최근 10대들의 존재와 사회적 의미 변화와 관련하여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적어도 지난 10년간 10대들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길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사회적으로 힘을 가져가는 세대로서 청소년(넘쳐나는 권력) 둘째, 디지털의 확산에 따라 직접적인 체험 기회를 잃어 가는 10대들(모자라는 체험) 셋째, 과거와 달리 공부, 일, 여가(놀이)를 함께 해야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요구받는 10대들(쉬어야 하는 생활양식: 생활양식의 전환) 등이다.

1) 넘쳐나는 권력 : 사회적 힘을 가져가는 세대로서 청소년

인쇄술의 발명으로 비롯된 600여년 전의 정보혁명은 인류에게 그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지식과 정보의 보급을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산업사회는 증기기관의 발명과 같은 산업기술의 발달과 인쇄매체에 의한 지식·정보의 확산과 유통을 통해 대량생산과 아울러 우리에게 풍요로운 생활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 그런데 인쇄매체에 의해 전달되는 지식·정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교육하기 위해 학교라는 전문 교육기관을 만들어 발전시켜 왔다. 급기야 후기산업사회에 들어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은 약화되고 학교교육이 지식과 정보전달 및 교육을 전담하며 교육적 책무를 다하는 동시에 청소년 문제예방과 해결의 만병통치약으로서 신뢰를 받아왔던 것이다.

한편 지식·정보가 300여 년 이상 생명력 있는 존속기간을 가지는 동시에 시간의 제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앞서 살아온 사람(先生)들의 경험과 지식을 존중하고 배우기 위해 노력하며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여 왔다. 또한 지식과 정보가 공간의 제약 속에 있기 때문에 외국의 생활체험이나 선진문물 및 문화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공간에서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고 배

우며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혁명으로 비롯된 정보혁명은 지식·정보의 유통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식·정보가 유통되기 때문에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다. 시·공간을 초월한 지식·정보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혁명은 과거에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존중받던 사람으로부터 새로이 정보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정보를 가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사람들에게로 ‘권력’이 이동하는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다시 말해 디지털세계가 만들어내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변화는 사회적 힘의 다원화를 초래하는 동시에 세대간의 전통적인 힘의 관계에 중대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매체에 대한 접근수단의 습득에 재빨리 적응하고 있는 10대들의 사회적 힘은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사회적 파워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청소년 존재 이해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 패션정보회사는 현재 한국사회의 1318세대가 ‘성인에서 2%만 부족한 세대’라고 발표²⁾(조선일보, 2002.7.15)한 바 있다. 성인에서 2%만 부족한 세대라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는 세대간의 사회적 힘의 이동에 의한 10대들의 넘쳐나는 권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 존재에 대한 이해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청소년의 사회적 이미지로 확인되어 왔던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며 성인에 비해 무언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존재’라는 존재 이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발상이다.

한편 세대간의 사회적 힘의 재편과 권력이동 현상은 기존의 교육적·전문적 권위체계의 지형에도 심각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10대들은 어른의 말에 순종하려 들지 않으며,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과 권위에 대해서도 때때로 회의를 품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교육과 지원이 기존의 전통적인 형태와 방법만으로는 역부족이라

2) 패션정보회사는 10대에 대한 종합발표회를 통해 현재 한국사회의 1318세대는 첫째,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무장한 ‘모바일 세대’ 둘째, 입고 먹고 걸치는 것 모두 세계 다른 나라 10대와 공유하는 ‘글로벌리제이션 세대’ 셋째, ‘성인에서 2%만 부족한 세대’라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성인에서 2%만 부족한 세대’는 체형, 관심사, 라이프 스타일 모두가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출산율 저하로 형제 없이 자란 10대들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등 ‘내가 세상 중심’이라고 대접받고 싶어하는 성향을 표현(조선일보, 2002.7.15)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는 현실을 시사하며, 학교붕괴나 교실붕괴 등으로 표출되고 있기도 하다. 세대간의 사회적·교육적 위계와 질서의 혼란이나 붕괴는 수직적 규범과 위계가 사회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유교적 문화권의 국가에서 수평적 규범이 주류를 이루어 왔던 서구 사회에 비해 훨씬 심각하고 충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대들의 사회적 힘의 증대는 지식·정보를 가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욕구로 혹은 사회적 참여와 청소년권리 등의 개념으로 분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10대들의 힘은 때로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의 약화와 더불어 기존 질서와 위계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맹목적인 저항이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10대들의 넘쳐나는 사회적 힘은 청소년의 삶과 고민의 지평을 넓혀주는 동시에, 그 힘을 창조적으로 발휘하느냐 아니면 파괴적으로 행사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주요한 사회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2) 모자라는 체험 : 직접적인 체험 기회를 잃어 가는 청소년

디지털시대의 정보매체의 혁명적 발달은 아동기에서부터 간접 경험중심의 생활을 강요하며, 스스로의 활동을 통한 다른 사람이나 자연 등 다른 세계와 관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점차 축소시키고 있다. 지식사회는 정보매체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인간에게 경험할 수 있는 폭과 범위를 엄청나게 확대해 주었다. 그런데 양적으로 확대된 경험은 주로 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이며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체험의 범위는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 경험의 확대는 지식·정보 습득 기회의 증대를 가져오지만, 10대들의 감성 발달을 저해하거나 왜곡하고 있다. 지식사회가 가져온 직접 체험의 감소와 과잉 자극에 의한 만성적 반응성의 저하는 청소년의 마음과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신앙처럼 굳어버린 학교교육에 대한 만병통치약적 믿음과 성공을 약속하는 공부만으로 채워야 하는 청소년기의 일상에 대한 사회적 신념은 10대들의 다양한 체험 기회를 더욱 구속해 버리고 있다.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골목길에서 나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터득할 수 있는 생활 지혜의 습득 기회나 사회생활 연습은 형식화된 CA활동이나 각종 과외학원 등으로 대체되거나, 각종 전자미디어로 채워진 방구석으로 닫혀버린 지 오래다. 방안 깊숙이 침투한 상업주의적 시장이 만들어 내는 소비

문화와 전자미디어에 포위되어 있는 생활은 청소년들에게 보고·듣고·느끼는 오감(五感)의 확대를 초래하여 과잉 자극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청소년은 실제 생활 속의 경험을 통해 처음 직면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순과 갈등들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생략한 채, 마치 자신이 세상 경험을 다해버린 것처럼 착각하는 작은 어른이 되어간다. 많은 간접 경험을 통해 지식을 축적한 청소년들은 ‘똑똑한 작은 어른’이 되어 성인사회의 표리를 단락적(短絡的)으로 이해하며, 허구로서의 감성을 쌓아가고(高橋史郎, 1998:78-110)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교육학적 연구결과들은 청소년들의 넘쳐나는 사회적 힘의 창조적 발휘나 파괴적 행사 여부를 좌우하는 한 변인으로 체험 여부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10대들 중에서 생활체험, 자연체험, 사회체험 등 체험 기회를 많이 가진 아이들일수록 도덕성과 정의감이 강하다는 사실(참조: 生涯學習審議會, 1999)을 밝혀주고 있다.

3) 쉬어야 하는 일상생활 : 자기 개발적 생활양식으로의 전환

산업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경제 효율적 삶은 인간 일생의 과업에 대한 시간배분에도 스며들어 있다. 청소년기에는 오로지 내일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공부’에만 충실해야 하고, 30~40대 들어서에는 공부를 접어두고 돈벌이를 위한 ‘일’에만 매달려야 하며, 신체적 한계와 함께 찾아오는 노년이 되면 가을 거리에 뒹구는 낙엽처럼 지나치게 ‘한가’한 생활을 누려야 하는 세대간 효율적 분업형태의 과업과 함께 일상을 보내야 한다. 지금까지 공부하고 일하는 동시에 여가를 즐기는 생활은 한 가지 것에 몰두하더라도 성취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현실에서는 인간에게 불가능한 과제로 간주되어 왔다. 각 세대별로 공부와 일과 여가를 유일한 과업으로 삼고 바쁘게 열심히 보내야만 했던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공부하지 않고 일하거나 놀거나, 장년기에 일을 게을리 하고 놀거나 공부하는 행위나 노년기에 쉬지 않고 공부하거나 일하는 행위 등 세대별로 배분되어 있는 생활 과업을 어기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일탈행위로 낙인 되거나 최소한 정상적인 행동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지식의 생성과 활용주기가 300년이나 되는 비교적 길었던 산업사회에서는 청소년기의 공부를 통해 축적된 지식(스톡으로서의 지식)을 성·장년기의 일을 통해 활용하고, 노년기에는 여가를 즐기는 생활이 가능하고 가장 효율적인 삶일 수 있었다. 그런데 지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식의 변천주기가 3년 여에 불과할 정도로 짧아진 지식사회에서는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장년기, 노년기 등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지식 생성과 공유 및 활용(플로우로서의 지식)을 위한 평생학습이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짧은 지식의 변화 주기와 평생학습의 대두는 일과 공부의 경계를 점차 와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과 학습은 일상생활 속에서 급속도로 상호 융합되어 가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기에 공부하고 성인기에 일하는 대신에,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과 놀이를 통해 일상에서 학습하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평생에 걸친 공부는 다른 의미에서 평생에 걸친 일과 여가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의미에서 평생학습사회는 평생 일하는 사회이며, 평생 여가를 즐기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다(참조: 이광호, 2001). 이제 일터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해 의미 있는 학습환경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추세이며, 참여하여야만 한다. 학교, 가정, 도서관, 가상공간, 각종 문화시설과 공간 등과 함께 일터는 이제 청소년 교육체제의 일부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참조: Hamilton and Hamilton, 1997).

이와 같은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이 10대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일과 학습의 연계나,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직업생활로의 원만한 이행이라는 문제에 대한 대응 혹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기술세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진미석, 1997:40-42)을 뛰어넘어 청소년의 생활양식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즉, 일과 공부의 연계가 학교와 산업체의 연계 혹은 공부와 일 내용의 연계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과 학습의 연계 내지는 융합(퓨전)을 통한 청소년의 생활시간의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일상생활이 일, 여가, 공부라는 행위상의 시간배분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행위상의 시간배분보다는 시간의 내용과 의미의 문제가 생활의 질이나 만족과 더욱 관련되어 있다. 즉, 인간의 일상생활은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참아내는 시간으로서 생활유지시간, 현재를 위해 즐기는 의미의 소비시간,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려두는 의미로서의 투자시간 등 세 가지의 시간적 의미가 있다. 산업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에는 생활유지시간, 여가는 소비시간, 공부는 투자시간으로서의 의미만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일상 행위는 단일한 의미만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일이 단순히

생활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일을 통한 학습(On the job training)은 내일을 위해 오늘 수행하는 투자시간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그리고 일 자체가 즐겁다는 소비적 시간(On the job leisure)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공부에서도 좋은 싫든 간에 참고 배워야 하는 생활유지시간 의미의 공부와, 장래를 위한 투자와 즐거움으로서의 소비 의미가 합쳐질 때 의의 있고 흥미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다. 즉,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에 생활유지, 투자, 소비라는 세 가지의 시간적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질 때 만족할 수 있으며,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矢野眞和, 1991 ; 1995). 왜냐 하면 삶의 질은 만족여부 즉, 욕구충족 정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식사회에서 욕구충족 정도는 이제 절대적 수준(절대적 평가 모델)이나 상대적 위치(상대적 평가 모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성장과 개발여부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자기성장과 개발은 일, 공부, 여가의 연계와 융합을 통한 생활유지시간, 투자시간 및 소비시간 등 세 가지 의미의 시간균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세 가지 시간균형은 곧 자기개발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식사회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과제는 청소년 세대에는 공부 중심에서 여가와 일의 시간을, 부모 세대에는 일 중심에서 벗어나 공부와 여가의 시간을, 노년 세대에는 여가 중심에 공부와 일의 시간을 늘려 최소한의 생활 균형(矢野眞和, 1991:179 ; 1995:197)을 찾아주는 일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사회의 부모, 학교와 사회는 경제 효율적 생활태도와 시간배분이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10대들에게 ‘공부’ 이외에 ‘문화적 여가’와 ‘일’을 함께 돌려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용기 있는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치고 공부 이외에 여가와 일을 찾아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한편 용기를 내지 못하고 준비된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다수의 청소년은 축 쳐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생리적 불쾌감에 하루 내내 시름시름 앓거나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생리적 불쾌감은 온갖 스트레스와 더해져 신체적 거부반응으로 발전하면서 시름은 매스거림과 화가 치미는 상태가 되고 급기야는 폭력적 양상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이렇게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 10대들의 ‘넘쳐나는 권력(힘)’, ‘모자라는 직접 체험’, ‘섞어야 하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과업과 역할 등은 근대사회의 출현과 함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깨 부여되었던 기존의 청소년 존재의 이유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에서 일을 함께 해야 하는 존재로 변화하고 있고, 성인에 비해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에서 성인에서 2%만 부족한 존재로 변모되고 있다. 한편 어른이 되어 해도 늦지 않은 행동에 대한 유보와 어른의 말에 따라 달라는 사회적 약속은 도저히 지켜질 수 없는 약속으로 백지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10대의 사회적 이미지와 역할 변화는 과히 청소년 존재의 혁신에 가까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10대들을 과연 계속 청소년이라 불러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회적 이미지나 용어로 불러야 하는가의 기로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10대들은 존재의 혁신 중이기 때문이다.

III. 청소년의 존재혁신과 사회적 대응방식의 갈등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10대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이미지는 초점을 잃고 혼돈 속에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금까지의 이론이나 실천 노력들의 대부분은 청소년발달과 관련하여 ‘청소년은 미성숙 상태에서 성숙해 가는 성장기에 있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무언가 부족한 존재 내지는 잘 관리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지나쳐 넘칠 수 있는 위험성을 잠재한 존재’로 간주해 왔다. 결국 청소년은 상처받기 쉽거나 이미 상처받은 아이들로서 문제발생의 예비자인 셈이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처우 역시 10대들이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 - 폭력, 가출, 자살, 혼전 임신, 약물, 비행 등 - 에 주목하여 그들은 누구인가, 왜 문제를 일으키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결국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처방은 이미 드러난 문제행동이나 범죄를 감소 혹은 중단시키려는 의도의 ‘개입’과,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무엇인가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의 ‘예방’을 강조하는 등 언제나 청소년문제의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참조: Perkins, 1997). 즉,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접근 방식은 일정한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위기적 접근(the crisis approach), 청소년의 각 발달 단계에서 요구되는 심리·행동적 과제들을 성취하지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치료하는 교

정적 접근(the remedial approach), 그리고 발생 가능한 문제상황들을 미리 예측하여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문제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을 상담하거나 지도·지원하는 예방적 접근(the preventive approach) 등을 중심(Myrick, 1997:8-11)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디지털시대의 사회문화적 변동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사회변화들은 더 이상 기존의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대응방식을 용인할 수 없는 단계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까지의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식은 청소년문제의 예방에도 성공적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고비용 저효율적이라는 진단을 받고 있다. 특히 지식사회의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다양한 역량을 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절반의 대응 내지는 처방’일 수밖에 없다(참조: Pittman, et. al., 2001)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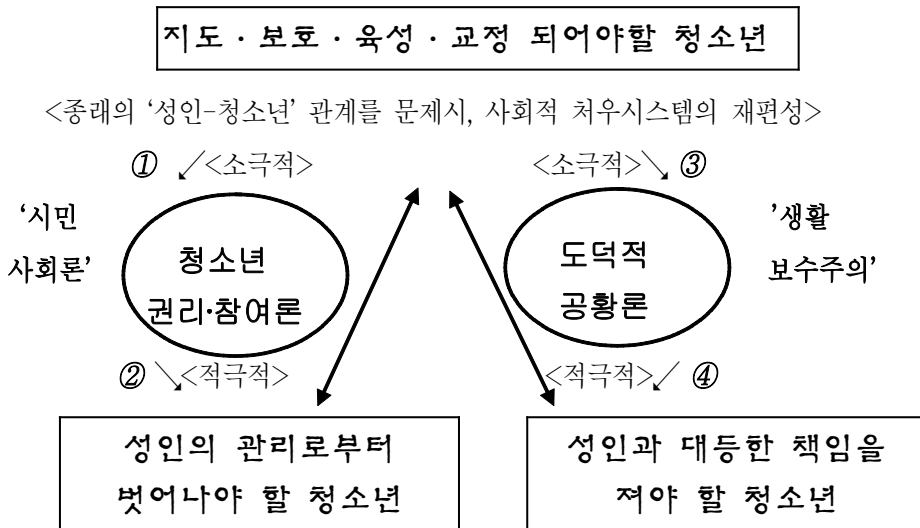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기존의 청소년과 성인의 관계를 문제시하고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대응방식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사회적 대응방식은 다음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크게 ‘청소년 권리·참여론적 입장’과 ‘도덕적 공황론적 입장’을 양극단으로 하는 다양한 논의의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때로는 양극단의 대응방식이 혼합 내지는 중첩되기도 하는 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청소년 권리·참여론적 입장은 청소년들이 현재의 삶에서 책임감 있는 실천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주체이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전제한다(김정주 외, 1999:2). 청소년은 사회발전을 위한 자원으로서 혹은 사회변화의 주체로 인식한다. 즉, 청소년이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율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지역사회는 청소년의 발달을 지원하고 청소년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양자의 균형을 주장(참조: Pittman, 2000)한다. 즉, 청소년참여론은 지역사회 참여 권리와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해야 할 책임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성숙한 존재로서 성인과 무언가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로서 청소년이라는 기존의 성인과 청소년의 관계 자체를 재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운 관계방식의 정립을 요청한다.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청소년문제... 젊은이들의 행동양식을 바라보는 우리 어른들의 과오는 이들을 끝내 하나의 성인으로 봐주지 않는 독선에 있다. 그들 자신의... 생각이나... 시각이 어른들과 다를 때 흔히 어른들은 그들의 생각을 묵살하고 자신의 주장이나 행동양식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 여기에서 생기는 충돌과 마찰이 곧바로 청소년문제를 유발하고 ...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과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분노가 바로 젊은이들의 특징이요 권리이다. 이 같은 젊은이들의 정열이 인류의 역사발전은 물론 우리 근대사의 원동력이 되어 왔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동아일보, 1991.5.19 사설).

이러한 관계의 재검토를 전제로 ‘세상도 아이들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기성세대는 아무런 고민 없이 예전의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반성과 함께 청소년의 고민을 듣고 이해하고 그래서 정보사회 속에서 부모와 청소년세대가 ‘함께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동아일보, 2001.2.9 사설)’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즉, 청소년은 단순히 성인의 지도·관리 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는 동반자의 관계라는 인식을 전제한다.



<그림 1> 청소년의 사회적 이미지와 대응방식의 갈등 관계

자료 : 廣田照幸, 1998: 17, ‘그림 2 아동상(兒童像)의 대항관계’를 수정·보완한 것임

한편 청소년권리론에서는 청소년의 신체보존권, 평등권, 교육권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구제로서의 권리’와 청소년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 행복 추구 등을 위한 기본적 자유권 보장을 위한 ‘해방으로서의 권리’라는 이중적 함의를 가진다(최윤진, 1998:11-15). 다시 말해 청소년 권리론은 ‘보호·치료 및 교정을 청소년의 권리’로 보려는 기존의 시각과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새로운 시각이 동시에 내포(참조: 廣田照幸, 1998:18)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전자는 구제로서의 권리, 후자의 경우 해방으로서의 권리로 각각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 권리·참여론적 입장은 지금까지 ‘금기 위주의 청소년대책(경향신문, 1991.9.4 사설)’의 문제를 제기하며, 실제 우리 사회에서 2가지의 갈등 내지는 보완적 대응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청소년 보호·치료·교정을 청소년의 권리로 보고 더욱 보장하려는 소극적 제도화의 움직임(①의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 ①과 같은 제도화 자체가 청소년에 대한 과잉 간섭과 관리로 보고 제한하려는 적극적 대응 방식(②의 부분)이 상존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 권리·참여론적 입장의 소극론과 적극론은 현재 청소년보호법의 해석과 존폐를 둘러싼 대응방식의 차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권리·참여론적 입장은 1990년대 중반이후 현재의 삶과 복지를 중시하는 새로운 청소년관의 변화와 청소년육성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광호·박미랑, 1995:76-99)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였고,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수립과 함께 청소년정책의 주요한 원리이자 추진방향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사회에는 10대들이 일으키는 각종 사건이나 범죄 등 사회적 문제에 주목하여 청소년을 위험한 존재로 부각시키고, ‘10대들까지 이 지경 되다니(세계일보, 1992.11.12 사설)’할 정도의 사회의 도덕적 공황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져 왔다. 이 입장에서는 청소년은 잘 억제·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나 넘치거나 지나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라는 기존의 인식을 더욱 강화한다.

이들은 10대들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청소년의 심각한 도덕의식(경향신문, 2002.2.23 사설)’이나 청소년 의식의 비뚤어진 굴절현상 등 ‘우려되는 청소년 윤리의식(세계일보, 2002.1.4 사설)’에 주목한다. 또한 ‘10대 소년의 화풀이 살인(한겨레신문, 2000.3.1 사설)’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나 ‘돈을 훔치다 들켜자 10대 손녀딸이 친할머니를 찔러 중태에 빠뜨린(한겨레신문, 1998.9.11 사설)’ 사건 등 ‘성인 뺨치는 10대 범죄(국민일보, 1997.7.11 사설)’에 경악한다. 그리고 10대 중고교생이 음란비디오에 출연(세계일보, 1997.7.14 사설)하는 등 ‘막가는 10대의 성(국민일보, 1997.7.15 사설)’과 ‘10대의 성 모럴(문화일보, 1997.7.15 사설)’ 등 ‘경악할 10대 탈선(세계일보, 1997.5.1 사설)’과 ‘무서운 10대의 성범죄(동아일보, 1993.2.24 사설)’에 세상의 끝을 보는 듯한 느낌을 하소연한다. 그밖에 학교붕괴, 증가하는 학교폭력, 소름끼치는 청소년 폭주족 등 청소년문제에도 분노하며 당황해하고 있다.

도덕적 공황론적 입장은 이러한 청소년문제나 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이제 학교나 교사의 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 나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리와 규제 등 통제를 강화하려는 소극적 입장(<그림 1>의 ③ 부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청소년문제나 범죄에 대한 보호·치료·교정체제가 더 이상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간주하고 보호·배려하기보다는 청소년에게 성인과 대등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적극적 대응(<그림 1>의 ④의 부분) 등을 함께 포괄하고 있다(참조: 廣田照幸, 1998:19). 이러한 사회적 대응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은 법이 보호하려는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거짓말한 청소년까지 보호한다면 이에 속은 상대에게 무거운 의무나 부담을 지울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나이를 속인 매춘 청소년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법원의 결정³⁾처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청소년만 보호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향후 한국사회에서는 청소년 참여·권리론과 도덕적 공황론에 입각한 상반된 대응방식들이 난무하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 한편에서는 청소년의 권리를 인정하여 어른과 대등한 수준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다른 한편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저지른 일과 사건에 대해서는 어른과 동등한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소년에게 부여되는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거두어야 한다는 대응까지 매우 다양하게 방식들이 갈등을 일으킬 소지도 없지 않다.

3) 전주지법의 영장전담 000 판사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매춘을 알선하고 5천여 만원을 챙긴 가요주점 업주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나이를 속인 매춘 청소년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취지로 기각하였다(한겨레신문, 2001.8.16 사설).

IV. 맺음 말

10대를 청소년으로 성립시키는 것은 청소년 자신이 아니라 그 사회가 10대를 바라보는 보는 눈과 대응방식이다. 한국사회에는 지난 10년간 지식사회로의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동과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힘을 가진 세대로서 청소년을 보아왔다. 이와 함께 기존의 청소년 존재 이미지와 사회적 대응방식은 커다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어쩌면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과거 청소년의 미화 - 현재 청소년의 문제시’라는 구조적 시각으로 10대들을 보아 왔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청소년의 의식이나 행동의 내적 의미를 해석하려는 시도나 연구 경우에도 과거 청소년과의 비교 검토를 생략한 채, 현재 청소년의 신비성만을 강조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이제 과거 10대에게 드리워져 있는 미화된 이미지나 신비성을 수정할 수 있는 통시적 관점과 연구가 필요하다.

지난 1990년대는 청소년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실체를 확인하는데 다소 서툴렀던 청소년육성 제도를 발전시키는데 주력하여 왔는지도 모른다. 이제 한국사회는 세대간의 힘의 재편을 인정하고 10대의 힘과 에너지를 신뢰하여 다른 세대와 함께 공존하는 세대간의 ‘무지개 방식’의 세대 통합과 참여가 가능한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다. 무지개 방식의 세대 통합과 공존은 10대, 20대, 30대 등 각 세대가 각각의 사회적 역할과 존재의 의미를 인정하고 참여를 통해 상호 호혜적 사회변화와 발전을 추구해 가는 과정이다. 즉, 과거 연령별 세대간에 사회적 역할과 과업이 과잉 분리되어 있고 특정 세대의 사회적 비용에 초점을 두는 ‘세대분할과 세대간 차별적 역할 접근(Age-based Approach)’에서 탈피하여 세대간의 사회적·경제적 참여를 진흥하고 상호 지지와 지원을 제도화하는 세대간 호혜주의에 바탕을 두는 ‘세대 통합적 접근(Age-integrated Approach)’으로의 전환⁴⁾이 필요하다.

4) 유엔(2003)은 비공식적 2003년 세계청소년보고서에서 1995년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 권고안 이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5가지의 관심사(세계화, 정보테크놀러지, HIV/AIDS, 청소년과 갈등예방, 세대간 관계 등)를 지적하며,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세대간 관계(intergenerational relations)’에서는 세대간의 인구변화를 지적하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즉, 세대별 인구구성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은 과거 주로 3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에 맞춰져 있는 ‘젊은이에게는 투자, 노인에게는 사회적 보호’라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고 비판한다. 이제 사회는 3세대 구성에서 4-5세대 구성으로 변화하고, 가족구조도 급격하게 바뀌어 가고 있어 세대간의 상호 호혜주의를 재확인하는 등 다세대 사회에 기초한 새로운 세대간의 계약이나 관계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러한 세대통합적 접근은 10대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이미지와 대응방식 등 새로운 틀을 요청한다. 즉, 청소년은 누구인가, 그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는 이들에게 무엇을 서비스하고, 지원하며 어떤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등의 보다 큰 그림(big picture)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사회적 대응의 큰 그림은 이제 정치·경제·문화의 변방이나 뒷전에 위치한 주변부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새로운 가치와 힘을 창조하는 국가발전 전략의 주류로 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 하면 최근 세계 각국은 10대들의 존재와 사회적 대응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기울이고 주류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가성장과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속속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건강한 지역사회와 성인의 모범적인 책임 의식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나 개발에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렇지만 역으로 청소년이 건강한 지역사회의 변화와, 국가 성장과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청소년의 존재와 에너지를 사회변화와 개혁의 주체로 인정하고 동참하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한국사회는 10대들에게 해를 끼치게 될 지도 모른다.

참 고 문 헌

- 김정주 외(1999),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운동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광호(2000), “국가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청소년육성의 새로운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연구, 제11권, 제2호.
- 이광호(2001), “청소년 아르바이트(일)의 사회적 의미 이해에 관한 연구- 청소년 생활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제3권, 제2호.
- 이광호·박미량(1995), 개방화 추세에 대비한 청소년육성의 방향과 과제: 21세기 미래사회의 새로운 청소년육성 패러다임의 모색,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윤진 편저(1998), 청소년의 권리, 서울: 양서원.
- 高橋史郎(1998), 臨床教育學と 感性教育, 東京: 玉川大學出版部.
- 廣田照幸(1998), “<子どもの 現在> をどう見るか”, 日本教育社會學會 編, 教育社會學研究, 第63輯.
- 森林(1998), “兒童研究の 動向と 課題”, 日本教育社會學會 編, 教育社會學研究, 第63輯.
- 矢野眞和(1991), 試驗時代の 終焉, 東京: 有信堂.
- 矢野眞和(1995), 生活樣式の 社會學,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遠藤由美(2000), 青年の 心理: ゆれ動く 時代を 生きる, 東京: さいえんす社.
- 生涯學習審議會(1999), 生活體驗・自然體驗が 日本の子どもの 心をはぐくむ, 青少年の 生きる 力をはぐくむ 地域社會の環境の 充實方策について 答申, 東京: 文部省.
- Gillis, J. R.(1981), *Youth and History*, London: Academic Press Inc..
- Hamilton, M. A and Hamilton, S. F.(1997), *Learning Well at Work: Choices for Quality, School to Work Opportunities* Cornell Youth and Work Program.
- Myrick, R. D.(1997), *Developmental Guidance and Counseling: A Practical Approach*(3rd ed.), Minneapolis: Educational Media Corporation.
- Nagorski, M. T.(1999), *Youth as Resources, New Designs for Youth Development*. Vol. 15-3, summer.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Perkins. D. F.(1997). *A Method on Presenting Key Concepts Regarding Positive Youth Development to Community Audiences*. <http://www.cyfernet.mes.umnedu/youthdev/perkins.htm>(검색일: 1999. 7. 8).

Pittman, K. J.(2000). *Balancing the Equation: Communities Supporting Youth, Youth Supporting Communities*, CYD Journal, Vol. 1, No. 1, Winter 2000.

Pittman, K. J. et. al(2001), Preventing Problems, Promoting Development, Encouraging Engagement, Competing Priorities or Inseparable Goals?, Working draft paper, the Forum for Youth Investment,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2003), *World Youth Report 2003*,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 Forty-first session, Advance Unedited Version-Not and Official Document.

영역별 주제발표II

학교의 변화와 청소년

김 일 심(당산서중학교 진로상담부장)

학교의 변화와 청소년

김 일 심 (당산서중학교)

1. 학교의 변화

2003년 서울 교육 지표는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 교육’으로 기본 방향은 ‘서울교육 새 물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교육 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적 행정 구현’이다. 학생과 직접관련이 있는 새 물결 운동의 실천 과제는 ‘가정과 연계한 체험 중심의 인성 교육 내실화’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소질·적성 계발 교육 전개’이다. 즉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이다. 실현만 된다면 즐거운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로 변화될 것이다. 현장에 있는 교사도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연찬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핵심은 경제 발전의 논리에 편승한 학벌 중심 사고로 인해 교육이 중심을 잃고 입시라는 관점에서 학교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교육 개혁 조치들이 있었음에도 매년 걸모양만 바뀌고 알맹이는 그대로인, 여전히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 개혁이었다. 2003 서울교육정책에서도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과 소질·적성 계발 교육을 전개하고 있지만 교육 과정이나 교과 안배를 보면 여전히 입시 위주, 암기 위주의 교육으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자율 학습, 보충 수업 폐지로 인해 방과후에는 학원으로 등원하는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일부 학부모나 학생은 학원 수업을 더 중시하고 학교 수업은 무시함으로써 교실의 붕괴를 가져오는 한 몫을 차지하게 하였다. 4월 28일 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중·고교생의 학원중독에 대한 사례보고서에 의하면 학원을 끊으면 학교도 끊어야할 정도로 학원중독현상이 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의 교사들이 무능한 교사로 몰리는 현상과 함께 정년단축문제 등으로 인하여 소중한 중견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2003년 현재 많은 갈등이 있었고 지금도 그 갈등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장의 대다수의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교사들은 저만치 앞서가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대화로 수업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바라건대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신명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가 하루 빨리 조성되었으면 한다.

♥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야후!코리아 뉴스 주간지-즐거운 학교 4월25일)에 실린 어느 교사의 글을 올린다.

아침 여덟시 10분 경에 학교에 도착하면 20분에 교실에 간다.

3월 내내 학습분위기 조성과 지각생과의 씨름이 시작된다. 지각하는 녀석들을 데려다가 화장실이며 교정이며 손이 못 미치는 곳의 봉사 활동을 시킨다. 개인적으로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 지각을 하는 녀석이 한 두 명, 정말 개인적으로 녀석의 형편을 봐서 이해해 주고 싶은 녀석이 두 세 명이다. 그러나 지도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봉사는 모두 똑같다. 다행히도 봉사 활동을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는 것에 감사해야 할까? 녀석들의 끈질긴 지각에 대한 갈망이 나의 끈기를 시험하는 것이다. 학급 생일 파티에 비용이 필요하다며 지각하는 녀석들에게 벌금을 걷기로 학급회에서 결정을 한 녀석들에게 나의 봉사 감독을 덜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는지. 그리고 아이들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아침 시간이 제일 적절하다. 오후에는 마치 학원을 가기 위해 안달이 난 것처럼 녀석들이 조급증을 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모둠 활동 및 모둠 일기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다. 내가 올해 부임초라 표정 관리를 못했나 보다. 좀 쉽게 보였는지 인상을 써도 약발이 덜 받는 걸 보면 올해 농삿일이 예사롭지 않을 성싶다. 큰 학교는 아이들에게 매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리 많은지, 이 많을 것을 건다가 아이들과 나 사이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가 될 것 같아 걸어야 할 문건이 두렵기까지 하다.

1교시부터 내리 3시간 수업을 하고 나면 1시간 쉬는 시간은 왜 그리 빨리 가버리는 것인지. 처리해야 할 업무를 겨우 시작하다가 오전이 가버리고 오후 한시간 수업하고 나면 하루가 후딱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7차 교육 과정에 새 교과서가 배부되었건만 제대로 연구도 못하는 때가 허다하다. 그래도 하루 3시간 수업까지는 해볼 만 하다. 허나 네 시간이 넘어서면 목소리에 가성이 나고 목청을 좀 높이고 나면 목에서부터, 머리 위로 후끈 열이 치받으며 목이 찢어질듯이 아파 온다. 그러면 온몸에 맥이 팔리면

서 만사가 귀찮아 지거나 몸살 기운이 슬슬 돌아다니는 것이다. 거의 기계적으로 하루를 마감해야 하는 것이다. 그 사이 사이에도 장기 결석한 녀석들 데려다가 면담하라, 흡연한 녀석 봉사 시키라 간부 불러서 학급일 당부하라, 하루가 왜 그리 빨리 가버리는 것인지 모르겠다. 급기야 한 달을 버티던 목이 지난 주에 동티가 나버린 것이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갈라지고 잠기기 시작하더니 자고 나면 김새는 소리만 나는 것이다. 가래를 뱉으면 목에서 붉으스름한 끈적끈적한 진물 같은 것이 넘어오면서 칼칼해진다. 그러나 수업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억지로 쥐어짜서 소리를 내면, 아이들은 킥킥 우습단다.

"선생님 박경림 같아요." 선생님의 건강치 못한 기가 아이들에게 전해 질까봐 전전긍긍하는데 녀석들이 그나마 즐거워하니 다행이라고 할까? 손짓발짓 해가며 수업을 하면서 쉴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야 하는 부끄러운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목을 쉬게 하기 위해.

응급 처방으로 배운 수지침 압봉을 온 교과 선생님들이 손에 더덕더덕 붙이고 다니니 그게 뭐냐고 묻는 녀석, 무섭다고 하는 녀석, 한번 붙여 달라는 녀석 반응도 다양하다. 그래도 증세가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수지침이나 압봉이 제법 효력을 발휘하는데 3월말에 나버린 동티 앞에서는 수지침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해 허순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어 버렸다. 선생님들은 벌써 20대말 30대 초부터 목만 절단이 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오십견을 앓는다. 50대에 온다고 오십견인데 손을 대기가 민망할 만큼 견비통이 심하다. 신경을 많이 쓰는 데다 컴퓨터로 업무를 하는 것도 원인이 되는 것이다.

교사가 건강해야 아이들의 수업이나 교육 서비스의 질이 나아질 것이다. 교사들의 목소리는 교육의 생명이다. 소리를 통해 말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기를 전달하는 것이어서 그토록 소중하고 힘든지도 모르겠다. 목소리와 관계되는 질병이나 견비통은 교사들의 직업병이다. 대규모의 학교로서는 개별적인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한다는 것이 너무나 요원한 일이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오직 잘된 교육이 되기 때문이다. 혹시나 고개를 가웃거리거나 헛눈을 팔거나, 잠시 생각을 하면 뒤처지고 만다. 학교의 규모와 학급당 인원수가 제발 적어졌으면 싶다.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2. 청소년의 변화

가. 청소년의 특성

- 즉각 반응 : 자기중심성에 고착되어 타인의 관점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한 채 기본에 따라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인 감각적 피드백을 요구한다.
- 영 상 : 멀티미디어 시대는 활자 세대의 구 사고에서 영상 세대의 신 사고에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신세대들은 지배적 논리나 분석적 이치 자체를 거부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들을 병렬적으로 처리해낼 뿐 아니라 구태여 그들간의 통합된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는다. 즉 신세대들은 명제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이미지로 느끼려고 한다. 청소년들이 가장 즐겨하고 때로는 중독 현상을 나타내는 전자게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화적 특징은 모방(pastiche)과 모의(simulation)이다. 현실을 모방한 시뮬라클라가 현실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현실과 이미지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현실로부터 현실의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상적인 현실 모델로부터 현실이 생성되는 것이 시뮬레이션 사회의 특징이다. 전자게임은 시뮬레이션 사회의 축소판이다. 중독된 아이들은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
- 탈 권위주의 : 최근 청소년들은 주체성이 강하고 구속을 싫어하며 기성 세대의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하여 형식보다는 실속과 효율을 중시한다. 청소년들에게서는 상하 서열감 보다는 좌우평등감이 우선 시 되며 탈권위주의 이름 하에 타인에 대한 배려, 정당한 권위와의 존중, 예절 등 기본적인 인간 덕목마저 훼손되고 있다.
- 개인주의 : 신세대들은 자기 표현이 분명하고 평범한 것을 싫어하며 무엇보다도 개성을 중시, 다원성 추구, 자유분방하고 기발한 행동 양식으로 기성세대를 놀라게 한다. 또한 맹목적인 개성 추구가 획일적인 유행을 낳기도 하고 과소비를 부추기기도 한다.

나. 언어 문화 (학교 현장에서의 언어 현상)

- 떠드는 것 : 자기 과시. 나를 알아 달라. 의사 소통의 단절.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소리만 낸다.
 - 원인 : 입시 경쟁과 컴퓨터의 가상 공간 확대
- 경음화, 고성화 : 대부분의 은어가 경음으로 되어 있다.(깔, 깔따구, 뽕, 짱, 짹새 등) 대화가 진행될수록 옥타브가 올라가 기분을 들뜨게 하고 흥분케 하는 고성으로 변한다.
-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기 : 감정 통제를 못한다. 직설적인 감정표현은 극히 평온한 장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 [예] : 아이들 싸움의 원인이 대부분 사소한 말장난에서 시작됨.
 - 원인 : PC 통신 - 얼굴 없는 대화이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본능에 노출되어 하고 싶은 말을 얼마든지 함부로 할 수 있다.
- 은어와 속어 : 은어와 속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성 세대를 따돌리고 동지적인 결합을 하는데 일종의 쾌감을 느끼고 있다. - 중딩, 담탱이, 은따, 범생이. 줄라, 쪼다, 뒤지게 등
- 채팅용어 : 시간의 절약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 새롭게 만든 말을 많이 쓴다.
 - 샘, 섬, 방가방가, 안나세여, 밥5취, 설, ㅠ.ㅠ, ㅋㅋㅋ 등

다. 패 션

- 브랜드 지향 : 패션을 위하여 사용하는 돈이나 시간을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
- 표현수단 :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중시한다. 따라서 이름 없는 브랜드나 모조품은 창피하게 생각하며, 새로운 패션이나 유행은 빨리 받아들인다.
- 교복 : 줄여서 몸에 꼭 맞게(끼게?) 입는다.
- 선호하는 스타일 : 청바지 류와 쥘티, 힙합스타일

라. 음 식

- 패스트푸드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마. 진 로

- 성공·출세 지향 : 빠른 시기에 유명한 인물이 되고 싶다. 그러므로 출세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 1998년도 조사
- 출세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싶다.
- 선호하는 직업 : 1993 ~ 1996년 전후에는 연예인, 백댄서, 방송인 등이었으나 IMF 이후에는 교사, 의사, 정보산업분야 등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바. 음 악

- 랩 : 빈민가 혹은 청소년들에게 빈곤과 소외 현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었으며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제였다. - 전세계 청소년들의 하위문화 체계의 일부로 자리 잡음.
- 한국의 랩 : 공격적 메시지보다는 빠르고 강한 비트와 리듬을 중심으로 감각적인 댄스 음악의 형태로 받아들임. 랩은 기성의 지배적인 문화적 관습과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억압적인 윤리관에 대한 거부와 반항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
- 록 : 기성 사회에 대한 거부감과 저항 의식이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 대학생에 인기, 미디어로부터는 외면 받는 경향

3. 현재의 청소년 문화론

가. 경쟁과 시험 열병의 입시 문화

- 창살 없는 감옥에 비유, 청소년의 삶은 ‘노예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입시 문화는 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선택을 강요한다고 한다.
첫째, 제도화된 경쟁의 사다리를 타고 긍정적이고 순응적인 학생이 되는 길
둘째, 입시 제도 하에서 억압된 육체적, 정신적 박탈을 학교 밖의 영화나 비디오, 팝송, 전자 게임 등 문화 상품 소비를 통해 해소하는 길

셋째, 반 학교 문화의 비공식적인 서클의 구성원에게 집요하게 집단적으로·개인적으로 반항을 하며 이런 반항을 통해 권위에 의해 지탱되는 기존의 가치를 몽땅 뒤집는 길.

나. 청소년의 소외문화

청소년들에게 유예 현상으로서의 모라토리움적 상황이 적용되고 있다. 청소년이 지닌 수많은 요구와 바램을 모두 ‘공부’라는 절대절명의 과제 하에 청소년 이후의 성인기로 유예.

다. 일탈증후군의 문화

청소년의 일탈적 성향과 그로 인한 부정적이고 심각한 문제들은 일부 청소년의 특수한 문제이지만 겉으로 드러난 행동 성향이나 일탈 성향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잠재적 일탈증후군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활화산’에 비유 - 가출, 자살, 약물, 마약 중독, 원조 교제, 범죄의 증가 등

라. 포스트모던의 감각 지향적 문화

신세대적 문화와 감각 즉 초현대적이고 초현실적인 포스트모던 문화. 성향이 빠르고 새로우며 순간 순간을 중요시.

- 패션 : 일본왜색문화풍의 패션, 이태리풍의 하이캐주얼 패션, 군인 복장을 연상케 하는 아미룩 패션, 징박은 청 패션,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믹스매취 패션 등
- 음악 : 빠른 템포의 하우스 음악, 언플러그드음악, 랩과 사물의 접촉 등
- 영화 : 줄거리 없는 난해한 영상의 복합물, SF물....
- 삶에 대한 사고 방식 : 덩크족, 온달족, 인턴 결혼.....

마. 이방 지대의 신세대 신드롬 문화

청소년 문화와 구별되는 이른바 이방 지대의 특수층 신세대 청소년 문화 신드롬 -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등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4. 부모의 변화는?

가정에서 직접 자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는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대부분 둔감하다. 물론 젊은 부모들을 중심으로 ‘좋은 부모 되기 운동’을 펼치면서 자녀들의 교육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새로운 여건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평범한 부모들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해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전의 교육 제도에서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라면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오로지 공부만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취미 생활과 특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학부모의 인식 전환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환경 변화에 부모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일은 바로 교육적 가치관을 올바르게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업 성적과 대학 입시에 치중하는 닫힌 사고로는 자녀들을 미래 인재의 기본적 자질인 창의력을 갖춘 사람으로 키울 수 없고 앞으로 도래할 다원화된 첨단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영역별 주제발표Ⅲ

상담사례를 통해 본 청소년의 변화

금 명 자(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교수)

상담사례를 통해 본 청소년의 변화

금 명 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 사례에는 그가 살고 있는 시대와 지역의 특성이 녹아있고, 그 시대와 사회는 다시 한 개인의 생활과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내담자를 도와주려면 상담자는 그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한편 청소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질적으로 다른 발달 단계를 거치고 있기에 변화가 급속하며 예민하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사회 환경의 영향은 다른 시기에 비해 강하고 솔직하다.

강산도 변화한다는 10년의 세월 동안 청소년들의 환경도 매우 많이 변화하였다. 퇴학과 정학과 같은 처벌제도가 사실상 없어지고 남녀공학이 일반적이 된 것과 같은 학교제도의 변화,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법의 변화, 꼭 학교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가치관의 변화 등은 청소년이 겪는 문제도 함께 변화시켰다. 본고는 지난 1993년에서 2002년까지 10년 동안,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문제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그 기간 동안의 사회적 변화 특성을 확인하여 그러한 변화가 청소년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1. 1988 - 2002년의 사회적 변화

사회적 변화는 박경애, 김형수, 최한나 그리고 박관성(2001)의 '상담활동의 경향과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정리한 정치/경제적 주요사안, 사회/문화적 주요사안 그리고 이러한 사안들이 개인에게 미친 상호연계성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1955년부터 2001년까지를 여섯 시기로 구분하였고, 1988년에서 2001년까지는 5년씩 세 시기(1988-1992, 1993 - 1997, 1998 - 2001)로 나누었다. 한편 박경애 등(2001)은 주요신문의 10대 뉴스를 정리하여 그 시대의 의미있는 사건들을 살펴보았는데, 본고에서는 부록 3에 제시하여 사람들이 기억하는 중요사안들에 대한 객관적 자료로 사용하였다.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본고가 관심을 가지는 시기는 1993년에서 2002년까지의 10년이지만, 사회적 사건은 개인의 상담 사례에 즉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경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시기보다 5년 앞선 1988년부터 살펴보았다. 사회적 변화와 이로 인한 개인의 다양한 생활에 미치는 이차적 영향, 개인의 대처 전략에 따른 문제 발생과 대처 과정 등은 적어도 2 - 3년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88년 올림픽 게임의 개최는 그 이후의 경제 소비 생활과 해외여행의 확산으로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청소년들이 유명 해외 브랜드 옷이나 가방과 같은 상품 구매 욕구로 연결되었다. 청소년의 소비욕구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온 부모와의 주요한 갈등 영역이 되었고, 이러한 갈등은 청소년상담의 주 호소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표 1>에서 보듯이 1988년에서 1992년에는 올림픽 게임과 같은 사회/문화적 사건으로 인한 해외여행과 연수, 소비문화가 확산되었으며 올림픽 개최 시 단합된 국민의 힘을 과시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자신감을 고취 등의 영향이 있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청문회와 같은 정치적 사건에 의해 기성세대와 지도자의 부정 부패가 폭로되어 기성세대의 권위가 하락하고 근로자 보호와 노동운동 등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 대량생산과 산업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억압되었던 개인적 욕구가 표현되면서 시민 개인의 가치가 크게 부상하였다. **집단주의적 가치와 개인주의적 가치의 대립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이 이 시기의 특징으로 보인다.

<표 2>에는 1993년에서 1997년까지의 주요 사회적 사안들이 정리되어 있다. 정치/경제적인 내용은 정권 교체와 지역 감정에 관한 것과 국민소비 수준의 증가로 인한 빈부의 차이가 경험되었으며, 사회적으로는 각종 재난으로 인한 대량 참사가 나타나 총체적 위기가 고조된 시기였다. 한편 여행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많은 정보들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다. 한편 여성의 평등의식이 고조되었고 가정 내 부부불화가 증가되기도 하였다. 지난 5년간이 갈등이 대두되는 시기였다면 이 시기는 **갈등이 재난으로 연결되었고 다양한 계층간의 갈등으로 구체화**되는 시기로 보인다.

<표 3>에서 보듯이 1998년에서 2002년까지의 주요 사안들은 IMF와 이로 인한 구조조정과 재벌개혁, 노사갈등, 빈부격차 그리고 경제 파탄으로 인한 가정붕괴와 이혼의 증가 등에 대한 것들이다. 특히 사회적으로는 성규범이 약화되었으며 청소년 성매매, 비리 표출, 개인주의 확대, 여성 관련 특별법(가정폭력법, 성폭력법, 고용촉진법 등)의 제정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책 등 여성과 성관련 문제 등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벤처 열풍, 교권붕괴, 의약분업 등 지금까지 확고했던 계층에 대한 도전과 계층간 갈등의 심화, 인터넷과 환경문제 등 소위 21세기의 문제들이 중요한 사안들이다. 그러나 갈등의 심화는 부정적이기 보다는 **다양성 수용으로의 전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의 13 - 18세의 청소년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세 단계의 시절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들이다. 다시 말해 이들이 처음 경험한 것은 물질과 소비 그리고 개방이었고, 그 다음에는 대형사고와 같은 위협과 어른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안한 시대를 거쳐, 기존의 안정된 계층이 흔들리고 소수집단과 새로운 분야의 목소리들이 제각기 목청을 내는 다양성의 분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 현재 16세의 중학교 3학년들은 1988년에 태어나 199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였고 2001년에 중학교에 입학한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는 세대이다. 초등학교 시절인 1995년에서 1997년까지 갖가지 대형사고와 별안간 닥쳐온 IMF 사태를 겪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가정적 위기를 직접 체험하였다.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개인적으로는 급변하는 발달과정을 겪으면서 동시에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 다양성에 쉽게 노출되었다.

<표 1> 1988~1992년 시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주요 사안들 및 상호 연계성

구분	정치/경제적 주요사안	사회/문화적 주요사안	연계성
1988 ~ 1992	여야갈등 군사독재 88올림픽 문민정부 정권교체 3당합당 6.29 백담사 남북동시유엔가입 구소련 해체 북방외교 KAL 폭발 지자제	올림픽 전교조 독재 빈부격차 우르과이라운드 근로자보호/노동운동 부동산 급상승 무궁화 위성	빈부격차 전교조결성 언론통폐합 스포츠관심 청소년 비행 집값 상승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표 2> 1993~1972년 시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주요 사안들 및 상호 연계성

구분	정치/경제적 주요사안	사회/문화적 주요사안	연계성
1993 ~ 1997	IMF 정권교체/문민정부 남북화해 실업자 증가 김일성 사망 비자금조성	IMF 문민정부 빈부격차 실업자문제 노사문제 성수대교붕괴 삼풍사고 6.29선언 김일성 사망 일본문화개방 인권/여권신장 세계화	IMF 평화적정권교체 구조조정 가족문제 빈부격차 경제불안 사회적응곤란 교육정책실패 교권침해 개인주의 지자체

<표 3> 1998~현재(2001) 시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주요 사안들 및 상호 연계성

구분	정치/경제적 주요사안	사회/문화적 주요사안	연계성
1998 ~ 현재(2001)	IMF 남북정상회담/관계개선 국민정부출범 근시안적 교육정책 구조조정 실업자 속출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수상 지역감정 타파	구조조정IMF/경제위기 밀레니엄버그 대통령대북방문 일본문화난입 인터넷 환경문제 벤처열풍 대통령 노벨상 수상 빈부격차 교권붕괴 의약분업 각종사고 재해 국민의 정부 병역비리 교원정년단축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 의약분업 인터넷 사회반감 직업회의 학업지도 교육정책 실패 세금상승 정치불신 교원정년단축 교육정책불신

2. 통계로 살펴본 청소년 문제의 변화

이 절에서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이하 상담원)을 내방한 상담 사례의 통계적 변화를 살펴본다. 표 4는 1993년 개원한 이래 2002년까지의 내담자 호소내용 유형에 따른 비율이다. 상담원의 상담전문 직원의 수가 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담 건수는 그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어, 전체 상담 건수에 대한 그 호소 내용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1993년에서 1995년까지는 10개의 호소내용으로 나누어 조사되었고, 그 이후 현재는 진로와 취업을, 이성과 성을 나누었고, 여가활동과 제도개선을 더 첨가하여 14개의 유형으로 조사되었다.

가정문제는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1996년에 가장 높았다가 1997년, 1998년, 1999년까지는 오히려 적었고, 다시 200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습과 진로문제는 1998년도에 가장 적었다. 교우문제는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는 증가 추세가 멈췄다고 있다. 성문제는 1998년에 가장 적고 1999년 이후 증가 일로에 있다. 이는 사이버상담이 개통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상담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행문제는 1993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1년과 2002년에는 줄었다. 특별히 약물남용 문제는 1998년 이후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컴퓨터와 초고속망이 보급되면서 인터넷 오락과 게임으로 청소년들의 관심이 몰려 약물에 대신한 의존 대상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성격문제는 상담원이 개원할 당시에 비해 현재는 50%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 당시의 상담자의 접근방법에 기인한 듯하다. 정신건강 문제는 1999년과 2000년에는 비교적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는 증가하고 있다. 특기할만한 것은 특정 문제로 분류하기 어려워 기타로 처리한 내용들이 1997, 1998, 1999년에 급격히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 정보의 요구나 사회복지적 요구들이 상담 내용으로 호소되었기 때문인데, 1997년 말에 IMF가 발표되어 우리 사회가 1998년과 1999년도에 경제적 어려움과 이와 관련된 가정적 어려움이 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표 4> 1993 ~ 2002년 내용별 상담 현황

(단위 : %)

년도	가정	학습	진로	취업	교우	이성	성	비행	약물 남용	성격	정신 건강	여가 활동	제도 개선	기타	계
1993	8.9	9.8	4.8		2.2	17.6		4.9	0.5	23.1	15.7	-	-	12.5	100
1994	14.1	6.5	3.8		2.0	17.4		6.4	2.4	20.8	6.9	-	-	19.6	100
1995	14.6	8.2	3.8		3.1	12.8		8.8	7.8	27.1	4.5	-	-	9.3	100
1996	17.14	6.75	4.64	0.09	4.49	3.78	13.81	10.80	1.27	15.71	8.44	0.12	0.11	12.85	100
1997	12.1	5.7	4.2	0.1	5.3	3.7	15.5	9.8	1.3	16.1	6.5	0.2	0.1	19.4	100
1998	12.4	3.2	3.9	0.1	6.0	4.1	12.0	10.1	0.7	14.9	6.1	0.1	0.2	26.2	100
1999	10.5	4.9	5.0	0.2	8.6	3.8	16.2	14.6	0.6	9.6	4.0	0.2	0.3	21.5	100
2000	12.5	6.2	5.4	0.2	9.5	3.5	16.3	15.3	0.6	10.7	4.3	0.5	0.2	14.8	100
2001	13.9	6.5	5.4	0.2	10.7	2.9	18.3	12.6	0.5	10.0	6.7	0.6	0.2	11.5	100
2002	14.1	6.3	6.2	0.2	10.1	3.2	19.7	10.5	0.5	10.8	6.9	0.7	0.4	10.4	100

위에서는 단순한 통계자료의 수치를 통해 몇 가지 특기할 만한 변화를 살폈다. 가정 문제와 교우문제, 성문제 그리고 정신건강문제는 200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침 한국청소년상담원 시범상담부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접수사례를 청소년 호소문제분류표를 활용하여 그 내용 경향을 분석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부록 4참조). 가족문제는 10개의 호소 내용으로 분류되는데, 2000년에는 부모자녀관계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나 2001년에는 관계문제뿐 아니라 부모간의 갈등/폭력이 크게 대두되었다. 또한 2002년에는 결혼/재구성가정의 적응문제도 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부부의 이혼 이후 자녀들의 방황이나 편부모 겪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이에 속한다. 교우문제는 2000년에는 따돌림과 친구관계 문제가 반씩 차지하였으나 2001년과 2002년에는 따돌림 문제는 줄어들었다. 성문제에 있어서는 성추행/폭력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정신건강문제는 우울과 무기력, 불안, 그리고 정신증적 장애에 대한 호소가 주를 차지하고 있었다.

본원에서는 통계적으로 상담의 내용과 특성을 정리하기도 하지만, 1993년 이래 그 시기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해결해야 할 청소년문제를 ‘청소년문제토론평장’과 ‘특수상담사례회의’를 통해 다루어 왔다. 이들 행사의 제목과 주제를 살펴보면 10년 동안의 청소년문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록 5에는 이들 행사의 제목이 열거되어 있다.

1993년의 ‘청소년의 수험행동’, 1994년의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그 당시의 관심이 학교 성적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주 관심 문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청소년 **문화 행태의 변화**도 알 수 있는데, 1995년의 ‘오빠부대, 어떻게 볼 것인가’, ‘청소년의 소비행동’, 1996년 은어나 욕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언어생활을 조망한 ‘청소년의 언어생활’, 1998년에 다룬 ‘청소년 주술행동’과 ‘청소년의 놀이문화’, 2000년의 ‘방과후 청소년의 세계’, 2001년의 ‘청소년의 엽기놀이’와 ‘청소년 매니아의 세계’로 이어지고 있다. **폭력 관련 주제**는 1994년의 부모나 교사로부터 매를 맞는 청소년을 다룬 ‘매맞는 아이들’에서 시작하여 1996년의 ‘때리는 아이, 맞는 아이’, 1997년의 ‘청소년의 폭력 및 성폭력’,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매우 폭력적이고 엽기적인 놀이를 다룬 2001년의 청소년의 ‘엽기놀이’, 2002년의 ‘폭력가정의 아이들’로 이어진다. **인터넷과 사이버 관련 주제**는 1998년부터 등장하는데, 1998년의 ‘사이버세계와 청소년’, 1999년의 ‘청소년의 사이버문화’, 2000년의 ‘청소년의 PC중독’들이다. 사이버와 관련한 주제의 변화는 사이버의 등장 - 활용 - 부가적 문제 제기로 흘러간다. **청소년의 이상 행동**과 관련해서는 1993년 ‘청소년의 자살행동연구’가 있었고 1998년의 ‘청소년의 동반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살'과 1999년 '청소년의 우울' 등의 주제가 있었다. 우울과 자살은 다른 이상행동에 비해 청소년상담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청소년 이상행동임을 알 수 있다. 1999년의 '집 나가는 아이들', 2000년의 '청소년의 가출', 2001년의 '교실에서 잠자는 아이들', 2002년의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은 1999년 이후 가정과 학교라는 안정적인 틀로부터의 이탈 행동으로 보이는 **변화된 청소년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최근에 청소년들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1993년에도 '청소년 다이어트 행동연구'가 있어서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발달적 특성에 더욱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아래에 제시된 표는 각 주제별 흐름을 정리한 것으로 청소년 문제나 주요 주제의 시작과 흐름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정리하였다. 청소년의 학습과 관련된 문제는 1993 -1994년, 10년 전에는 중요 상담문제였으나 이제는 이 문제로는 상담실을 찾지 않는다고 하겠다. 우울과 자살과 같은 이상행동, 다이어트와 같은 외모에 대한 관심은 사회와 시대 변화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발달적 특성에 기인한 일정한 청소년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8년에 등장한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문제와 1999년 가출과 학업중단으로 나타나는 기존 틀에 대한 거부경향은 그야말로 시대적 산물로 보인다. 청소년 문화행태의 변화도 시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놀이와 언어를 통해 주로 나타난다고 하겠다. 청소년의 폭력 문제는 가정과 학교, 사회라는 환경에서 비롯해서 청소년 자신의 중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학습·순환적 고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표 5> 청소년, 특성 주제별 시대에 따른 변화

주제 년도	학습	컴퓨터/인터넷	문화 형태	정신건강	폭력	체제 이람
93	청소년 수업행동			자살행동연구		
94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				매맞는 아이들	
95			소비행동, 오빠부대			
96			청소년의 연어세계		패리는 아이, 맞는 아이	
97					청소년의 폭력 및 성폭력	
98		사이버세계와 청소년 상담	청소년 놀이문화	청소년 동반 자살	떠돌리는 아이들, 떠돌림 당하는 아이들	
99		청소년 사이버 문화	청소년 주술 행동	청소년의 우울		집나가는 아이들
00		청소년의 PC중독	방과후 청소년의 세계			청소년의 기쁨
01			청소년의 열기놀이		청소년의 열기놀이	교실에서 잠자는 아이들
02			매니아의 세계		폭력가정의 아이들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3. 사례를 통해 살펴본 청소년 문제의 변화

이제는 상담의 원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한 해에 다루어지는 사례는 10,000건에서 20,000건으로(사이버상담 사례 제외, 상담원수에 따른 차이), 그 대상은 청소년을 비롯해서 청소년의 부모와 가족, 일선교사, 청소년지도자들이 포함된다. 필자는 1993년과 1994년, 2001년과 2002년의 접수면접보고서를 읽어보고 몇 가지 특징을 추출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전형적 사례를 몇 개씩 소개한다. 정리된 특징은 앞의 통계로 살펴본 특성과 담론화되었던 주제들의 특성과 연결되어 있다.

1) 10년 전의 호소 문제 특성

(1) 틀 안에서의 소극적 갈등

현재나 10년 전이나 부모-자녀 갈등은 여전하다. 그러나 10년 전에는 부모나 교사가 청소년에게 전형적 행동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청소년들은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갈등 양상이 주 특징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러한 갈등의 소극적 표출의 유형과 예들을 정리한 것이다.

· 소극적 학교부적응 행동

예 1) 중 2 여학생 사례

부모 호소: 학교 가기 싫어하는데, 집에서 말을 안하고, 방에 혼자 있는 편이다.

청소년호소: 시험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사회, 영어시간에 머리가 아프다. 초등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 한 분만 접촉하면 되는데 중학교에서는 담임과 여러 교과 선생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벅차다.

예 2) 중 3 남학생

부모 호소: 학교 가기 싫어하고 지각하고 결석함.

· 신체적 호소를 동반한 학교부적응 행동

예 1) 중 2 남학생

절사한다. 특히 시험 때는 몸이 아프다. 배가 고프지 않아서 먹지 않으나 힘이 없어 지친다.

예 2) 초등 6 남학생

학교에서 코피 자주 나고, 제 마음대로 안되면 코피를 흘린다. 어제는 머리를 벽에 부딪치면서 집에 가겠다고 했다고 함. 열이 훅 나고, 심장 뛰고 손발 저림.

· 소극적 성격에 대한 호소

예 1) 중 3 여학생

성격이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하다. 말을 잘 못한다.

예 2) 중 1 여학생

애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먼저 말 걸기 어렵다. 애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 아직은 권위가 살아 있는 교사와 부모에 대한 소극적 저항

예 1) 고 1 남학생

부모 호소: 아이가 현실 감각이 없고 너무 이상적. 가치관에 혼란이 있는 것 같다. 학교와 사회에 불만이 많은 것 같고, 검정고시해서 빨리 졸업하고 싶다고 하고 배낭여행, 선교사, 철학자 되고 싶다고 한다. 부모가 혼내었더니 학교를 포기하고 검정고시 하겠다고 함. 아버지에게 혼나고 눈물을 흘리고 가출한 적 있었음. 주유소에서 찾음.

청소년 호소: 과외비가 부담스러워 아르바이트해서 검정고시를 하려고 했었다. 부모나 비인격적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나 잠깐의 언급으로 그침.

예 2) 고 1 여학생

미술이 내 적성에 맞는지 확인하려고 왔다. 엄마는 공부 성적이 안되니까 다시 미술로 진로변경하라고 함. 나는 30년 정도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엄마는 오빠를 더 믿는다.

(2)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의 부모

· 과잉보호 부모

예 1) 중 2 남학생

엄마의 호소: 엄마 자신이 6년1남의 집에서 태어남. 큰아이가 딸이고, 남자아이가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태어나 너무 좋았다.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안해준 것이 없다(스키, 윈드서핑, 미인영어회화, 수영, 클라리넷 등). 교사도 그만 두고 세상없어도 4시까지든 돌아와 아이를 맞이하였다.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했는데... 아이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없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의욕이 없고, 조금만 힘이 들어도 안한다. 삶에 대한 애착, 애쓰는 모습이 없다. 숙제도 해주고, 공부할 때는 옆에 붙어 있었다.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 반에서 33등을 했다. 2년 전부터 과목별 과외를 했는데도 안되었다. 집에서는 야단이 났다. 애에게만 매달려 있으니까 남편과 누나의 불만이 심하다.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예 2) 대학 2학년 남학생

엄마의 호소: 아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다. 정돈이 안된 생활, 시간관리 못하고, 책임감도 없다. 앞으로는 자식을 사랑하지 못할 것 같다. 고등학교 때는 과외하는 문제로 부딪친 적이 있다. 아들은 불법이니까 안하겠으며, 혼자서 공부하겠다고 하였다.

· 폭력적 자녀와 대처하지 못하는 부모

예 1) 중 3 남학생

엄마의 호소: 아이가 몽둥이를 들고 난리쳤다. 친구가 와서 문을 잠그고, 엄마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다.

청소년호소: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정신병자다’, ‘끝장’이라는 말을 하는가. 한 달 가출하고 왔는데도 집은 그대로 었다.

예 2) 고 1 남학생

엄마의 호소: 엄마에게 욕하고 물건 막 던지고, 중 2 후반에 폭력배와 사귀기 시작하더니 난폭해짐. 남들 앞에서는 온순하며 공부는 잘함.

(3) 위축된 가치관의 혼란

예 1) 중 3 여학생

중 2 때부터 성관계를 계속해 왔다. 나는 타락한 여자이고 어떤 방법으로도 순결한 여자가 될 수 없다.

예 2) 고 2 남학생

학교에서 흡연 사실 발견되어 난리가 남. 친구와 둘이서 학교 주변 수퍼에서 음료수, 팩소주를 몰래 갖다 먹었다. 밤 1시에 가족 몰래 나와 자유를 만끽하고 온다. 친구를 만나서 담배를 피우고 온다.

예 3) 고 3 남학생

고 1때 엄마에 대한 반항으로 공부를 소홀히 했으나 지금은 필요하다고 느낌. 주위의 친구들이 1등급의 아이들이고, 아버지가 우수한 대학 출신이고 나는 장손으로서 떳떳치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2) 최근의 호소문제 특성

(1) 폭력적 대처 반응과 행동의 증가

예 1) 중 2 여학생

모가 방문함. 아이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개입해야 할 지 도움을 받고 싶다. 아이가 엄마에게 폭력 행사. 6학년 때 자기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 말을 하지 않거나 부모에게 욕설을 함. 작년부터 엄마에게 폭력을 가함. 처음에는 엄마도 아이와 같이 치고 받고 싸움. 부는 둘이 싸우고 난 후 나타나서는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방관.

예 2) 중 3 여학생

중 1부터 노는 애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였다. 집단으로 아이 때리는 문제로 학교로부터 권고전학을 통지 받아 현재 이사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계속되었으며, 최근에는 담배 피우다 학교선생님께 적발되어 상담 방문 계기가 됨.

예 3) 초등 6 여학생

딸의 문제로 가족 전부가 방문. 같은 학교의 두 친구를 2 -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딸의 이야기는 아이들이 약속을 안지켰다. 괴롭히는 방법은 구타하거나 심부름시킴.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2) 인터넷 게임 증가에 따른 다양한 이차적 문제

인터넷 게임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이차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게임으로 인해 밤 늦게 자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무절제한 생활과 같은 개인적 문제에서부터 가족 갈등 심화되고, 학교 부적응 행동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 거짓말, 도둑질과 같은 비도덕적 행동이 유발되기까지 한다.

예 1) 고 1 남학생

아이가 학교 가기를 싫어한다. 중 3년 2학기 때부터 컴퓨터에 빠져서 늦게 일어나 잤은 지각. 1주에 1-2회 결석. 공교 진학 후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내담자의 집이 아이들의 은신처 역할. 아이들 중 3-4명 자퇴한 아이들.

예 2) 고 2 남학생

아이가 현실에 대해 너무 부정적. 밤에 오락하다 새벽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다투고 신경전 벌이고 학교 가기 힘들어함. 공부에 의욕없다고 함.

(3) 이혼이나 별거 가정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

예 1) 중 2 남학생

담임교사와 내방. 담임에 의하면 내담자는 여러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긍정적이고 착해서 잘 잡아주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함. 도벽, 담배, 술 등의 문제, 60일 정도 무단 결석했다. 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했다. 이복 동생이 있다. 중1 때부터 학교 근처에서 누나와 자취. 부가 용돈 지원하고 있음.

예 2) 중 2 여학생

담임교사가 데리고 옴. 두 번의 음주사건으로 학교에서 징계 받음. 1차는 좋아하던 남학생과 성적 접촉 후 우울한 상태에서 음주 후 학교에서 주정했다. 2차는 친구들과 교실에서 소주 마시다 걸려서 교아원에 봉사 6일 하고 돌아와 교사의 권유로 상담오게 됨. 초등 4년 때 부모 이혼하였고 부가 재혼하여 부와 함께 살음. 부모는 아이에게 관심 많은 듯 하나 아이는 불편해 한다.

4. 종합 정리와 대책

1) 종합 정리

· 사회적 사건의 영향은 약 5년 정도 후 사례에 반영된다

시대의 한 사건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예를 들면 개방으로 상징되는 올림픽 게임은 1988년에 있었지만 청소년들의 행동변화와 문체는 약 5년 정도 흐른 다음 소비행동과 오피부대 등으로 나타났다. 물론 올림픽 단일 사건이 이러한 변화의 근거가 된 것은 아니다. 올림픽을 하기까지 민주화운동이 지속되었고,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달하여 재화가 풍부해졌으며, 여행자유화 등으로 외국의 풍습이 수입되었다. 청소년들은 삐삐를 사달라고 부모를 졸랐고, 브랜드 신발과 옷, 가방을 원했다. 더불어 연예인을 선망하고 쫓아 다니는 오피부대도 사회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또 다른 예로는 IMF와 관련된 것으로, 1997년 말에 IMF 사태가 발생하였고, 1998년에서 2000년대까지는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과 경제적 어려움이 생활을 파고 들었다. 그런 과정에서 노숙자로 떠도는 아버지로 인해, 가장의 실직으로 실망하여 집을 나간 엄마로 인해, 아니면 이혼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었다. 2002년에는 이혼가정에서 편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워 호소하는 사례가 늘었고, 재구성가정의 상담 사례도 눈에 띄었다.

이러한 예들을 볼 때 사회의 한 사건은 일련의 사회 흐름의 결과로 나타나고, 그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의 주변 환경 예를 들면 가정이나 학교에 영향을 주고, 다시 이러한 환경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어 문제가 나타나기까지는 약 5년 전 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겠다.

· 소극적 갈등 표현에서 적극적, 폭력적 행동으로 변화되었다

DSM IV에는 우리 나라 사람에게 보고되는 ‘화병’이 문화관련증상 용어집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화병의 중요한 원인으로 ‘분노 억제’를 들고 있다. 오경자와 하은혜(1999)도 한국의 아동·청소년은 주로 신체화 증상, 사고장애, 주의집중장애 등 내면화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증후군을 주로 호소하고 미국의 아동과 청소년은 공격적 행동과 비행 등의 외현화증후군을 더 많이 호소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우리 나라 사람에게는 어른이건 아이들이건 억제가 중요한 반응행동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최근 들어 변화하고 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부모와 갈등이 있었을 때 말을 안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밥을 먹지 않고 하던 소극적 저항 행동에서 이즈음에는 집을 나와 버린다든지, 학교를 가지 않는다든지, 친구들을 때리고 괴롭힌다든지 외현적 반응을 더 많이 보인다.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회의 개방과 더불어 적극적 표현과 공개가 사회의 미덕이 되고, 이와 더불어 미디어의 내용이 적극적 표현과 폭력이 주제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틀 안에서의 갈등이 틀 밖으로 나오는 행동으로 변화하였다

갈등에 대한 반응이 적극적으로 변한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청소년의 행동이 원심력을 받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부모와의 갈등으로 말을 안한다든지, 문을 걸어 잠그는 등의 집 안에서의 행동이 아예 집을 나와 가정과 부모를 떠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다른 예는 학교 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학습이 어려워지면 지각을 하거나 교실에서 엎드려 자던 행동으로 학업 태만을 보였으나 이즈음에는 무의미한 시간을 흘려보낼 수 없다고 하면서 학교를 자퇴하겠다는 청소년의 사례가 많아졌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행동이 기존의 안정된 틀을 유지하면서 저항하던 데에서 일단 학교나 가정의 틀을 벗어나는 행동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사회의 다양성에 의해 틀 밖의 대안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 컴퓨터 보급,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복합적 문제들이 유발되었다

국가의 주요 아젠다가 인터넷 초고속망의 확립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인터넷 보급율이 세계 최고가 되었다. 그 덕에 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고, 한 집 건너 PC 방이고 다양한 인터넷 게임이 가득하다. 인터넷 게임은 요즘 청소년의 특성인 감각성에 호소하여 몰두하게 하고, 핸드폰과 컴퓨터 의사소통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을 컴퓨터에 붙여있게 만든다. 청소년들은 밤새 인터넷 게임을 하고 새벽녘에나 잠자리에 들고, 아침

에 일어나지 못해서 학교를 지각하거나 결석하게 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부모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청소년들의 마음은 가정과 학교에서 떨어져 가게 한다.

이렇듯 컴퓨터에서 발단된 문제가 가정과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로 나오게 되는데, 선정적 사이트나 자살 사이트에 의한 부작용, 인터넷 물물교환과 E-money에 의한 비정상적 경제활동 등이 그 예이다.

· 약물중독에서 사이버게임 중독으로의 중독 이동현상이 나타났다

1990년 대 초반에는 본드나 가스 등에 의한 약물중독이 많아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생기는 등의 사회적 대처가 이루어지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으로 인해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크다. 문제는 무엇에 중독되느냐의 문제지 모두 중독적 성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중독의 표면적 문제는 현재 생활의 과제에 대만하고 일시적 즐거움에 몰입한다는 것이다. 조금 더 깊이 본다면 생활 과제의 실패와 좌절로 인한 무기력이 그 밑에 있고, 더 밑에는 의존의 문제가 있다. 이런 과정은 어느 시대이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즈음에 청소년에게 유행처럼 퍼진다는 것은 이들의 실패와 좌절의 여건이 더 많다는 것과 독립성 확립의 문제가 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2) 대책

· 청소년상담자의 시대적 감각 훈련

상담은 살아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행동과학이다. 그러므로 상담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과정이 된다. 특히 청소년은 그 영향력이 성인에 비해 크고 빠르다. 그 내부의 자아개념과 같은 구조적 특성이 아직 응고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상담사들은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 미칠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는 예측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사회공학적 개념이 발달하면서 한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을 내용에 지수화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동네에 큰 건물이 지어지면 그로 인한 교통 혼잡률을 예상해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보거나 예상된 환경지수를 통해 그 건물의 건립 여부를 결정짓기도 하고, 무엇을 기반 시설로 준비할 것인지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에게도 사회의 한 사건이나 변화가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 미칠 지를 예측하는 청소년 지수를 상정하는 모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부모·교사 등 기성세대를 위한 교육의 확대

어느 시대이건 세대차는 있어왔지만 이즈음과 같이 방향이 역전되는 시기는 드물었을 것 같다. 청소년이 minority가 아니고 오히려 어른이 minority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나친 말일까 싶다. 청소년은 앞서 가는데 어른들이 그들의 생각이나 기술을 쫓아가기 어려워한다. 어른들 생각에 아이들이 건방져졌고, 자기 중심적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그들은 아는 것이 많고, 무모한 힘과 열정도 있기 때문이다.

어른이 진정한 동반자나 자상한 지도자가 되려면 그들보다는 앞서 가야한다. 경제적 측면과 지혜의 자산은 어른이 많지만 부족한 구체적 지식을 확보하려면 교육받을 기회가 보다 많아져야 하고, 적극적 참여 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가 컴퓨터에 매달려 있다고 호소하고 여러 가지로 아이들을 지도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의 이름이며, 아이템의 이름과 특성, 캐릭터의 이름과 특성을 모른다면 그 기본이 되지 않은 셈이다. 그러므로 부모나 교사 등 어른들이 그들의 세계에 구체적인 지식을 갖는 것도 세대 갈등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청소년에 대한 연계적 사회 대책의 강구

위에서 청소년들이 문제표현과 해결 방향을 가정과 학교의 밖에서 드러내고 찾으려 한다고 하였다. 사회에서는 이들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미비하다. 지금까지는 가출한 청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학교로 돌려보내는 방향에서 대처가 이루어져 왔다. 이제는 가출한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시설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하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위해서 시설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쉼터며 대안학교 등의 대안이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연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청소년의 변화 방향에 대한 수렴 요구 - 자기조절, 독립성, 책임성 강화

상담이 가치 중립적 입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청소년상담은 꼭 그렇다고 하기 어렵다. 자라고 변화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합목적적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성 그 자체가 현재의 미덕이고 보니, 그 가운데에서 청소년들은 더욱 혼란스럽고 그 대처 또한 쉽지 않은 것 같다. 위에서 제시한 자기조절, 독립, 책임성은 어떤 시대의 어떤 가치관이 요구되는 사회에서라도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가치로 생각되어 제시해본다. 현재는 다양성의 시대이고 쏟아져 나오는 지식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좌절과 혼란이 가중되어 조절하기 어렵고 책임지기 어려운 시대이다. 한편 이러한 가치는 부족하기 쉬운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중심을 가지고 판단, 선택, 행동을 하려면 필요한 가치이기도 하다.

부 록1

청소년의 삶과 고민에 관한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1. 청소년의 삶과 고민에 관한 실태조사 설문지

청소년의 삶과 고민에 관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여러분이 평소 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좀 더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니 솔직하게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에는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응답하였는지 알아낼 수 없습니다.

설문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내용과 함께 통계처리될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설문지 응답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주십시오.

전화 : 02-2253-9344

(한국청소년상담원 연구개발부 김동민, 권혜수, 이소영, 이희우)

한국청소년상담원

☞ 잠깐만!

1	당신의 나이	() 세
2	당신의 성별	여자 () / 남자 ()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음은 당신의 인적사항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 해주십시오.

1. 부모님의 학력은 다음의 어디에 해당합니까?
 - 1-1. 아버지 ① 초 졸 ② 중 졸 ③ 고 졸 ④ 대 졸 ⑤ 대학원 이상 ⑥ 모른다
 - 1-1. 어머니 ① 초 졸 ② 중 졸 ③ 고 졸 ④ 대 졸 ⑤ 대학원 이상 ⑥ 모른다

2.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50만원 미만 ② 150-300만원미만 ③ 300-450만원 미만
 - ④ 450만원 이상 ⑤ 잘 모르겠다

3. 현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모두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아니오 ② 예
 3-1. 현재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 ② 한쪽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 ③ 부모님이 별거 중이시다 ④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⑤ 기타()

4. 당신의 최근 학업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평균 60점 이하 ② 평균 61-70점 ③ 평균 71-80점
 - ④ 평균 81-90점 ⑤ 평균 91점 이상

다음은 당신의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 해주십시오.

1. 당신이 최근 한달 동안 아래 영역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 (예, 부모갈등, 가정폭력, 대화의 어려움 등)					
2	문제행동 (예, 가출, 폭력, 성관련, 술·담배, 나쁜친구와의 어울림 등)					
3	학업/학교부적응 (예, 학업태도, 시험불안, 낮은성적, 지각·결석 등)					

부록 1. 청소년의 삶과 고민에 관한 실태조사 설문지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진로 (예, 진로갈등, 진로결정의 어려움, 정보부족 등)					
5	성 (예, 자위행위, 성관계, 성폭력, 원조교제 등)					
6	대인관계 (예, 따돌림, 교우관계, 이성교제, 부모의 어른과의 관계 등)					
7	성격 (예, 소극적, 충동적, 수줍음, 이기적, 분노조절 등)					
8	정신건강 (예, 우울, 무기력, 불안, 자살충동 등)					
9	생활태도/습관 (예, 인터넷과다사용, 게으름, 과소비 등)					

2. 당신은 위와 같은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 ① 이유없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냈다 ② 울거나, 무력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③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위안을 얻으려 했다 ④ 평소보다 많이 먹거나, 술·담배를 했다
 ⑤ 좋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 ⑥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지지를 구했다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다음은 당신의 학업과 친구관계 관한 문항들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 해주십시오.

1. 당신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이외에 하루 평균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1. 학원/과의 공부시간

- ① 거의 하지 않는다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 ~ 2시간
 ④ 2시간 ~ 3시간 ⑤ 3시간 ~ 4시간 ⑥ 4시간 이상

1-2. 스스로 공부시간

- ① 거의 하지 않는다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 ~ 2시간
 ④ 2시간 ~ 3시간 ⑤ 3시간 ~ 4시간 ⑥ 4시간 이상

2. 당신은 학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대학은 꼭 나와야 성공한다
 ②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③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졸업장은 중요하지 않다
 ④ 인생의 성공과 학벌은 관계가 없다.
 ⑤ 기타(_____)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3. 당신은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있는대로 고르세요)

- 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
- ② 친구를 만나기 위해
- ③ 학교졸업장이 필요해서
- ④ 좋은 내신성적을 얻기 위해
- ⑤ 시간을 때우기 위해
- ⑥ 부모나 주위에서 가라고 하니까
- ⑦ 기타(_____)

4. 당신에게 있어 다음의 관계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번호	항 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가족과의 관계					
2	친구와의 관계					
3	교사와의 관계					

5. 당신이 친구를 사귀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있는대로 고르세요)

- ① 소식(연예가/시험/진로 정보, 소문)을 듣기 위해
- ② 심심하고 외로우니까
- ③ 왕따당하지 않기 위해
- ④ 뭐든지 함께 하기 위해(예, 등학교, 식사)
- ⑤ 내게 필요한 것을 얻을수 있어서(공부, 옷, 게임CD, 간식등)
- ⑥ 나를 아껴주고 인정해주니까
- ⑦ 기타(_____)

6. 당신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충분한 용돈
- ② 유명 메이커 상품
- ③ 보다 나은 외모
- ④ 춤, 노래실력
- ⑤ 게임 실력
- ⑥ 우수한 학업성적
- ⑦ 운동 실력
- ⑧ 유머감각
- ⑨ 기타(_____)

7. 당신은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사이입니까?

- ① 사귀는 사람 없음
- ② 미소를 보냄
- ③ 손을 잡음
- ④ 어깨, 허리에 팔 두름
- ⑤ 포옹이나 키스
- ⑥ 성관계

8. 당신이 한 사람과 “사귀는” 기간은 평균 얼마나 됩니까?

- ① 사귀는 경험 없음
- ② 1-2주 이내
- ③ 1개월 정도
- ④ 100일 정도
- ⑤ 6개월 정도
- ⑥ 1년 이상

부록 1. 청소년의 삶과 고민에 관한 실태조사 설문지

9. 최근 일주일동안 당신과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거의 하지 않는다 ② 30분 미만 ③ 30분 ~ 1시간
 ④ 1시간 ~ 2시간 ⑤ 2시간 ~ 3시간 ⑥ 3시간 ~ 4시간
 ⑦ 4시간 이상

10. 부모님과 대화할 때 자주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V표 하세요.

- ① 부모님이 겉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속마음은 다르다 ()
 ② 내 얘기를 듣지 않으시고 부모님 생각만 말씀하신다 ()
 ③ 부모님이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신다 ()
 ④ 내가 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 ()
 ⑤ 부모님은 내가 예전에 잘못된 것까지 다시 얘기하신다 ()
 ⑥ 부모님과 나는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고 다투게 된다 ()
 ⑦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다음은 당신의 여가활동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 해주십시오.

1. 당신은 학업 이외에 주로 어떤 여가 활동을 즐겨합니까? (있는대로 고르세요).

- | | | | | |
|-------|---------|----------|-----------|---------|
| ___운동 | ___TV시청 | ___팬클럽활동 | ___인터넷서핑 | ___놀이동산 |
| ___만화 | ___춤추기 | ___콘서트 | ___친구와 수다 | ___거리구경 |
| ___독서 | ___영화 | ___오토바이 | ___십자수,퀼트 | ___사진찍기 |
| ___연극 | ___낮잠 | ___자원봉사 | ___미팅,데이트 | ___종교활동 |
| ___음주 | ___쇼핑 | ___음악감상 | ___음식점가기 | ___기타 |

2. 당신의 한달 평균 용돈은 얼마입니까?

- ① 1만원 미만 ② 1만원 ~ 2만원 ③ 2만원 ~ 4만원
 ④ 4만원 ~ 6만원 ⑤ 6만원 ~ 10만원 ⑥ 10만원 이상

3. 당신에게 위의 용돈은 충분합니까? 부족한 경우, 용돈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 ① 충분하다 ② 그냥 부모님께 받는다 ③ 집안 일한 대가로 부모님께 받는다
 ④ 부모님께 다른 핑계를 대고서 타낸다 ⑤ 아르바이트를 한다
 ⑥ 훔치거나 뺏는다 ⑦ 할 수 없이 버틴다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4. 당신의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① 거의 하지 않는다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 ~ 2시간
④ 2시간 ~ 3시간 ⑤ 3시간 ~ 4시간 ⑥ 4시간 ~ 5시간
⑦ 5시간 이상

5. 당신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종류는 무엇입니까? (있는대로 고르세요)

- ① 학습/정보검색 ② 채팅(대화방) ③ 온라인 게임 ④ 이메일
⑤ 동호회/포럼 ⑥ 음란 사이트 ⑦ 전자상거래(물물교환, 물건사고팔기, 티켓판매)
⑧ 자료(사진, 음악파일, 실행파일) 다운로드 및 프로그램 실행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6. 당신의 하루 평균 핸드폰/전화 사용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거의 하지 않는다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 ~ 2시간
④ 2시간 ~ 3시간 ⑤ 3시간 ~ 4시간 ⑥ 4시간 ~ 5시간
⑦ 5시간 이상

7. 당신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5시간 이하 ② 5 ~ 6시간 ③ 6 ~ 7시간 ④ 7 ~ 8시간
⑤ 8 ~ 9시간 ⑥ 9 ~ 10시간 ⑦ 10시간 이상

다음은 당신의 외모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 해주십시오.

1. 당신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만족하기 때문에 성형수술과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
② 만족하지만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성형수술이라도 하겠다
③ 불만이지만 성형수술은 하지 않겠다
④ 불만이 많아서 성형수술이나 기타 외과적 수술을 하겠다

2. 다음 행동 중에서 해본 것에 모두 V 표 해주세요.

- | | | |
|---------------------------|------------------------|------------|
| _____ 다이어트 약(알약, 액체약, 분말) | _____ 운동(헬스, 에어로빅, 댄스) | _____ 굶기 |
| _____ 책이나 잡지에 나온 방법 시도 | _____ 먹고 토하기 | _____ 해당없음 |

부록 1. 청소년의 삶과 고민에 관한 실태조사 설문지

3. 다음의 성형 항목 중에서 자신이 이미 한 것이나,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해당되는 항목에 각각 V표 해 주십시오.

항목	쌍꺼풀	코성형 수술	입, 주근깨제거	문신	턱(광대뼈) 수술	치아(치열) 교정	지방 흡입술	키늘이기
이미 한것								
하고싶은것								

다음은 당신의 행동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 해주십시오.

1.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번호	항 목	매일 1회	주 2-3일	주 1회	한달 1회	6개월 에 1회	안함
1	음주						
2	흡연						
3	약물(본드, 가스 등 환각제)						
4	음란물 접촉(음란서적, 비디오, CD, 인터넷사이트)						
5	가출 충동						
6	학교 폭력(신체적, 언어적)						
7	가정 폭력(신체적, 언어적)						

2. 다음 행동 중에서 해본 것에 모두 V 표 해주세요

___ 키스, 신체 접촉	___ 성관계	___ 임신	___ 낙태 혹은 출산
___ 사창가 출입	___ 원조교제(성매매)	___ 동성애	___ 해당없음

3. 당신은 이성과 성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처음으로 성관계를 한 때는 언제입니까?

- ① 경험없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1학년 ④ 중학교 2학년
 ⑤ 중학교 3학년 ⑥ 고등학교 1학년 ⑦ 고등학교 2학년 ⑧ 고등학교 3학년

4. 당신은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결혼 전에는 절대로 안된다 ② 결혼할 사이라면 할 수 있다
 ③ 사랑하면 할 수 있다 ④ 좋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5. 가출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경우에 가출충동을 가장 많이 느끼니까?(하나만 고르세요)

- ① 가정불화가 심할 때
- ② 부모님께 꾸중을 들었을 때
- ③ 성적이 떨어질 때
- ④ 친구들이 집을 나가자고 할 때
- ⑤ 별다른 이유없이 답답할 때
- ⑥ 가출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다음은 당신의 진로 및 장래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 해주십시오.

1. 당신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 하세요.

번호	내용	전혀 생각 안해보았다	막연하게 생각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았다
1	상급학교 진학			
2	직업			
3	결혼, 출산			
4	재산(차, 집, 여가등)			
5	노후			

2. 당신은 미래 사회에서 중요시될 사람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전문적 능력
- ② 경제적 능력
- ③ 지식이나 학문적 능력
- ④ 정보관리 능력
- ⑤ 외국어 능력
- ⑥ 변화 적응을 위한 창의성/리더쉽
- ⑦ 성숙한 인격
-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 당신이 직업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직업적 흥미
- ② 지위, 명예, 사회적 인정
- ③ 높은 보수
- ④ 보람, 성취감
- ⑤ 발전성, 장래성
- ⑥ 안전성
- ⑦ 자극이나 모험
- ⑧ 시간적 여유와 융통성
- ⑨ 독자성, 자유로움

4. 당신은 자신의 진로 결정과 진로 계획에 대해 누구(무엇)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받습니까? (있는대로 고르세요)

- ① 부모
- ② 학교 교사
- ③ 주위 어른들
- ④ 형제, 자매
- ⑤ 친구들
- ⑥ TV, 뉴스, 신문
- ⑦ 인터넷 통신
- ⑧ 서적, 잡지
- ⑨ 청소년전문상담실, 진로상담실
- ⑩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부록 1. 청소년의 삶과 고민에 관한 실태조사 설문지

5. 당신이 종사하고 싶은 분야는 다음중 어떤 것입니까? (하나만 고르세요)
- ① 관료/법조계 - 예) 변호사, 검사, 공무원 등
 - ② 경영/사무계 - 예) 회사 임직원, CEO
 - ③ 종교/봉사계 - 예) 목사, 신부, 수녀
 - ④ 전문서비스계 - 예) 사회복지사, 상담원
 - ⑤ 언론/방송계 - 예) 기자, 아나운서, PD, 연예인
 - ⑥ 교육계 - 예) 교사, 대학교수
 - ⑦ 과학/연구계 - 예) 화학자, 물리학자
 - ⑧ 미용/디자인/요리계 - 예) 미용사, 디자이너
 - ⑨ 의료계 - 예) 약사, 간호사, 의사
 - ⑩ 기술계 - 예) 엔지니어
 - ⑪ 음악/미술계 - 예) 성악가, 미술가
 - ⑫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6. 당신은 미래 한국의 국제 사회 지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세계 최강국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 ② 적어도 세계 3위이내의 강대국이 될 것이다
 - ③ 아시아 최강국이 될 것이다
 - ④ 지금과 비슷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 ⑤ 여러가지 사회문제로 인하여 지금보다도 뒤지는 국가가 될 것이다
7. 당신은 미래 남북관계가 어떠한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 ① 점점 개선되어 5년 이내에 남북이 통일될 것이다
 - ② 10년 이내에 남북이 통일될 것이다
 - ③ 20년 이내 통일될 것
 - ④ 30년 이내 통일될 것
 - ⑤ 50년 이내 통일될 것
 - ⑥ 언젠가 통일이 이루어지겠지만 50년 이상 걸리게 될 것
 - ⑦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남과 북은 다른 공동체가 되어버릴 것이다
 - ⑧ 남북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8. 당신은 요즘 행복하다고 느끼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가끔 그렇다
 - ③ 자주 그렇다
 - ④ 항상 그렇다
9. 당신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당신의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리라 생각합니까?
- ① 분명히 아니다
 - ② 아니다
 - ③ 그렇다
 - ④ 확실히 그렇다
10.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니까? (하나만 고르세요)
- ① 혼자 휴식(TV시청, 음악 감상, 잠잘 때 등)
 - ②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인터넷, 독서, 쇼핑 등)
 - ③ 가정이 화목하다고 느낄 때
 - ④ 좋은 친구가 있다고 느낄 때
 - ⑤ 갖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핸드폰, CD, MP3 Player, 좋은 옷 등)
 - ⑥ 성적이 올랐을 때
 - ⑦ 다른 사람들에게 외모나 능력을 인정받을 때
 - ⑧ 금전적으로 풍족하다고 느낄 때
 - ⑨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11. 당신은 다음 중에서 언제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니까? (하나만 고르세요)

- ① 나의 외모가 못났다고 생각될 때 ②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울 때
- ③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④ 내가 무능하거나 못났다고 느낄 때
- ⑤ 부모님이 서로 싸울 때 ⑥ 부모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듯 느껴질 때
- ⑦ 부모님이 심하게 야단칠 때 ⑧ 가정 경제가 어려울 때
- ⑨ 성적 때문에 가고 싶은 상급학교로 갈 수 없을때 ⑩ 학교 성적이 떨어졌을 때
- ⑪ 친구들이 무시하거나 따돌릴 때 ⑫ 친구가 괴롭힐 때
- ⑬ 선생님이 심하게 꾸중하실 때 ⑭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오랜 시간 동안 성의있게 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 록2

청소년의 삶과 고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부록 2. 청소년의 삶과 고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표 1> 청소년들의 고민영역

고민	성별		학교급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가족	13.4%	19.0%	13.4%	19.2%	18.4%
문제행동	7.4%	8.4%	5.0%	7.7%	10.8%
학교/학업부적응	27.0%	30.2%	28.1%	34.8%	26.4%
진로	42.5%	48.5%	38.5%	50.4%	50.6%
성	5.5%	1.7%	2.1%	4.5%	4.4%
대인관계	6.7%	11.9%	8.6%	11.8%	9.3%
성격	15.9%	19.7%	16.9%	20.9%	17.6%
정신건강	7.7%	13.5%	8.6%	14.3%	11.5%
생활태도/습관	31.6%	26.3%	26.0%	29.9%	31.2%

<표 2> 청소년들의 고민 대처방식

고민 대처방식	성별		학교급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짜증이나 화를 냄	20.9%	32.1%	27.4%	27.0%	26.4%
울거나 무력감	4.4%	15.2%	9.8%	12.2%	20.6%
좋은쪽으로 생각	34.6%	22.5%	26.1%	31.5%	27.6%
폭식, 음주, 흡연	8.5%	4.2%	2.6%	3.6%	10.5%
적극적인 노력	14.3%	10.1%	14.2%	9.5%	10.8%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지지구함	5.9%	8.2%	13.8%	9.4%	10.7%
기타	11.3%	7.7%	11.4%	9.1%	7.5%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표 3> 청소년들의 평균 공부시간

평균 공부시간	성 별		학 교 급 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학원/과외 거의 하지 않는다	41.3%	29.7%	18.9%	40.0%	49.5%
1시간 미만	15.4%	13.2%	10.0%	12.0%	19.3%
1시간 ~ 2시간	13.7%	17.7%	16.4%	15.3%	15.4%
2시간 ~ 3시간	11.2%	14.5%	17.1%	12.4%	9.1%
3시간 ~ 4시간	11.7%	14.6%	22.8%	11.2%	4.3%
4시간 이상	6.8%	10.3%	14.7%	9.1%	2.4%
스스로 거의 하지 않는다	38.9%	35.9%	24.5%	29.1%	53.7%
1시간 미만	29.8%	30.8%	32.0%	23.8%	31.2%
1시간 ~ 2시간	19.9%	24.1%	31.1%	25.8%	11.5%
2시간 ~ 3시간	6.2%	5.1%	7.2%	9.8%	2.4%
3시간 ~ 4시간	3.0%	2.8%	3.5%	7.4%	0.5%
4시간 이상	2.3%	1.2%	1.7%	4.1%	0.8%

< 표 4 > 학력에 대한 견해

학력에 대한 견해	성 별		학 교 급 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대학은 꼭 나와야 성공	44.6%	39.5%	47.6%	49.1%	33.1%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장 필요	20.6%	23.1%	16.9%	16.4%	29.3%
졸업장은 중요하지 않음	15.9%	18.4%	15.7%	20.5%	17.6%
성공과 학벌은 무관	14.2%	15.5%	14.6%	10.7%	16.9%
기타	4.7%	3.5%	5.2%	3.2%	3.1%

부록 2. 청소년의 삶과 고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표 5> 학교에 다니는 이유

학교에 다니는 이유	성 별		학 교 급 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러	68.9%	64.3%	69.8%	62.4%	64.4%
친구를 만나기위해	37.0%	38.3%	40.9%	38.7%	33.8%
학교졸업장이 필요	20.7%	26.2%	17.5%	24.8%	29.4%
좋은 내신성적	20.8%	29.3%	30.4%	22.4%	21.2%
시간을 때우려고	4.4%	2.1%	2.7%	3.6%	3.3%
부모나 주위의 강요	15.8%	16.2%	15.7%	16.3%	16.0%
기타	8.7%	9.6%	9.6%	9.4%	8.7%

<표 6> 친구와 잘 어울리기 위해 필요한 것

친구사귀의 필요한 것	성 별		학 교 급 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충분한 용돈	11.5%	8.6%	7.9%	11.4%	11.4%
유명메이커	0.6%	0.5%	0.4%	0.4%	1.6%
보다 나은 외모	3.7%	3.6%	3.6%	4.4%	3.3%
춤, 노래실력	1.1%	0.9%	1.4%	0.4%	0.8%
게임실력	6.6%	0.7%	4.5%	2.4%	2.6%
우수한 학업성적	4.2%	3.5%	5.9%	3.2%	1.8%
운동실력	4.1%	0.4%	2.6%	2.0%	1.6%
유머감각	35.3%	47.1%	39.2%	42.4%	43.7%
기타	30.5%	32.9%	32.5%	31.0%	31.3%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표 7> 이성친구와의 교제기간

이성친구와의 교제기간	성 별		학 교 급 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사귄경험없음	53.7%	45.0%	59.6%	50.4%	37.7%
1-2주 이내	8.7%	5.0%	5.3%	6.2%	8.2%
1개월 정도	12.3%	16.6%	11.1%	13.6%	18.5%
100일 정도	10.8%	17.3%	12.5%	12.8%	16.7%
6개월 정도	6.9%	7.9%	5.6%	8.7%	8.8%
1년 이상	7.6%	8.2%	5.8%	8.3%	9.9%

<표 8> 일주일동안 부모와의 대화시간

부모와의 대화시간	성 별		학 교 급 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거의하지 않는다	11.3%	10.3%	9.7%	11.0%	11.8%
30분 미만	29.3%	25.9%	25.8%	26.9%	29.5%
30분 ~ 1시간	23.7%	21.3%	22.8%	22.4%	21.9%
1시간 ~ 2시간	12.6%	11.3%	11.3%	14.3%	11.6%
2시간 ~ 3시간	8.1%	9.2%	8.5%	11.8%	7.6%
3시간 ~ 4시간	4.1%	4.5%	4.0%	3.8%	4.9%
4시간 이상	10.9%	17.5%	17.9%	9.8%	12.7%

부록 2. 청소년의 삶과 고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표 9> 한달 평균 용돈

한달 평균 용돈	성 별		학 교 급 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1만원 미만	14.8%	12.5%	16.9%	11.6%	10.9%
1만원 ~ 2만원	22.3%	26.4%	29.9%	22.0%	19.9%
2만원 ~ 4만원	30.7%	37.3%	37.9%	35.7%	29.8%
4만원 ~ 6만원	15.5%	13.0%	9.3%	16.2%	18.5%
6만원 ~ 10만원	8.7%	7.2%	3.9%	8.3%	11.9%
10만원 이상	8.0%	3.6%	2.1%	6.2%	9.0%

<표 10> 부족한 용돈 충당 방법

부족한 용돈 충당 방법	성 별		학 교 급 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그냥 부모님께 받음	51.8%	54.2%	32.5%	43.0%	36.2%
집안 일의 대가로 부모님께 받음	5.2%	6.0%	5.4%	2.9%	2.5%
다른 핑계를 댐	9.9%	17.4%	7.1%	9.4%	12.1%
아르바이트	9.0%	6.5%	1.5%	2.5%	9.5%
훔치거나 뺏는다	1.1%	0.5%	0.5%	0.8%	0.4%
할 수 없이 버틴다	23.3%	15.1%	10.7%	9.8%	15.6%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표 11> 하고 싶은 성형

하고 싶은 성형	성 별		학 교 급 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쌍꺼풀	7.6%	30.9%	16.5%	20.0%	23.8%
코성형 수술	12.7%	22.4%	16.7%	20.8%	22.0%
점, 주근깨 제거	27.4%	34.4%	28.4%	33.5%	33.1%
문신	8.9%	7.7%	7.5%	9.0%	8.7%
턱(광대뼈) 수술	5.3%	14.9%	8.4%	10.6%	12.6%
치아(치열)교정	23.8%	30.9%	25.8%	30.6%	28.2%
지방흡입술	6.0%	22.0%	12.2%	11.4%	18.3%
키늘이기	35.7%	39.5%	36.7%	36.7%	39.2%

<표 12>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	성 별		학 교 급 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결혼전에는 절대 불가	24.1%	54.1%	48.9%	37.4%	32.6%
결혼할 사이라면 할 수 있다	32.9%	23.8%	25.0%	26.7%	31.5%
사랑하면 할 수 있다	38.7%	20.3%	24.4%	30.0%	32.8%
좋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4.2%	1.8%	2.0%	6.0%	3.0%

부록 2. 청소년의 삶과 고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표 13> 미래에 대한 계획

미래에 대한 계획	성 별		학 교 급 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상급학교 진학	37.5%	38.1%	42.6%	39.7%	32.2%
직업	53.4%	56.9%	55.1%	58.5%	54.1%
결혼, 출산	27.1%	21.9%	20.3%	27.6%	27.1%
재산(차, 집, 여가 등)	39.1%	34.5%	35.2%	37.9%	37.7%
노후	19.3%	17.8%	17.7%	18.7%	37.7%

<표 14> 미래사회에서 중요시될 사람의 능력

미래사회의 중요시될 능력	성 별		학 교 급 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전문적 능력	29.0%	25.7%	23.9%	29.5%	29.9%
경제적 능력	13.4%	14.5%	11.1%	13.2%	17.3%
지식이나 학문적 능력	8.4%	9.5%	13.7%	5.0%	5.7%
정보관리 능력	7.2%	2.7%	4.1%	4.1%	6.0%
외국어 능력	8.4%	9.9%	10.8%	8.6%	7.8%
창의성/리더쉽	19.2%	27.9%	25.3%	20.5%	23.3%
성숙한 인격	10.9%	8.8%	9.6%	15.0%	8.0%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표 15> 직업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

직업선택시 고려사항	성 별		학 교 급 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직업적 흥미	31.7%	37.0%	37.8%	31.2%	32.0%
지위, 명예, 사회적인정	9.5%	12.7%	12.6%	10.8%	9.6%
높은 보수	15.9%	12.2%	11.1%	15.4%	16.6%
보람, 성취감	13.9%	11.7%	13.5%	15.4%	10.9%
발전성, 장래성	11.5%	10.8%	9.6%	10.4%	12.9%
안전성	7.6%	8.9%	8.0%	6.8%	9.2%
자극이나 모험	2.3%	1.0%	1.2%	1.8%	2.0%
시간적 여유와 융통성	5.2%	3.7%	3.9%	3.6%	5.3%
독자성, 자유로움	2.4%	2.4%	2.4%	4.1%	1.8%

<표 16> 진로 관련 정보원

진로 관련정보원	성 별		학 교 급 별		
	남	여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부모	46.4%	52.2%	62.3%	53.9%	43.0%
학교, 교사	44.2%	35.1%	29.4%	45.3%	47.2%
주위 어른들	18.6%	15.8%	15.6%	19.6%	17.6%
형제, 자매	22.6%	19.4%	18.0%	23.7%	22.8%
친구들	44.7%	53.1%	43.7%	49.0%	55.0%
TV, 뉴스, 신문	28.0%	26.4%	26.8%	29.0%	26.8%
인터넷 통신	36.4%	38.6%	33.2%	46.5%	38.7%
서적, 잡지	8.4%	12.0%	11.6%	11.8%	8.5%
청소년전문상담실, 진로상담실	4.8%	4.5%	3.8%	4.5%	5.5%

부 록3

1988년 ~ 2000년의 주요 사회 변화

부록 3. 1988년 ~ 2000년의 주요 사회 변화

1988년	1989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올림픽 개최 2. 전씨 백담사 은둔 3. 13대 국회의원 선거 4. 5공 청문회 열기 5. 제6공화국 출범 6. 군의 오홍근 케리 7. 정대법원장 동의안 부결 8. 환율 600원대 진입 9. 한.헝가리 대표부 설치 10. 탈주범들 인질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KAL기 리비아 참사 2. 라면 우지사용 쇼크 3. 분당 등 신도시 발표 4. 5공청산 협상매듭 5. 수출부진 경기 6. 한국, 헝가리 수교 7. 동의대 경찰관 효사 8. 현중 대우조선 파업 9. 전교조 결성 회오리 10. 밀입국 공안정
1990년	1991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당 통합과 내각제 파문 2. 남북 총리회담 교류활발 3. 증시 사상최악 폭락사태 4. 중부에 대홍수 한강범람 5. 보안사 민간사찰 회오리 6. 흉악범 활개 범죄와의 전쟁선포 7. 새민방(民放)선정과 태영의혹 8. 안면도 사태 핵 처리 문제 9. 한 소(蘇)수교 노-고르비 회담 10. 지자제 10년 만에 되찾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입시 잇단 부정사건 2. 수서 비리 의원 구속사태 3. 낙동강 폐놀오염 물 공포 4. 지자제 30년 만에 부활 5. 강경대군 치사 시국긴장 6.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7. 현대 정주영씨 탈세파문 8. 사상 최대 무역수지 적자 9. 남북 화해 불가침 합의 10. 대구어린이 실종 등 수난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1992년	1993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후기대입시 문제지 도난 2. 남북협력합의서 발효 3. 황영조 올림픽 마라톤 제패 4. 한 중 수교 노대통령 방중 5. 경제 12년이래 최저 성장 6. 한전(韓前)군수 관권 선거 폭로 7. 헌정 최초 중립내각 탄생 8. 시한부 종말론 휴서 파문 9. 김영삼 후보 대통령 당선 10. 김대중씨 정계은퇴 선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쌀시장 개방 총리 경질 2.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3. 육.공.해 잇단 대형참사 4. 김영삼 14대 대통령 취임 5. 공직자 재산공개 사정 6. 하나회 등 대규모 숙정 7. 교육계 대입 부정 회오리 8. 첨단 펼친 대전 엑스포 9. 불씨 안 꺼진 한약분쟁 10. 국군 소말리아 PKO파병
1994년	1995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한 49년 군림 김일성 사망 2. 박홍 총장 주사파발언 파문 3. 사상최고 점통더위 39.4도 4. 인천.부천 도세 전국 확산 5. 인간 포기 지존파 살인충격 6. 장교 길들이기 군 하극상 7. 성수대교 붕괴 32명 폐죽음 8. 북 미 핵 타결 관계개선합의 9. 검찰 12.12 군사반란 규정 10. 정부조직 개편 “세계화”추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은퇴 김대중씨 정계복귀 2. CATV 多채널시대 개막 3. 유조선좌초 남해 기름오염 4. 획기적인 교육개혁안 발표 5. 광복50돌-구(舊)총독부 철거 6. 북 식량난-쌀 15만t 지원 7. 유엔 안보리이사국 진출 8. 지방자치시대 본격개막 9. 전-노씨 구속-과거청산 10. 대구지하철-삼풍 대참사

부록 3. 1988년 ~ 2000년의 주요 사회 변화

1996년	1997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11총선 서울 첫 여대(與大)기록 2. 2002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 3. 한총련 연대점거 과격시위 4. 북한 잠수함-무장간첩침투 5. 불황 속 명퇴(名退)바람-외채증가 6. 구(舊)총독부 완전철거 7. 김경호씨 일가 등 17명 탈북 8. 선진국 관문 OECD가입 9. 두 前대통령-세기의 재판 10. 노동법 개정안 기습 처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보 특혜대출 비리사건 2. 북 황장엽씨 한국망명 3. 대통령 차남 현철씨 구속 4. KAL기 괄추락 229명 희생 5. KEDO, 북 경수로 착공 6. 월드컵 본선 4회연속 진출 7. IMF-경제 신탁통치 시대 8. 김대중 후보 당선 정권교체 9. 전-노 前대통령 사면 석방 10. 실명제 4년만에 없던 일로
1998년	1999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김대중 정부 개혁 돛 달고 출범 2. 금강산 남(南)손님에 배일 베타 3. 망하는 은행-무너지는 재벌 4. 총풍-세풍-한나라에 삭풍 5. 일하고 싶다-150만의 한숨 6. 북-'햇볕'뚫고 잇단 침투 7. 희망심어준 세리-찬호 쾌거 8. 日대중문화 해방후 첫 입성 9. 그린벨트 27년만에 대수술 10. 숨가쁜 교육개혁-교단 동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화 다시 쓴 강제규 감동-쉬리 2. 한국전 후 남북해군 첫 서해 교전 3. 씨랜드-호프집 불 어린녘 하늘로 4. 신창원 탈옥 908일만에 잡혀 5. 이승엽 홈런 54개 야구 새章 열어 6. 검경(檢警)불법감청, 불신평조 7. 홍석현회장 구속 언론탄압 공방 8. 대우 김우중 30년 신화 무너짐 9. 옷로비-특검도입 검찰위상 흔들 10. 코스닥 폭발상승 금융시장 돌풍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00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시민의 힘 보여준 총선연대2. 김대중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3. 러브호텔, 원조교제, 섹스비디오4. 편파수사시비 검찰수뇌 탄핵공방5. 정현준-진승현 게이트 금융시장 강타6. SOFAMA찰 등 악재속출-반미감정 증폭7. 현대그룹 '왕자의 난' 경제위기 심화8. 반세기 분단의 벽 깬 남북정상회담9. 의약분업 갈등 의료계 파업10. 고득점 인플레 수능변별력 논란	

부 록4

청소년 호소문제 분류표 분석결과

부록 4. 청소년 호소문제 분류표 분석결과

		빈도 (%)		
청소년 호소문제		2000년	2001년	2002년
가족	부모/자녀 관계문제	53 (8.2)	49 (7.4)	63 (11.0)
	부모간의 갈등/폭력	9 (1.4)	35 (5.2)	11 (1.9)
	결손/재구성가정 적응문제	4 (0.6)	7 (1.0)	14 (2.4)
	부모의 자녀학대/방치	3 (0.5)	2 (0.3)	3 (0.5)
	부모의 정신건강	2 (0.3)	5 (0.8)	2 (0.3)
	자녀의 패륜행위	9 (1.4)	3 (0.5)	3 (0.5)
	경제적/환경적 문제	3 (0.5)	0 (0.0)	4 (0.7)
	형제/자매 관계문제	1 (0.2)	1 (0.1)	5 (0.9)
	친인척 관계문제	0 (0.0)	3 (0.5)	4 (0.7)
	기타	4 (0.6)	3 (0.5)	4 (0.7)
		88 (13.6)	108 (16.3)	113 (19.6)
비행	가출	61 (9.5)	31 (4.7)	29 (5.1)
	폭력	15 (2.3)	12 (1.8)	11 (1.9)
	금품갈취/절도	7 (1.1)	3 (0.5)	5 (0.9)
	성관련 비행	6 (0.9)	6 (0.9)	1 (0.2)
	도박	27 (4.2)	27 (4.1)	16 (2.8)
	음주/흡연	7 (1.1)	5 (0.8)	10 (1.7)
	약물오남용	1 (0.2)	2 (0.3)	1 (0.2)
	불량써클/폭력조직	3 (0.5)	2 (0.3)	1 (0.2)
	비행또래와의 어울림	8 (1.2)	15 (2.2)	19 (3.3)
	기타	4 (0.6)	2 (0.3)	1 (0.2)
		139 (21.6)	105 (15.9)	94 (16.5)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청소년 호소문제		2000년	2001년	2002년
학업/ 학교부적응	학업태도/학습흥미	0 (0.0)	18 (2.7)	17 (3.0)
	주의산만/집중력부족	28 (4.3)	12 (1.8)	2 (0.3)
	시험불안/학업스트레스	7 (1.1)	5 (0.8)	11 (1.9)
	학습능력 부족	17 (2.6)	14 (2.1)	5 (0.9)
	무단결석/등교거부	44 (6.8)	17 (2.6)	8 (1.4)
	학교중도포기	3 (0.5)	3 (0.5)	1 (0.2)
	복학 후 적응문제	5 (0.8)	0 (0.0)	1 (0.2)
	규율위반	4 (0.6)	0 (0.0)	0 (0.0)
	학교풍토/교육제도 불만	0 (0.0)	4 (0.6)	2 (0.3)
	해외/귀국 청소년 적응	9 (1.4)	1 (0.1)	4 (0.7)
	기타	4 (0.6)	1 (0.1)	0 (0.0)
		121 (18.8)	75 (11.3)	51 (8.9)
진로	진로정보 부족	13 (2.0)	6 (0.9)	8 (1.4)
	진로결정/갈등	29 (4.5)	23 (3.5)	36 (6.3)
	진로의식부족	7 (1.1)	11 (1.7)	8 (1.4)
	직장적응 문제	0 (0.0)	0 (0.0)	0 (0.0)
	기타	2 (0.3)	6 (0.9)	1 (0.2)
	51 (7.9)	46 (7.0)	53 (9.3)	
성	성지식/정보 부족	5 (0.8)	0 (0.0)	4 (0.7)
	성충동조절	1 (0.2)	4 (0.6)	2 (0.3)
	성추행/폭행피해	0 (0.0)	6 (0.9)	13 (2.3)
	성정체감/태도	2 (0.3)	3 (0.5)	2 (0.3)
	기타	2 (0.3)	8 (1.2)	1 (0.2)
	10 (1.6)	21 (3.2)	22 (3.8)	

부록 4. 청소년 호소문제 분류표 분석결과

청소년 호소문제		2000년	2001년	2002년
대인관계	따돌림	42 (6.5)	30 (4.6)	35 (6.1)
	친구관계	43 (6.7)	52 (7.9)	43 (7.5)
	이성교제	6 (0.9)	6 (0.9)	5 (0.9)
	부모 외어른과의 관계	4 (0.6)	0 (0.0)	1 (0.2)
	기타	1 (0.2)	1 (0.1)	0 (0.0)
		96 (14.9)	89 (13.5)	84 (14.7)
성격	소극적/과민한 성격	24 (3.7)	30 (4.6)	27 (4.7)
	충동적/공격적 성격	5 (0.8)	12 (1.8)	28 (4.9)
	의존적/우유부단한 성격	13 (2.2)	7 (1.0)	6 (1.0)
	자기중심적/독단적 성격	3 (0.5)	7 (1.0)	3 (0.5)
	완벽성향/경직된 성격	4 (0.6)	5 (0.8)	1 (0.2)
	자아정체감 문제	3 (0.5)	2 (0.3)	1 (0.2)
	기타	4 (0.6)	4 (0.6)	5 (0.9)
	56 (8.7)	67 (10.1)	71 (12.4)	
정신건강	우울/무기력	17 (2.6)	24 (3.7)	16 (2.8)
	불안	11 (1.7)	10 (1.5)	13 (2.3)
	강박적 사고/행동	2 (0.3)	6 (0.9)	6 (1.0)
	정신증적 장애	4 (0.6)	19 (2.9)	14 (2.4)
	신체화증상	2 (0.3)	5 (0.8)	1 (0.2)
	식습관문제	0 (0)	1 (0.1)	1 (0.2)
	박달지체	7 (1.1)	3 (0.3)	2 (0.3)
	틱	0 (0)	5 (0.8)	3 (0.5)
	자해행위	1 (0.2)	1 (0.1)	0 (0.0)
	자살	4 (0.6)	2 (0.3)	1 (0.2)
	기타	3 (0.5)	5 (0.8)	4 (0.7)
		51 (7.9)	81(12.2)	61 (10.6)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청소년 호소문제		2000년	2001년	2002년
생활습관/ 태도	컴퓨터/인터넷 과다사용	21 (3.3)	20 (3.1)	17 (3.0)
	약속위반/태만한 생활	6 (0.9)	4 (0.6)	0 (0.0)
	소비생활문제	3 (0.5)	2 (0.3)	2 (0.3)
	기타	3 (0.5)	1 (0.1)	0 (0.0)
		33 (5.1)	27 (4.1)	19 (3.3)
기타상담			42 (6.4)	4 (0.7)
단순정보제공				

부 록5

청도, 특상 리스트

부록 5. 청토, 특상 리스트

1993년- 2002년 청토, 특상 list

1993년

청소년의 삶, 고민과 대화
청소년 다이어트 행동연구
청소년 자살행동연구
청소년과 전자오락
청소년 흡연행동, 습관형성과정, 실태, 대책
청소년의 행복도
청소년의 학교공포증
청소년의 수면행동
청소년의 사랑앓이

1995년

빗나간 아이들의 세계
오빠부대, 어떻게 볼 것인가
패륜의 예방과 상담

1997년

청소년의 언어세계
천재들의 삶과 꿈
청소년의 영적발달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

1994년

청소년의 수험행동
청소년의 문화풍속도
매맞는 아이들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
노는 아이들의 세계
청소년의 꿈
청소년의 유머

1996년

청소년의 소비행동
대형사고와 청소년
때리는 아이, 맞는 아이
현대사회 환경과 청소년의 좌절
청소년의 미래의식

1998년

사이버세계와 청소년 상담
청소년 동반자살
청소년의 놀이문화
청소년 주술행동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1999년

사이버상담을 통해 본 청소년의 세계
청소년의 우울
청소년의 또래관계
청소년의 사이버문화

2000년

방과후 청소년의 세계
청소년의 PC 중독
청소년의 가출
남북한의 변화와 청소년의 도전 과제

2001년

청소년의 엽기놀이
교실에서 잠자는 아이들
청소년 매니아의 세계
이혼가정의 아이들

2002년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폭력가정의 아이들

— 연 구 진 —

책임연구자 : 금 명 자(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교수)
 김 동 민(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교수)
공동연구자 : 권 해 수(한국청소년상담원 선임상담원)
 이 소 영(한국청소년상담원 상 담 원)
 이 희 우(한국청소년상담원 상 담 원)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 쇄 : 2003년 5월 일
발 행 : 2003년 5월 일
발 행 인 : 이 혜 성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주 소 :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100-824(흥진빌딩 내)
 전화 : (02)2253-9344
 FAX : (02)2253-3818
인 쇄 처 : 신일문화사 (TEL: 2278-8459)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음

ISBN 89-8234-268-0 93330
ISBN 89-8234-001-7 (세트)